

2022년도 제26차 정기총회

2022년도 제26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22년 1월 27일(목) 19:00

장 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및 온라인 zoom 회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 제25차 정기 총회 회의록	2
■ 2021년 감사 보고	6
■ 2021년 사업보고 및 평가	8
I. 사업 총평	9
II. 사업보고 및 평가	
【1】 조직 사업	13
【2】 평화·통일 사업	23
【3】 정보·홍보 사업	66
【4】 연대 및 협력사업	78
【5】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9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3
■ 2021년 결산보고	114
■ 임원 인선안	123
■ 2022년 평화회원상	125
■ 2022년 사업계획(안)	
사업기조와 방향	129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13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36
조직사업	
■ 2022년 예산안	138
■ 부록	
평화여성회 정관	141
평화여성회 조직도	148
2021년 성명서 목록	149
2021년 홍보자료	264
회원가입서	

정기총회 순서

I부. 회원등록 및 인사나누기 (오후 6:30~7:00)

II부. 본 회의 (오후 7:00~9:00)

1. 개회선언
2. 서기 임명
3. 성수 보고
4. 회순 채택
5. 전차 회의록 낭독
6. 2021년 감사보고
7. 2021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21년 결산보고와 승인
9. 평화회원상 시상
10. 임원 선출 및 승인
11. 2022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2. 2022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3. 기타토의
14. 회의록 받음
15. 폐회

2021년도
제25차 정기 총회 회의록

2021년도 제25차 정기 총회 회의록

-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18:30
- 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서기 : 김태원, 이덕경
- 주요 내용

사전행사: 비대면 화상회의로 회원 각자의 소망을 간단하게 나누다.

1. 개회선언

- 김정수 의장이 19:25에 개회를 선언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서기임명

- 김태원, 이덕경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만장일치로 서기임명에 동의하다.

3. 성수보고

- 김세민 활동가가 재적회원 40명 중 위임 5명, 참석 29명 총 34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정수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김정수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다.
- 한정숙 회원이 동의, 김귀옥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5. 전차회의록 낭독

- 이덕경 회원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김성은 회원이 동의, 김정아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회의록을 받다.

6. 2020년 감사보고

- 김정수 의장이 박유희 사업감사가 작성한 사업 감사 보고서를 대독하다.
- 안수경 회원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낭독하다.

7. 2020년 사업보고와 승인

- 김정수 의장이 2020년 사업 총평을 보고하다.
- 여혜숙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을 보고하다.
- 김귀옥 원장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을 보고하다.
- 한정숙 회원이 동의하고, 이권명희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 김정수 의장이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활동과정을 공유하다.

8. 2020년 결산 보고와 승인

- 김세민 활동가가 평화여성회 결산을 보고하다.
- 여혜숙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결산을 보고하다.
- 김태원 활동가가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결산을 보고하다.
- 박인혜 회원이 동의하고, 조영주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9. 2021년 평화회원상 시상

- 손희정과 윤보영에게 2021년 평화회원상을 시상하다.

10. 2021년 임원선출 및 승인

- 김정수 의장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 선출안을 설명하다.
- 신입이사는 배현주, 윤은주, 연임이사는 김성은, 김지영, 김정아, 사업감사는 박유희 회원이 연임하기로 하다.
- 모든 회원이 박수로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위 임원 선출안을 승인하다.

11. 2021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수가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귀옥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여혜숙(신임 부소장 박인혜)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정현백 회원이 작년에 만든 '1325동영상'을 회원들과 같이 보고 대중화 콘텐츠를 사업에 반영하기를 제안하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은 필연적이지만 사업변화의 추이를 도표화해서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다.
- 2021년 사업 중 영어자막과 번역으로 제작할 예정인 '1325 동영상' 제작 전에 회원들과 토의 개선의 대중화 사업을 할 것을 김성은 회원이 제안하다.
- 김정수 의장이 위의 제안들은 향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기획회의에서 논의자리를 만들기로 하다.

12. 2021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김세민 활동가가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활동가 김태원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여혜숙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202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이 동의 재청받기로 김정수 의장이 제안해서 회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다.
- 정현백 회원이 동의하고, 한정숙 회원이 재청하다.

13. 기타토의

- 한정숙 회원이 '3.8 여성대회'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김정수 의장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여성대회 행사 계획이 없음을 공유하다.
- 김성은 회원이 '3.8 여성대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다.
- 조영주 회원이 '3.8 여성대회'에 아시아 여성들의 만남 3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여성 여성이 만나자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제안하다.

14. 회의록 받음

- 이덕경 회원이 회의록을 낭독하다.
-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문구를 가다듬어 정리하기로 하다.

15. 폐회

- 21:13에 김정수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감사 보고

202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2021년도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단체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성실히 매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상황이 계속 이어진 2021년임을 감안할 때,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및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하여 오히려 더욱 빈번하고 활발한 회의 및 행사를 펼쳤고 참여자 수도 확대되었습니다.
3. 평화여성회는 유튜브 채널에 “평화를 만들며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이슈와 토론회 내용을 탑재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더욱 확대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화여성회의 사업과 활동이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2022년에는 더욱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계속될 비대면 시대에 유용한 소통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4. ‘평화여성회’는 부설기구인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평화와 갈등 해결의 메시지를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교육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과 조직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2020년, 10년 만에 복간되었던『여성과 평화』6호의 출간에 이어 7호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6. 25주년을 맞는 2022년도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한반도 평화운동의 중심축을 구축하는 견고한 기반이 형성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 2021년도에도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기 위한 ‘여성평화역량 강화’와 ‘자체조직력 강화’를 조화롭게 추구하시면서 여성평화운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평화여성회’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7.

감사 박유희 (인)



2022년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 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감사 일시 : 2022. 1. 17.

감사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 사 : 안 수 경

2021년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본 감사는 본회를 비롯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감사개요

제출한 결산보고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통장 등의 대조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의견

- 1)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잘 비치하고 있었고, 계산도 정확하였으며, 통장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영수증 첨부 시 계좌이체 확인증에 영수인의 개인 자필서명을 명기한 영수증 첨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카드 영수증의 경우 감열지이기에 복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 2) 특별회계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하였기에 추후에는 특별회계도 수입을 잡은 후 지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산 추경을 득한 후에 지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4) 현금은 12월 말에 입금 후에 마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5) 12월 31일자로 통장정리를 한 후에 감사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6) 손빛나리 간사의 성실하고 꼼꼼한 회계 집행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17일

감사 안 수 경



2021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21년 사업 총평

II. 2021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21년 사업 총평(안)

2021년도에도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의 길은 제대로 놓이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 문제 해결이나 적대 정책 해소가 이뤄지지 않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등으로 인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새로 취임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북 제재 같은 적대 정책을 지속하면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미는 등 북미대화를 재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대결을 강화시켜, 동북아에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등 2021년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은 한층 더 증가되었다.

어려운 국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성회는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여성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평화여성회의 활동은 본회와 부설기관인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동시에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 나아가 국제여성·평화운동과 국제기구와의 후원과 지지를 얻어 이뤄졌다. 본회의 이러한 활동과 여성시민사회에 대한 기여는 2021년 5월 한국여성재단에서 주관한 제7회 박영숙 살림이상 단체 부문 수상, 2022년 1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의 특별상(여성평화가교상) 수상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자평한다.

2021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과 사업의 특징과 성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년 전에 시작된 남북여성교류(‘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 성과를 이어받아 재개될 남북여성협력의 자원으로, 또 동아시아 여성평화 연대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화여성회는 2021년 총회에서 1991~1993년 동경-서울-평양-동경에서 4차에 걸쳐 진행된 최초의 남북민간교류이자 남-북-일 여성교류이기도 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사업을 계획하였다. 본회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회’의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1997년 3월 28일 여성평화전문단체로 출범한 단체로서의 정체성,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재개된 남북여성교류를 주도하고 견인하는 단체로서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다시 중단되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기대되었던 남북관계가 또다시 후퇴하면서 남북여성교류 역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토론회 3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지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첫째,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평화여성회가 독자적으로 기념할 것이 아니라 여성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의 공동의 기념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 11개 여성단체가 함께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둘째, 북측

여성들에게 남측 여성단체들이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북측과 소통 통로를 지니고 있는 6.15 남측위와 해외위원회를 통해 북측여성들에게 팩스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엔평화정무국(UNDPPA)을 통해 유엔에 파견한 북측 대표부에도 초청장도 전달했다. 아울러 통일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실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6월 2일에는 30년 전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던 원로분들을 초청하여 간담회(제목: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 & 내다봄)을 개최하였고, 북측 여성들의 참석이 어려운 것이 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11월 25일(1991년 제2차 서울토론회가 열린 날)에는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여성들이 참여하여 남북여성교류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내외 여성들의 기여와 헌신, 증가하는 동아시아 군사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평화연대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11월 5일 본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는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그 성과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평화여성회의 남북여성교류 30년 기념사업은 분단 이후 남북 민간교류의 문을 연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향후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 노력으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의 대화와 경험 공유, 연구자와 활동가가 함께한 공동의 평가와 전망,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국내외 여성단체들의 협력을 통한 여성평화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의 연대와 협력, 지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히 국제여성평화운동 차원에서 남북여성교류 30년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국여성-시민사회-평화통일운동 영역에서 여성들의 분단 극복과 평화건설을 위한 역할과 역사적 기여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주최한 여성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북여성교류 지속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고 또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여성평화안보(WPS) 네트워크 구축, 동아시아 평화군축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확인하게 되었다. 1년 동안의 노력과 활동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를 주도하고 여성평화운동을 견인하는 단체로서 여성평화운동 역량을 발휘하고 단체가 지니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중단된 남북관계, 악화된 동북아의 지정학적 현실, 나아가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상황에서 평화여성회는 증가하는 군사주의를 비판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여성의 인간안보 확보를 위한 비판과 연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남북의 신뢰 회복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군축을 요구했다. 동시에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의 집권 상황 속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목소리를 통해 무력을 비롯한 힘을 통한 평화를 반대하

고 여성의 인권과 안녕이 회복되는 인간안보를 옹호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드러냈다.

셋째, 시민사회의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에 여성단체들의 참여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렇게 4개의 여성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여,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종전평화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캠페인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장을 만들었다. 특히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폭력과 분단 폭력, 젠더 폭력, 군사주의 폭력과 의 상관성을 여성들이 스스로 개념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특강과 씨클대화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렇게 여성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 안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동시에 여성들이 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와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넷째, 부설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갈등해결센터는 활동가들의 전문적 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학습모임을 꾸준히 진행했고, 또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그 성과로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매뉴얼> 제작하여 배포하여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여성평화연구원은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연구위원과 회원들을 초청하여 <여성과 평화> 포럼을 수 차례 진행, 2021년 전쟁과 평화연구 분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11월 5일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여성교류와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의의를 학문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자료화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 이어 『여성과 평화』 7호를 준비하여 2022년 1월 출간할 예정이다.

2021년 한해 열심히 노력하고 거둔 성과는 평화여성회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그리고 의제의 다변화를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여성들의 종전평화캠페인은 4개의 여성평화운동단체들, 남북여성교류 30주년 기념 행사는 11개 여성단체를 비롯한 국제여성평화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했고 또 WPS 1325 의제를 남북여성교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의제를 넘어 HDP(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와 여성평화ODA와 같은 개발협력 의제까지 확산시키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와 개선의 과제를 지닌다. 무엇보다, 평화여성회의 활동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군축과 같은 소극적 평화운동에 집중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현재 중단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현실이나 고착된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단체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확장되었으나 코로나19라는 객관적 상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평화여성회 회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조직적 발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평화여성회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회원 참여형 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적극적 평화운동을 견인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 아울러 남북관계의 신뢰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군축 운동을 전개하는 과제를 남긴다.



2022년 1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에서 평화로만드는여성회는 '여성평화가교상'을 받았다.

II. 2021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0년 사업계획 수립,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와 장소/방식 : 2021년 1월 27일(화) 18:30~21:00, ZOOM+평여 회의실
- 성원보고 : 재적회원 40명 중 위임 5명, 참석 29명 총 34명으로 성원
- 주요안건 :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조직 변경의 건 등

(2) 2022년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 김정수(위원장/본회 상임대표),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여혜숙(공동대표/부설갈등해결센터 소장), 한정숙(이사), 김성경(연구원 연구위원), 박인혜(갈등해결센터 부소장), 손빛나리(활동가), 김태원(연구원 간사)

①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11월 30일(화) 20: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한정숙, 김성경, 박인혜, 손빛나리, 김태원
- 안건 : 총회 날짜 결정, 총회 순서 확인, 총준위 일정 및 절차 논의, 2021년 사업 평가(브레인스토밍) 등

②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12월 21일(화) 20: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한정숙, 김성경, 김태원

- 위임 : 김귀옥, 박인혜
- 안건 : 2021년 사업 평가(본회, 센터, 연구원), 2021년 사업계획(본회, 브레인 스토밍, 부설기관 사업계획(안), 총회 참석자 확인 등

③ 3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1월 7일(금) 16: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한정숙, 김성경, 손빛나리, 김태원
- 위임 : 박인혜
- 안건 : 2021년 총회 인선위원회 구성, 2021년 사업 총평 및 결산안 검토,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총회참석회원 명단 확인, 모범회원상 추천 등 총회 준비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 김성은
- 이사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배현주, 여혜숙, 윤은주, 조영희, 한정숙 (존칭 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57차) 이사회

- 일시 : 2021년 1월 28일(금) 20:00
- 방식 :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여혜숙, 한정숙
- 위임 : 김귀옥, 박현선
- 불참 : 이나영, 조영희
- 배석 : 김세민 활동가, 김태원 간사
- 안건 : 신임 이사 승인의 건(배현주 박사와 윤은주 박사를 신임이사로 승인), 이나영 이사 사임의 건(의사 전달, 받기로 함), 2020년 사업과 결산(안) 보고와 승인,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와 승인, 특별사업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안) 검토와 승인, 한정숙 이사를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함 등

(2) 2차(58차) 이사회

-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15: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정은, 김정수, 김정아, 박현선, 배현주, 여혜숙, 한정숙
- 위임 : 김귀옥, 김지영, 윤은주, 조영희.
- 배석 : 손빛나리 활동가, 김태원 간사
- 안건 : 2021년 상반기 사업과 회계보고(안)을 보고와 승인, 2021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와 승인,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사업의 건(운영위에 위임), 대선 시기 본회 임원진의 정치참여에 관한 기준마련의 건(개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단체명, 단체직함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인 참여의 경우도 사전에 공유하도록 알림), 기타 본회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 등

1-3. 운영위원회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김정수 (상임대표)
- 위 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3) 회의

(1) 1차 : 2021.03.24.(수) 20:00 ~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이인선, 김태원
- 안건 : 2021년 총회(제25차) 총회 회의록 검토 및 총회 평가, 2~3월 사업 및 회계 보고(본회, 부설기관), 4~5월 사업계획 공유(본회 및 부설기관)

(2) 제2차 : 2021.5.21.(금) 15:00~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이인선, 김태원
- 안건 : 1차 운영위 회의록 검토, 4~5월 본회와 부설기관 사업/회계 보고, 2021년 5월 25일(화) 여성재단 주관 제7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상금 500만원), 6~7월 본회와 부설기관 사업계획 공유, 기타 논의

(3) 제3차 : 2021.9.14.(화) 10:30~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손빛나리, 김태원
- 안건 : 7~8월 본회와 부설기관 사업/회계 보고, 9~10월 본회와 부설기관 사업 계획 공유, 기타논의 등

(4) 제4차 : 2021.10.20.(수) 19:00~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손빛나리, 김태원
- 안건 : 9~10월 본회와 부설기관 사업/회계 보고, 10~11월 주요 사업과 일정 공유(본회: 여성재단 지원사업-여성종전평화선언 온라인발표회, 연구원 11월 5일 학술회의, 평화여성회-캠프 협력사업, 11월 25일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2022년 총회 날짜 정하기(1월 27일 목), 총회준비 위원회 구성 및 총준위 날짜(1, 2차) 정하기, 곳감 판매 계획 등

1-4. 사무국회의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손빛나리(활동가)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4) 일시

- (1) 1차: 2021.01.06.(수) 15:00-16:00 회의실
- (2) 2차: 2021.02.02.(화) 15:00-16:00 회의실
- (3) 3차: 2021.02.15.(월) 15:00-16:00 회의실
- (4) 4차: 2021.03.03.(수) 15:00-16:00 회의실
- (5) 5차: 2021.03.17.(수) 16:00-17:00 1층 카페
- (6) 6차: 2021.03.31.(수) 16:00-17:00 회의실
- (7) 7차: 2021.04.08.(목) 15:00-16:00 회의실
- (8) 8차: 2021.04.13.(화) 15:00-16:00 zoom
- (9) 9차: 2021.04.27.(화) 15:00-16:00 회의실
- (10) 10차: 2021.05.04.(화) 14:00-15:00 zoom
- (11) 11차: 2021.05.10.(월) 15:00-16:00 zoom

- (12) 12차: 2021.05.26.(수) 15:30-16:30 회의실
- (13) 13차: 2021.06.09.(수) 15:00-16:00 회의실
- (14) 14차: 2021.06.23.(수) 16:00-17:00 회의실
- (15) 15차: 2021.07.01.(목) 16:00-17:00 회의실
- (16) 16차: 2021.07.05.(월) 16:00-17:00 회의실
- (17) 17차: 2021.07.12.(월) 16:00-17:00 회의실
- (18) 18차: 2021.07.27.(화) 16:00-17:00 zoom
- (19) 19차: 2021.08.02.(월) 15:00-16:00 회의실
- (20) 20차: 2021.08.10.(화) 16:00-17:00 회의실
- (21) 21차: 2021.08.23.(월) 16:00-17:00 회의실
- (22) 22차: 2021.09.01.(수) 12:40-13:40 zoom
- (23) 23차: 2021.09.06.(월) 16:00-17:00 회의실
- (24) 24차: 2021.09.27.(월) 15:30-16:30 zoom
- (25) 25차: 2021.10.06.(수) 15:30-16:30 회의실
- (26) 26차: 2021.10.18.(월) 16:00-17:00 회의실
- (27) 27차: 2021.10.25.(월) 16:00-17:00 회의실
- (28) 28차: 2021.11.02.(화) 14:00-15:00 zoom
- (29) 29차: 2021.11.08.(월) 16:00-17:00 회의실
- (30) 30차: 2021.11.16.(화) 15:30-16:30 회의실
- (31) 31차: 2021.12.02.(목) 16:00-17:00 회의실
- (32) 32차: 2021.12.08.(수) 14:30-15:30 회의실
- (33) 33차: 2021.12.13.(월) 문건으로 공유
- (34) 34차: 2021.12.27.(월) 15:00-16:00 회의실

3) 박영숙 살림이상 단체분야 수상

- 신청 : 2021년 5월 9일
- 시상식 :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3시, 여성재단 회의실
- 상금 : 500만원
- 언론 : ‘박영숙살림이상’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3개 단체 선정 - 여성신문 (womennews.co.kr) “단체상을 받은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7년 창립 이후 24년 동안 여성평화운동,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여성평화연구 등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운동과 교육, 담론 형성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을 이끌어왔다. 특히 동북아 여성평화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7회 박영숙 살림이상 시상식

박영숙 선생님께서 생애를 통해 추구해오신 생명, 평화, 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여성단체와 여성활동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개인 (평화분야) 박형선 |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생명/환경분야) 성은혜 | 생태교육센터 이랑

단체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단법인 조각보
수원여성회

시상식

일시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3시

장소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
* 시상식은 수상자만 참석하여 진행되어 널리 초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박영숙살림터 이사회



HOME > 사회 > 인권·복지

'박영숙살림이상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3개 단체 선정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5.28 10:06 | 수정 2021-05-29 10:19 | 댓글 0

사회 변화 위해 뛰는 여성활동가, 단체 지원
활동가는 박형선·성은혜 등 선정



(왼쪽부터)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교무(박형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집행위원 대리수상자),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 사단법인 조각보 김숙임 대표, 수원여성회 조영숙 대표, 성은혜 생태교육센터이랑 사무국장. ©박영숙살림터

2. 법인.행정

2-1. 감사

- 1) 역할 :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 사업감사 (박유희 전 이사), 회계감사 (안수경 회원)
- 3)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2-2. 법인, 세무, 행정 업무

-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통일부 법인 및 세무 업무

-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내역 제출 (일시 : 1월 7일)
- (2) 2020년 하반기(7-12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시 : 1월 7일)
-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남부법원등기소)/ (일시 : 2월 24일, 3월 15일, 3월26일 4월21일)
-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일시 : 1월 19일, 2월 24일, 3월 15일, 4월 19일, 4월21일)
- (5) 통일부 법인 대상 대화의 날 zoom 참석 (일시 : 3월 19일)
- (6) 통일부 법안보고 작성 및 제출 (일시 : 4월12일)
- (7) 법인 건축물대장 발급 (일시 : 4월 21일)
- (8) 결산공익 법인 제출 (일시 : 4월 27일)
- (9)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일시 : 4월 27일)
- (10) 통일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관련 보고 (일시 : 4월 28일)
- (11)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일시 : 4월 28일)

- (12) 2021년 상반기(1-6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7월 12일)
- (13) 2021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김세민, 이인선, 손빛나리) 제출(일시 : 7월 23일)
- (14)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_서울시 프로젝트 단순인건비 지급 대상자 (일시 : 7월 23일)
- (15) 2021년 8월(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일시 : 8월 9일)
- (16)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제출 (일시 : 10월 13일)
- (17) 은행업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법원 인터넷등기소)/(일시: 10월 19일 11월 19일)
- (18) 은행업무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남부법원등기소) (일시 : 10월 26일)
- (19) 2021년 10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_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단순인건비 지급 대상자 (일시 : 12월 14일)
- (20)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7월 23일 제출 분) 수정 신고 (일시 12월 14일)
- 사유 : 기 비과세소득으로 오 신고 부분 과세소득으로 수정 신고

3) 행정업무

- (1)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연장 (일시 : 1월 5일)
- (2) 김세민 활동가 퇴직금 지급 (일시 : 2월 25일, 3월 2일)
- (3) 사무실 컴퓨터 부품 교체 및 수리 (일시 : 3월 2일)
- (4) 연대회비 납부
 - 6.15 여성본부(2019) (일시 : 3월 17일)
 - 6.15 여성본부(2021) (일시 : 4월 7일)
 - 한국여성단체연합(2021) (일시 : 5월 4일)
 - 시민평화포럼(2021) (일시 : 5월 4일)
 - 시민사회단체(종전평화캠페인_2021) (일시 : 5월 12일)

(5) 경력증명서 발급

김정수(2월)/강인화(2월)/여혜숙(3월)/이덕경(3월)/강남식(4월)/김엘리(5월)
/손서정(7월)/박수선(8월)/강인화(10월_연구원)

(6)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현백(5월)/정용수(5월)

(7)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3년)/ (일시 : 4월 19일)

- 도메인 : (주) 아사달

- 기간 : 2021년 ~ 2024년

(8) 홈페이지 개선 및 재정비 (기간 : 5월 10일 ~ 10월 1일)

- 개발자 : 장익수

(9)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 1차 회의 참석 (일시 : 5월 21일)

(10) 활동가 4대 보험 수정신고 (일시 : 7월 2일)

- 사유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미가입

(11) 은행업무용 공인인증서 갱신 (일시 : 7월 14일)

(12) 오즈메일러 사용료 결제(12개월)/ (일시 : 9월 16일)

- 기간 : 2021.09.16. ~ 2022.09.22.

(13) 오즈메일러 이미지호스팅 사용료 결제(12개월)/ (일시 : 10월 5일)

- 기간 : 2021.10.05. ~ 2020.09.22.

(14) 오즈메일러 문자 충전 결제(5,128통)/ (일시 : 10월 26일)

(15) Dropbox(드롭박스) 1년 사용료 결제 (일시 : 11월 7일)

- 기간 : 2021.11.07. ~ 2022.11.06.

(16)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소유 우리은행 전체 계좌 확인 및 정보 수정 (일시 : 10월 20일)

(17) 법인카드(우리은행 운영비) 재발급 : (일시: 11월 10일)

(18) 여성미래센터 소방시설 점검 (일시 : 12월 10일)

(19)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 3차 회의 참석 (일시 : 12월 21일)

(20) 미지급 연대회비 납부

- 한국여성연합(2019) (일시 : 12월 28일)

- 6.15 여성본부(2017, 2018) (일시 : 12월 30일)

[2] 평화·통일 사업

■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안)

1.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형성을 위한 적극적 평화 만들기 활동**
 -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 평화, 안보 정책 공약 제안 활동
 -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2. **여성이 만들어 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내외 전개**
 - Women's Korea Peace Appeal 전개
 -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연대 및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참여 (네트워크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전국여성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공공외교 참여
3. **WPS(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 여성·평화·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한반도 평화과정의 의미있는 여성참여와 성인지적 개입 실현을 위한 활동
 - 동아시아 WPS 인덱스 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여성평화네트워크
 - K-1325 네트워크 역량강화와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적 확산 사업
4.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남북여성 협력 기반 조성 활동**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 사업**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 : 자료집 정리와 토론회 참여자 초청 간담회 등
 - 남북여성교류 30년 기념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 개최 추진 및 이를 위한 국내외 여성운동 연대와 네트워크 활성화

1.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형성을 위한 적극적 평화 만들기 활동

1) 성명서/기자회견문/논평 발표

- 2021년 2월 21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서: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 2021년 3월 16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최종 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 여성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반대한다.”
- 2021년 3월 17일 미얀마 사태의 민주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한국여성단체와 시민단체 연대성명서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 2021년 3월 17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즈음한 입장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자.” 시민평화포럼 성명에 연명
- 2021년 3월 1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성명 “미국 국무·국방 장관 한국 방문,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 남측위 성명에 연명
- 2021년 4월 15일 “국익과 한-미 SOFA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 기자회견 참여와 기자회견문에 연명
- 2021년 4월 26일 : [연대성명]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 재판부 규탄!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기자회견문에 연명
- 2021년 5월 11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참여 <https://petitions.assembly.go.kr/.../C12459F179CE65A1E054...>
-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입장 기자회견 진행 - 74개 국내여성단체, 7개 해외여성단체가 연명 &지지,
- 2021년 5월 20일(목)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16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참여, 평화여성회도 연명함
- 2021년 6월 15일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에 연명
-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공동성명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에 연명
- 2021년 7월 27일 “[기자회견문] 정전협정 68년,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제안하고 기자회견 진행함
- 2021년 8월 11일 공동기자회견문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동의 반대한다.”에 연명함
- 2021년 8월 15일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공동호소문”에 연

명함

- 2021년 8월 20일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에 연명함
- 2021년 10월 21일 평화여성회, 기독여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선언문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기획하고 진행함
- 2021년 11월 9일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및 성명서 발표에 참여함

2) 성명서 기획 및 진행

- 2021년 2월 21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서: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들
- 언론보도 : 통일뉴스, 여성신문
- 2021년 3월 16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최종 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 여성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반대한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와 64개 여성단체들
- 언론보도 : 통일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2021년 3월 16일(화) 오후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사회 : 김정수(6.15 여성본부 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언 1 : 한미경(6.15 여성본부 공동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발언 2 : 선애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자통위원장)
발언 3 : 문지은(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활동가 2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와 64개 여성단체들

- 2021년 3월 17일 미얀마 사태의 민주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한국여성단체와 시민단체 연대성명서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74개 여성/시민단체 및 교회

- 성명서 초안, 배현주 이사 작성
 - 영문번역 : NCKK 여성위원회 소개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 자원봉사로 진행
 - GPPAC NEA, GPPAC SEA, UNDP, Korea Peace Now의 아시아 인권운동 네트워크 등을 통해 미얀마 여성들에게 전달됨
- 2021년 5월 20일(목)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발표 :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라!”
- 74개 국내여성단체, 7개 해외 여성단체, 여성신문, 통일뉴스 등 기사화됨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라!”

-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 <순서>
- 사회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부장)
- 여성계 발언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외교포럼 활동가
- 구호 제창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마련하라!**
 - **남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라!**
 -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 공동 주관
 경기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 남북위 여성본부

- 2021년 7월 27일 :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기획하고 진행함



- 2021년 8월 6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들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1인 시위를 진행



- 2021년 10월 21일 평화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선언문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기획하고 진행함

2)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 평화, 안보 정책 공약 제안 활동

① 2021년 대선기획 <제1차 라운드테이블, 여성의 삶을 공약하라> 라운드 테이블

- 일시와 방식 : 2021년 12월 1일(수) 오후 7시 / 여성연합 유튜브 채널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발제1-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전환을 향한 페미니스트 전망(김은희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 발제2-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와 정책 방향(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제3-무너지는 민주주의, 사라지는 미래(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토론-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질의응답

3) 성과와 과제

(1) 현안대응 성명서 & 논평 측면

- 평화여성회는 평화군축운동 차원에서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과도한 국방비과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여성계 비판성명을 주도하였다.
- 상반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여성계 연대성명 제안하여 위기에 처한 미얀마 민주주의 현실에서 미얀마 여성들에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책 마련 촉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탈레반 통치와 여성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와 여성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에도 전달하였다.
- 그러나 하반기에는 평화여성회의 사업과 연대활동으로 인해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기보다는 연대성명에 연명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다.

(2) 2022년 대통령선거 여성평화안보 정책공약 제안활동 측면

- 평화여성회는 여성연합의 회원단체로서 12월 1일 개최한 대선기획 라운드테이블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여성평화안보’ 정책이라 명명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가칭)‘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을 통해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수준을 높이고 의미 있는 여성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고, 향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후속 작업이 요청된다.

2. 여성이 만들어 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내외 전개

1) Women's Korea Peace Appeal 전개(한국여성재단 <성평등 사회 조성 사업>)

- 사업명 : Women's Korea Peace Appeal -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위한 여성/지역/청년단체 역량강화와 여성청년 이니셔티브를 통한 캠페인 확산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3월 22일~10월 31일
- 지원금 : 15,000,000원 (운영비 40%, 사업비 60%)
- 온라인 심사일 : 2021년 2월 1일
- 최종 발표일 : 2021년 3월 3일
- 수정사업서 작성을 위한 회의 : 3월 8일(월)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 계약 체결일 : 2021년 3월 22일
- 실무워크샵 : 2021년 3월 24일(수) 온라인, 오전 10시, 이인선 참석
- 사업변경 신청 및 승인 - 2022년 4월 초

(1) 사업 목적 및 목표

- ① 2020~2023 한국시민사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가 미흡한 여성 단체들의 주도적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인식개선/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② 서명 위주로 진행되는 캠페인 방식에서 여성/청년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방식을 개발, 청년세대의 종전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냄
- ③ 여성청년들이 'Women's Korea Peace Appeal'을 작성하여 발표함

(2) 전체 사업 개요

세부사업	사업 진행
역량강화프로그램 (간담회+써클대화) 5월~7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준비회의 (1회) 진행 ② 참가 단체 모집 및 홍보 ③ 4회 간담회+써클대화 진행 ④ 평가회의(1회) 진행 ⑤ 프로그램 전후 언론+SNS 홍보
여성들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 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 작업 7월~9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작업회의 3회 ② 자문회의 1회
여성평화종전 선언문 온라인 발표회 10월 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준비회의 1회 ② 온라인 발표회 1회 ③ 평가회의 1회 ④ 프로그램 전후 언론+SNS 홍보
전체 보고서 제작 10월 말	

(3) 세부사업 1 : 간담회 & 씨클대화 조직과 진행

▣ **협력단체** :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처), 대전평화여성회

- ① “여성들이 만드는 종전 평화 캠페인” 기획회의
- 일시 : 2021년 5월 18일(화) 오전 10:30~12: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 : 고유경(WILPF 컨설턴트), 김경선(기독교민회 운영위원), 김향미(수원여성회 통일평화위원장), 장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내용
 1. “여성들이 만드는 종전 캠페인” 간담회 논의
 - 한반도 종전 평화와 관련,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은 물론 청년, 지역단체 등과의 결합을 통한 캠페인 확산에 주력하는 것에 의견을 모음.
 2. “여성들이 만드는 종전 캠페인” 씨클대화 논의
 - 주제선정에 있어 ‘분단 종식’이나 ‘종전’ 등의 개념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단체마다 종전에 대한 인식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주제선정시 공통주제 한 개와 단체에 맞는 주제 두 가지 정도를 특화시켜하기로 함.
 3. “여성들이 만드는 종전 캠페인”의 핵심사항 논의
 - 국가 공동체 안에서 위기나 위협 발생 시 대응의 문제점
 - ① 국가공동체를 ‘보호’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폭력적 군사문화를 인정하는 현실과 그 속에서 소수자 및 젠더 폭력 발생 문제 토의.
 - ② 위기의 해결방안으로서 폭력을 인정하는 모순 지적.
 - 분단의 원인과 지속된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 성평등적 공존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논의함.

②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Women’s Korea Peace Appeal 여성·청년단체 간담회와 씨클대화 진행

추진계획	추진시기	장 소	대상 및 참여 인원	주요 추진 결과
기획회의	2021 4월 중	평화 여성회 회의실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강사, 씨클대화진행자 각 1명 및 평화여성회 2명 회의 진행(고유경, 박인혜, 김정수) ○ 전체 프로그램에 논의 진행
참가 단체 모집 및 홍보	2021 5월 초반		여성단체 청년단체 지역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단체 회원단체인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섭외하여 참여하기로 함 ○ 여성연합 사무처 활동가 전체 참여 제안 - 참여하기로 함 ○ 대전평화여성회 참여 제안 - 참여하기로 함 ○ 그 외 5성북지역 대안학교 교사 모임, 탈북청

				년모임 등 섭외했으나 시간/일정 조정 어려움으로 불발
준비회의 1차 진행	2021.5.18. 10:30 - 12:0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진행 ○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여성연합 활동가, 특강강사, 씨클대화 진행자, 평화여성회 주최 측 (김경선, 김향미, 장수진, 고유경, 박인혜, 김정수) ○ 간담회+씨클대화 개요 설명 ○ 각 단체의 관심사 공유 ○ 참가자 대상 사전 설문지 배포 및 수집 관련 의견 수렴 - 특강 내용에 포함함 ○ 씨클 대화 진행방식 공유 등
준비회의 2차 진행	2021. 6월 중	평화여성회 회의실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클대화 진행자 2명, 평화여성회 주최 측 1명 회의 진행 (박인혜, 여혜숙, 김정수) ○ 씨클대화 질문지 작성 및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뮬레이션
웹포스터 제작 및 홍보	2021년 6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포스터 제작하여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다양한 네트워크, 플랫폼 통해 홍보함 ○ 여성신문에 취재 요청 및 홍보자료 발송
기독교민회 캠페인 진행(1)	6.18. 19:00 -21: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민회 대표, 활동가, 청.장년회원 10명 + 강사, 진행자, 주최측 5명 ○ 1. 특강(고유경-외부전문가)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왜, 무엇을, 어떻게??” ○ 2. 참여형 씨클 대화- 2조 진행 (진행자: 박인혜, 여혜숙 외부전문가 + 평여회원) 1) 강의를 듣고 2) 종전과 평화를 통해 여성으로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기대하는 것은? 3) 나와 우리사회, 우리 단체가 이 캠페인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3. 전체 나눔
수원여성회 캠페인 진행(2)	6.19. 10:30 -13:30	온라인 ZOOM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여성회, 대표, 활동가, 통일평화위원회 회원 11명 + 강사, 진행자, 주최 측 5명 (온라인진행 도우미 1명 이덕경 평여 회원 포함) ○ 1. 특강(고유경-외부전문가)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왜, 무엇을, 어떻게??” ○ 2. 참여형 씨클대화- 2조 진행 (진행자: 박인혜, 여혜숙 외부전문가 + 평여회원) 1) 강의를 듣고 2) 종전과 평화를 통해 여성으로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기대하는 것은? 3) 나와 우리사회, 우리 단체가 이 캠페인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3. 전체 나눔
한국여성단체	6.25. 14:00	여성미래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합 대표, 사무처장, 활동가 10명 + 강사, 진행자, 주최 측 5명

연합 캠페인 진행(3)	-17:00	센터 소통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o 1. 특강(고유경-외부전문가)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왜, 무엇을, 어떻게??” 2. 참여형 써클대화- 2조 진행 (진행자: 박인혜, 여혜숙 외부전문가 + 평 여회원) 1) 강의를 듣고 2) 종전과 평화를 통해 여성으로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기대하는 것은? 3) 나와 우리사회, 우리 단체가 이 캠페 인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3. 전체 나눔 o 여성신문 취재 방문
o 대전평화 여성회 캠페인 진 행(4)	2021.7.9. 15:00-18: 00	대전평화 여성회 회의실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대전평화여성회 대표 및 회원 10명 + 강사, 진행자, 주최 측 5명 o 1. 특강(고유경-외부전문가)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왜, 무엇을, 어떻게??” 2. 참여형 써클 대화- 2조 진행 (진행자: 박인혜, 여혜숙 외부전문가 + 평 여회원) 1) 강의를 듣고 2) 종전과 평화를 통해 여성으로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기대하는 것은? 3) 나와 우리사회, 우리 단체가 이 캠페 인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3. 전체 나눔

성과

1. 4개의 단체가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의 종전 평화 캠페인 내용,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됨 - 이후 각 단체별로 자체적 캠페인 진행의 동력을 마련함
2. 4개의 단체는 그동안 평화/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해왔지만 대표와 실무자, 담당자 외 확장력을 지니지 못했던 한계가 있음 - 여성들의 일상의 삶에서 질문하고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종전과 평화, 전통적 안보와 안전, 전쟁 준비하는 사회,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 국가 자원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됨
3. 평화여성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이고 여성연합의 통일평화운동을 주도했지만, 이번에 여성연합 활동가 전체(대표, 사무처장 포함 10명)가 참여하는 행사는 최초의 사례임 - 여성연합 활동가 전체의 종전 평화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 특별히 여성단체 활동가로서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인식과 과제에 대해 재검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4. 사전설문지 진행으로 여성단체 활동가/회원들의 여성.평화.종전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됨
5. 여성재단의 지원으로 단체회원/활동가들에게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함으로써 단체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 - 이에 대해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마무리 평가 모임에서 내년에도 여성재단 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여성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함
6. 6월 25일(금) 여성연합과 공동주최한 행사는 여성신문 기자가 취재, 기사화됨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78>)

HOME > 사회 > 인권특지

“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젠더폭력' '성차별' '혐오’”

👤 진혜민 기자 | 🕒 승인 2021.06.28 10:00 | 📝 수정 2021-06-30 09:53 | 💬 댓글 0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주제로
25일 여성미래센터서 강연과 토론 개최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I

2021.6.18~7.9

프로그램1 특 강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왜? 무엇? 어떻게??

고유경 (MILPF 컨설턴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

프로그램2 씨름대화: 평화 스토리텔링 나눔

1차 | 기독교여성회

일시: 2021.6.18(금) 19:00~22:00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2차 | 수원여성회

일시: 2021.6.19(토) 10:30~13:30

장소: 온라인 줌(ZOOM)

3차 | 한국여성단체연합

일시: 2021.6.25(금) 14:00~17:00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4차 | 대전평화여성회

일시: 2021.7.9(금) 15:00~18:00

장소: 대전평화여성회 회의실

Women's
Korea
Peace
Appeal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



한국여성재단
KOREA WOMEN'S FOUNDATION

- ③ “여성들이 만드는 종전 평화 캠페인”(1) 진행 평가 및 향후 계획 회의
-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오후 4:00~5:00, 온라인 ZOOM 회의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 : 고유경(WILPF 컨설턴트), 김경선(기독교여민회 운영위원), 김향미(수원 여성회 통일평화위원장), 장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손빛나리 활동가
 - 내용
 1. “여성들이 만드는 종전 평화 캠페인” 평가
 2. 각 단체별 종전 평화 캠페인 진행 현황 공유
 3. 7.27 시민사회 Korea Peace Appeal 집중행동 참여 제안
 4. Women’ Korea Peace Appeal 작업 논의 및 일정 잡기 등

(4) 여성들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선언문 작업

- ①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작업반 1차 회의
- 일시 : 2021년 8월 12(목) 오전 10시 30분~12시
 -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단체: 김향미(수원여성회 통일평화위원장), 석연희(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이영분(기독교여민회 총무), 평화여성회: 김정수, 자문: 고유경(WILPF) 컨설턴트,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 내용 : Women’s Korea Peace Appeal 작업 진행 순서, Women’s Korea Peace Appeal 꼭 들어갈 내용. 참고자료 검토, Women’s Korea Peace Appeal 초안 작성자 결정 등
- ②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작업반 2차 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미래방(503호)
 - 참석 : 조영숙(수원여성회대표), 김향미, 고유경, 김정수, 손빛나리
 - 내용 : 10월 21일(목)“여성종전평화선언문(Women’s Korea Peace Appeal) 온라인발표회 일정 및 순서 확인, Women’s Korea Peace Appeal 작업-여성들이 종전평화선언을 하는 이유? 형식 & 주장/요구사항 등
- ③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작업반 3차 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7일(수) 오후 8~9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 회의
 - 참석 : 조영숙, 김향미, 고유경, 김정수, 손빛나리
 - 내용 : 조영숙 집필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초안 검토, 당일 행사 진행 관련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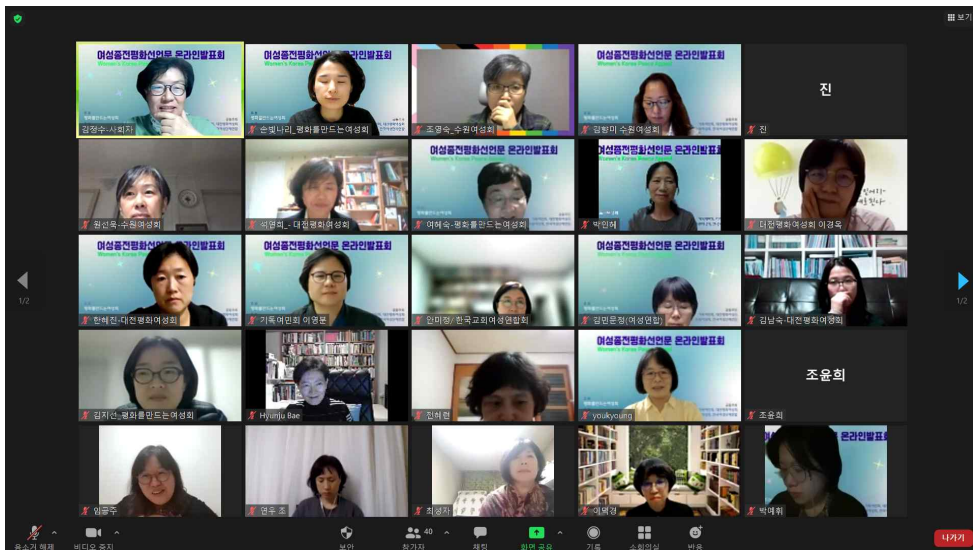
서 및 내용 검토 등

④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자문회의 및 검토작업

-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8시, 온라인 줌 회의
 - 참석 :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정수 상임대표
 - 기타 검토 작업 - 온라인 회의 및 서면 검토를 통한 단체 승인
 - 평화여성회 운영위와 이사회
 - 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 여성평화종전선언문 수정본에 대한 검토 의견 제안 및 최종(안) 단체 차원의 승인 이뤄짐

(5)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온라인 발표회

- 일시와 방식 : 2021년 10월 21일(목) 저녁 8시 30분~, 온라인 ZOOM
- 주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공동주최: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후원: 한국여성재단
- 프로그램
 - o 사회 및 경과보고(김정수)
 - o 여성의 삶에서 위협과 안전은 무엇인가?(고유경, 윌프 컨설턴트)
 - o 종전과 평화는 여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여성들이 기대하는 것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 o 여성들의 종전평화캠페인 이렇게 진행했습니다.(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 o 여성들의 종전평화선언문 발표(조영숙: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III

여성종전평화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 온라인 발표회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저녁 8시~9시 30분
방식 : 온라인 줌(ZOOM)

참가안내

- 신청기간 : 2021.10.4.(월)~2021.10.20.(수)
- 신청방법 : 구글폼 입력 후 제출
- 장 소 : 온라인 ZOOM(개별 안내)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02-929-4847)



프로그램

- 사회 및 경과보고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여성의 삶에서 위협과 안전은 무엇인가?
-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 종전과 평화는 여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여성들이 기대하는 것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 여성들의 종전평화 캠페인,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 여성들의 종전평화선언문(Women's Korea Peace Appeal) 발표
조영숙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주 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 원** 한국여성재단
공동주최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6) 사업추진 성과
- ① 양적 성과
 - 4회의 종전평화캠페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62명 참가

- 단체별 종전평화캠페인 진행함(기독교여민회 3회, 수원여성회 1회, 대전평화여성회 2회)
-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온라인 발표회 진행 - 1회
-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도출함- 1회

② 실적 성과

- a. 여성들의 목소리, 성인지적 관점, 페미니스트 종전평화 캠페인 진행의 근거, 논리, 담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됨 : 각 단체 참가자 대상 사전질문 ①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 ②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위협, ③)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여성들의 기대, 두려움, 희망을 구체적으로 확인 ⇒ 38명 답변



- b. 2021년 7월 20일 진행한 평가회의(온라인)를 통해 4개 단체 담당자들, 고유경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4회 진행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게 됨

- ① 기독교여민회 - 우리 단체가 평화 중심 단체가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청년들은 별로 그렇지 않았으나, 강의에 대한 평이 좋았고, 새롭게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다고 함. 써클대화 진행에 대해 모두 얘기해야 하는 것이나 생각안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는 분위기는 조금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한편 새로움, 신선함 등 의견도 있었다.
- ② 수원여성회 - 통일평화위원회에서 종전평화캠페인을 자체 평가한 것이 있음.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음. 평소에 여성들의 고민 영역이 아니어서 멀게 느껴졌었는데

<p>데, 이번에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렇지만, 설문지는 평소의 고민이 아니어서 어려웠다. 또 씨클대화의 마지막 질문인, “종전평화로 여성의 삶의 변화?” 이것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 거의 생각해보지 않은 별개의 영역이었다. 내가(위원장으로) 통일평화위원회 활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고민하지 못했는데 고민할 기회가 되었다.</p>
<p>③ 한국여성단체연합 - 그동안 사업 중심의 통평위원회의 활동이었고, 활동가들이 여성 개인이나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없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큰 주제에 대해 함께 얘기한 적이 없어, 하게 되어 좋았다. 진행 방법적 측면에서 활동가들은 대개 참여보다는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활동가 전원 참여는 처음이라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좋았다.</p>
<p>④ 대전평화여성회 - 마침 대전에서 오늘 6.15 대전위원회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지난번 특강이 캠페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대전평화여성회 회원들의 평가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알려야겠다. 정부가 종전에 대해 노력하나 안되는 이유를 듣게 되어 알릴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 느낌이다.</p>
<p>⑤ 특강 강사 - 함께 기획을 하고, 기독교민회가 1차로 하여 실험이라는 느낌이었고, 4차 대전평화여성회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강의였다. 매회 사람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강의를 보충하고 발전시켰다. 각자 참가자들의 관심을 각 회차에 관심사 반영했는데, 현안 의제에 대한 것이 가장 관심이 높았다(연합훈련, 핵무기 젠더 조항, 무기사업 등등) 여성들이 당장 현실 앞에 놓인 관심. 여성평화운동에 관심이 있었다. 사전 설문을 통해 여성들이 마주하는 위협,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을 담아 보니, 성평등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관심과 지향에 대해 이해할 계기가 되었다.</p>

c. 종전·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를 사회적·정치적·개인적 차원에서 구체적 확인

<p>여성들이 기대하는 종전 후 삶의 변화는?</p>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yellow;">있을 것이다!</td> <td style="background-color: yellow;">없을 것이다 / 잘 모르겠다</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평등 국방비 감소 경제력 상승 안전한 사회 평화 담론 자유 왕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선언 ⇔ 성 평등? 종전 ⇔ 여성 평화? 개인의 삶의 변화? </td> </tr> </table>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 잘 모르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평등 국방비 감소 경제력 상승 안전한 사회 평화 담론 자유 왕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선언 ⇔ 성 평등? 종전 ⇔ 여성 평화? 개인의 삶의 변화? 	<p style="background-color: green;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여성들이 기대하는 종전후 삶의 변화 (1) 사회적 측면에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비 감소 - 사회자본으로의 전환, 기본소득, 여성 관점에서의 예산 사용, 국가예산 및 사회 자본 필요한 곳에 분배 가능. 2) 군대 규모 축소 및 영향력 약화 - 성폭력으로부터 해방, 젠더 평등 기대, 군 의무제 사라짐, 군 인력 및 미군 감소, 징병제 담론 진전 등. 1) 경제력 상승으로 경제 회복, 국가 경쟁력 상승. 관광 수익 증가, 복지 확대 2) 상품화로 전락된 여성의 위상 높아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 잘 모르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평등 국방비 감소 경제력 상승 안전한 사회 평화 담론 자유 왕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선언 ⇔ 성 평등? 종전 ⇔ 여성 평화? 개인의 삶의 변화? 				
<p style="background-color: green;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여성들이 기대하는 종전 후 삶의 변화는? (2) 문화적 측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주의 문화 사라짐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혐오로부터 해방 기대 2) 지역 갈등 및 분리, 편가르기 감소 (북한주민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혐오 감소) 3)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 사회, 평화 문화 담론 기대 4) 사람 중심 이해, 북한 여성에 대한 이해 필요 5) 안보를 내세운 가짜 뉴스 사라짐 6) 북한 노래 등 북한문화 자유로운 접근 	<p style="background-color: green;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여성들이 기대하는 종전후 삶의 변화 (3) 개인적 측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 평화로 북한과의 자유 왕래 기대 2) 기차로 세계여행 (서울 -> 평양 -> 러시아) 3) 일상에서 겪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어나 대우 감소 4)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과 평화 문화 담론 기대 (이웃들과 좀 더 편안한 삶, 평화로운 대화) 5) 통일에 대해 경제적 측면 만이 아니라 좀 더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필요. 				

- d.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여성평화교육 방법론 및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
- 예: 특강(지식전달) + 써클대화(참여형, 대화형)
 - 여성들의 경험, 인식, 기대, 희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진행자들의 진행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진행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됨

③ 사회적 영향력(성평등 사회 조성 기여 부분) a.여성신문에 2차례 본 캠페인 활동 소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의미와 본문이 소개됨, b. 한국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Korea Peace Appeal(종전평화캠페)에 대한 여성 주도의 성인지적 관점의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논거, 컨텐츠, 사례를 발굴하게 되었음, c.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제기된 시기에 맞물려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 선언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여성시민사회의 종전평화선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평화문서가 산출됨.

(7) 언론보도 및 홍보활동

2021.6.28	(여성신문)“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젠더폭력’‘성차별’‘혐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78	
2021.10.26.	(여성신문) 기고 조영숙 “성평등한 ‘종전선언문이 필요한 까닭’”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28	
페이스북	6월 중순 1차 캠페인 시리즈 안내	- 1차 캠페인 웹자보 홍보 - 기독여민회 행사 홍보 - 여성연합 행사 홍보 - 여성연합 신문기사 홍보 등	4회 이상
	캠페인 4회 진행한 내용 홍보	- 각 캠페인(단체명), 내용, 사진 등	4회 이상
	10월 초 온라인 발표회 안내 및 행사 내용 홍보	- 웹자보 홍보 - 기독여민회 행사 홍보 - 여성연합 기고 홍보 등	4회 이상
텔레그램	6월 중순 6월 28일 등	- 1차 캠페인 웹자보 홍보 - 여성연합 신문기사 홍보 등	10회 이상
	10월 초 온라인 발표회 안내	- 웹자보 홍보 등	10회 이상
카카오톡	6월 중순, 10월 초	- 웹자보 홍보, 소개 등	20회 이상
여성미래센터 내 홍보	6~7월 / 10월 초순	- 웹자보 홍보	2회

(8)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본문)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 for Korea Peace with Gender Equality

전쟁을 끝내자. 평화로 나가자.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종전에 나서지 않는 자, 전쟁을 원하는 자다. 적대 관계를 끝내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자.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안보를 위해 안전한 미래를 만들자.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안전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성평등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자.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를 끝내고, 여성들이 참여하여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

1. 70년간 지속되는 한반도 전쟁 상황, 종전선언으로 끝내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북·중·미는 정전협정을 체결하며 4조 60항에서 3개월 이내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 세월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반복하며 끊임없는 군비경쟁으로 내몰리는 적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 중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종전 선언에 나서지 않는 자, 전쟁을 원하는 자입니다.

2. 평화와 안전은 군사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적대적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군사력 경쟁을 통해서도 결코 안전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계의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통해 우리는 군비경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허황된 거짓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정부는 국방비에 약 53조 원,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는 약 20조 원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도래하지도 않을 긴장과 위기상황을 핑계로 전쟁준비에 국가의 재원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의 문을 열고, 비생산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안전한 미래, 지속가능한 평화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3.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 여성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은 이 땅의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고통과 절대적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70년간 끝맺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 사회 전체가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군

사문화로 뒤덮이게 하고 있으며, 군사문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더 이상 전쟁과 폭력적인 일상의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인한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넘어 당당하게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여성들이 나서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일상의 평화와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은 적대적 경쟁과 폭력이 아닌 연대와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남쪽의 우리들은 북쪽의 자매들과 적대가 아닌 우호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바꿔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기독여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9) 활동보고 자료집 발간(2021년 11월 20) 및 여성재단 최종보고서 제출

2)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연대 및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전국여성연대 공동활동)

(1) 평화여성회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협력사업

- 취지 : ① 2020년 4차의 학습모임 진행으로 2021년 현재 정세(남북, 북미, 한미 등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음. ② 2021년 상반기 상황에 대한 학습을 다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진행하기 보다는, 위의 학습모임과 라운드 테이블 진행을 통해, 그리고 각 단체 총회 등을 통해 정리된 정세 이해 및 이에 대한 각 단체의 활동 방향, 그것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과 결합하여 어떻게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논의함
- 제목 : “한반도 평화체제와 성평등한 한반도” 학습모임 5차 모임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3시~5시 30분
- 주제/내용
 - ① 2021년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방향 제안
 - ▶ Korea Peace Now 2~3월 라운드 테이블 주요 내용(요약)
 - 조영미 집행위원장
 - ② 2021년 각 단체 주요 사업 소개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의 협력 방향
 - 각 단체별 A4 2장 정도로 정리해서 공유함
 -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2) Women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irtual Roundtables in 2021

① Orientation Session - January 15 in Asia and January 14 in the US & Europe, 2021

- **Orientation Purpose:**
 - To share our perspectives on what a feminist peace 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means in the Korean context
 - Sharing what we need and want to address during the roundtables in February to develop a shared strategy on feminist peace for the Korean context
- What does feminist peace 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mean in the Korean context (60min)
- **Presentation - What does feminist peace mean to you and what does it look like in the Korean context?**
 - Panel Presenta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Global;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east Asia; Korean American diaspora
 - Q&A on presentations2
- Further discussion on feminist peace and women's participation
- Sharing what we need/want to address and discuss to develop a shared strategy on a feminist peace for the Korean context during the roundtables in February
- What are the key questions and other suggestions

② Roundtable 1 - February 5 in Asia and February 4 in the US & Europe, 2021

- **Roundtable #1 Goals:**
 - To share and learn about the impact of the continued Armistice regime on women
 - To share and learn about the current context (pandemic, climate crisis, and new Cold War) from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s, and the relevant political updates that will help to deepen and widen our perspectives and lay a foundation for strategy discussions in the next roundtable sessions
- Panel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hat have been the impact to women under the continued Armistice regime, especially in the last ten years to the present?
- Panel presentation and discussion: The impact on women under COVID-19, the climate crisis, and intensifying arms race under the new Cold War (70min)
 - What are some relevant political updates relating to these current impact?
 - What are some current issues we might find a common ground to engage on?

③ ROUNDTABLE 2: February 25/26 HEADS UP

- Part 1: What are som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 women's peace-building work (55min) Roundtable Conversations on lessons learned
- Part 2: Learning about and moving toward strategy with women's inclusion lens (85min)
 - What are some activities and strategies to advocate for a peace process with women's inclusion?
 - How do we make this issue more relevant to women and the younger generation?
- Discussion #2: Generate priorities that the participants are interested in exploring

further and get ready for the next roundtable

④ Roundtable Session 3 - March 5 in Asia and March 4 in the US & Europe, 2021

- Roundtable #3 Goals: Generate ideas and prioritize how this group will continue to work toward feminist peace building pathways toward ending the Korean War and strengthen the feminist peace building network
Reflect on this process and decide on some key next steps to keep building momentum
- Brainstorm on building new pathways for ending the Korean War and strengthening the feminist peace building movement (65min)
 - Breakout group discussion
 - Report out and large group discussion
 - Prioritize what can be done by individual groups or together
 - What can we all do to help build a stronger movement
 - Case Study in Solidarity (20min)
 - KPN Path to Peace report launch 3/18-19
 - How can we amplify this report, especially the role of women in ending the Korean War
 - Next Steps in Strengthening Our Network (45min)
 - What are some concrete steps for us to support one another and build a movement of feminist peace builders
 - How to communicate about this roundtable discussions with others
 - Future communications among us
 - Future meetings
- Wrap up (15min)
 - Reflection on the overall process
 - Appreciations
 - Closing circle

(3) 여성과 평화협정 참여 사례연구

- 진행 중 : 2022년 초 마무리 예정
- 연구 참여 : 김정수 상임대표, 정은아 기후환경연구소 연구원(전 여성연합 평화 통일사업 담당자)
- 진행 경과 : 연구목차(안), 연구방법론 수립, 사례연구(콜롬비아, 필리핀, 라이베리아, 북아일랜드) 집필 및 각 나라 사례의 공통점 도출 및 한반도 평화과정 여성 참여 적용 방안 브레인스토밍 등
- 연구 결과 발표(안) : 2022년 상반기

평화협정 사례연구 (brainstorming)

1. 해외 평화협정 여성참여 사례연구

- 여성참여의 성격 분석: 단순한 참여에서 의미있는 참여 혹은 성인지적 개입까지
-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 각각의 평화협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 각각의 사례에서 WPS 1325 결의안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해외 평화협정 중 여성 조항 사례연구

- 여성관련 조항 내용 검토와 분석

3.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한 의미있는 여성참여 제안
- (1장)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위한 시사점 도출
 - (3장) 민의 평화협정' 사례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 (2장) 한반도 평화과정의 의미있는 여성참여를 위한 여성평화리더십의 특징
 - 1325 국가행동계획 개선방향 제안 등등

진행일정 - 각 단계 자문 포함

2020년 10~12월 자료 조사 및 검토

2021년 1월 중 목차 정리 및 초안 집필 2월 중 초안 검토 및 자문회의

3월 중 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등

3) 성과와 과제

(1) 여성종전평화캠페인(Women's Korea Peace Appeal)사업 측면

- 한국 시민사회에서 전개하는 Korea Peace Appeal에 여성단체 참여와 젠더 시각 반영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여성재단 성평등 조성사업을 통해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4개 여성단체와 진행, 이를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의 종전과 평화에 대한 관점 수립, 참여단체/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4회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사전 설문조사 → 특강에 반영 → 참여형 써클대화 → 구체적 실천 등을 통한 여성평화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통해 여성평화교육의 한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게 되었다.
- 2022년 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든 여성종전평화선언문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2) Korea Peace Now 캠페인 및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공공외교 참여 차원

-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활동에서 국내 여성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기여의 기회나 공간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시민사회가 전개하는 종전평화캠페인에 적극적 참여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202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들의 종전평화캠페인을 결합시키고 확장시켜야 할 과제를 지닌다.

3. WPS(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1) WPS(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 1325 3기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 활동 중심

(1) 기간 : 2021~2023년 (3년)

(2) 참여 : 김정수 상임대표, 김귀옥 원장 등

(3) 자문단 활동

① 2기 이행결과 검토 및 3기 성과목표 검토 서면회의

② 2022년도 11~12월 중 부처별 이행점검(서면)

- 국방부, 민주평통, 법무부, 외교부

③ 2022년도 이행점검회의(서면) - 2022년 12월 중

2) 1325 홍보 및 <쉽게 설명하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2020년 제작) 동영상 자료 활용

- 민주평통 소식지에 '1325' 기고 시 동영상 QR 코드 방식으로 소개함

- 영문자막 제작 - GPPAC NEA로부터 1,500 유로를 지원받아 영문자막 작업을 완성하여 평화여성회 유튜브에 업로드함

-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 교육자료로 활용 (2018년 제작 자료 제공)

- <쉽게 설명하는 1325> 한글본 동영상 경기관광공사 산하 캠프그리브스유스호스텔에서 상시 상영함



3) UNDP/PPA Northeast Asia WPS Network 활동

(1) GPPAC NEA + UNDP 온라인 회의

- 주제 : Supporting Local Infrastructure for Peace Post COVID-19: The Role of an Integrated Peacebuilding - Development Approach : A Dialogue for the South Asia, South-East Asia, Pacific and North East Asia
- 일시와 장소 : 2021년 1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 온라인 ZOOM
- 참석 : 김정수
- 주최 : GPPAC, UNDP/PPA,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오피스(홍콩)

(2) Northeast Asia WPS Network call, 9 April 9/8am (Asia)/8 April 8pm

(3) “Looking Ahead: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 Northeast Asia”

- 일시 : 12 November 2020 (10:30am, On-line ZOOM)
- 공동주최 : GPPAC, UNDP/PPA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4) UNDP/PPA 동아시아 데스크 책임자 Sonja Bachmann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웨비나 참석과 축사 및 유엔 주재 북측 대표부에 초청장을 전달하여 북측 여성들에게 남측여성들이 남북여성교류 30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림

4)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 여성평화ODA 담론 개발 사업

⇒ CAMP(개발NGO) & Women Making Peace 협력사업 : 외교부 지원 글로벌 여성분야 공공외교 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와 진행 일정 (전체)

사업명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청년·여성(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한-아시아 여성 시민사회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와 지원 단체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기간	2021. 8. 2 ~ 2021. 12. 20
4월	(4월 19일) 공모 신청
7월	(7월 6일) 사업 선정 (7월 26일) 사업자문 간담회 / 참석자: 김정수, 양미강, 송진호, 이경희, 이성훈, 장은하, 정법모, 조영숙, 김영석, 이경민, 이철용, 조부영

8월	(8월 2일) 사업 착수 (8월 6일) 1차 세미나 준비회의 / 참석자: 김정수, 양미강, 김가현 (8월 10일) 현지 협업회의 / 참석자: (현지)Sharon Cabusao-Silvia, (국내)조부영, 김가현 (8월 14일) 2차 세미나 준비회의 / 참석자: 김정수, 양미강, 김가현
9월	(9월 3일) 현지 협업회의 / 참석자 : (현지)Sharoon Cabusao-Silvia, Matet Sandrio, Vince Reasondon, (국내)조부영, 김가현 (9월 6일) 3차 세미나 준비회의 / 참석자: 김정수, 양미강, 김가현 (9월 10일)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1차 (9월 14일) 4차 세미나 준비회의 / 참석자: 김정수, 양미강, 김가현 (9월 17일)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2차 (9월 21일) 현지 1차 청년 워크숍 및 캠페인 개최 (9월 24일)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3차 (9월 27일) 중간 실적 및 정산 보고
10월	(10월 8일)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4차 (10월 10일~20일)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가족 생필품 지원 (10월 15일)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5차 (10월 22일)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6차 (10월 24일) 현지 2차 청년 워크숍 개최
11월	(11월 11일) 현지 이슈세미나 및 네트워크 모임 진행 (11월 12일) 여성평화안보 시민공공외교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24일) 사업성과 평가회의 / 참석자: 김정수, 양미강, 김가현
12월	(12월 20일~2월 20일)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온라인 전시회 개최 (12월 20일) 최종 실적 및 정산 보고

(2) 평화여성회 참여 사업 내용

- ① 글로벌 여성평화 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포스터 참조)

(사)캠프·(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글로벌 여성 평화 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모집안내

모집대상 : 여성·평화·국제개발협력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기간 : 2021.08.31(화) ~ 2021.09.09(목) 16:00
 신청방법 : 구글폼 입력 후 제출 <https://forms.gle/otSMw2CktdNysukC6>
 장 소 : 온라인 세미나 (개별 안내)
 참 가 비 : 무료
 문 의 : (사)캠프 02-3147-0309



▲신청하기



일 정

1.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UNSCR 1325 결의안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일시	주제	패널
1차 2021.9.10(금) 14:00~16:00	UNSCR 1325 대한민국 3기 국가행동계획	사회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제 :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차 2021.9.17(금) 14:00~16:00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와 여성평화안보운동 ~ 2021-2025 세대평등 행동연합	발제 : 조영숙(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토론 :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사무처장)
3차 2021.9.24(금) 14:00~16:00	WPS 아젠다와 해외 무력분쟁 및 무기수출 국가 여성들의 평화활동	발제 : 고유경(WILPF 컨설턴트) 토론 :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 여성과 평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주관: 캠프 평화와개발센터)

4차 2021.10.8(금) 14:00~16:00	평화ODA의 국제적 흐름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발제 : 송진호(평창평화재단 이사) 토론 : 이성훈(경희대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5차 2021.10.15(금) 14:00~16:00	젠더와 개발, 그리고 평화	발제 : 장은하(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토론 : 박민정(숙명여대글로벌서비스학부 겸임교수)
6차 2021.10.22(금) 14:00~16:00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페미니즘적 동시대성	발제 : 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 토론 : 이슬기(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위원)

2021.11.12(금) 국제세미나 예정

공동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외교부 K-1325 네트워크

② 여성평화안보(WPS) 시민공공외교 국제세미나(포스터 참조)

여성평화안보(WPS) 시민공공외교 국제세미나	
“여성·평화·안보(WPS)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과 한국-필리핀 여성·시민사회의 평화 실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2시~6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형식: 현장(국내참가자)+Zoom(해외참가자) 언어: 한-영 동시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사) 캠프 평화와개발센터, (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협력: K-1325+@(한국 추가),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추가) • 후원: 외교부(2021 민간공공외교 지원사업)
목표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필리핀 여성·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한다. • 필리핀과 한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 중심 아젠다를 살펴보고 공동의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 1325 결의안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 지원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 1325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보호, 지원, 구호와 회복 의제를 통해 여성평화 ODA로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한다. • 한-필리핀 여성평화, 시민사회의 시민공공외교의 한 영역을 발굴한다.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혜숙 공동대표
14: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김성은(평화여성회 이사장) - 환영사: 김종걸(캠프 이사장) - 사진촬영
1부 주제발표 “한-필리핀 1325 국가행동계획과 여성들의 평화행동(peace action) 경험 공유” 좌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4:30-16:00	[한국 발표]
	(1) 한국 1325 국가행동이행과 전시성폭력 : 조영숙(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 한국 1325 nap 수립 과정과 현재, (주요 내용 혹은 아젠다)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 여성시민사회 참여 및 거버넌스 현황, 1325에 전시성폭력 주제 반영 현황과 관련 과제 (2) 1325 결의안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역실천 활동 : 이경희(마창진 시민모임 대표) - 지금까지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1325의 보호, 지원, 구호, 회복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과제 설정
	[필리핀 발표]
	(1) 필리핀 1325 국가행동이행과 여성평화운동 : Jasmin Nario-Galace (Vice-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MIRIAM COLLEGE) - 필리핀 1325 nap 수립 과정과 현재, 주요 내용 혹은 아젠다,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 아시아에서 첫 번째 nap 수립하게 된 계기, 여성시민사회 참여 및 거버넌스 현황 등 필리핀 여성평화운동과의 관련성 등 (2) 1325 결의안과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역실천 활동 - 릴라 필리피나 - 지금까지 진행된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1325의 보호, 지원, 구호, 회복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과제 설정, 한국과의 협력사업 소개
2부 라운드테이블 “한-필리핀 1325결의안 실천과 연대를 위해” 좌장: 양미강(역사NGO포럼 상임운영위원장)	
16:15-17:50	(1) 장은하(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한국): 젠더ODA와 전시성폭력 - 젠더ODA에서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전시성폭력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2) 권구순(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 평화ODA와 시민사회 - 젠더이슈와 평화ODA, SDGs 차원의 시민사회, 학계, 코이카, 정부의 과제 (3) Karen N. Tanada(Gaston Z. Ortigas Peace Institute 소장, 필리핀) - WEAct1325 활동과 방사모로 평화협정에 여성참여, 이후 1325 차원의 활동 등 소개

(4) Bernard Karganila(필리핀국립대학교 교수, 필리핀)
 필리핀내 위안부 문제 현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평화ODA연계 방안 등
 ** 청년 참가자 발언
 종합토론

폐회식 사회: 캠프



여성평화안보(WPS)

시민공공외교 국제세미나

People-Participated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Seminar on Women, Peace and Security

“여성·평화·안보(WPS)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과 한국-필리핀 여성·시민사회의 평화실천

UN-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Security and Korean-Philippine Women and Civil Society's Peace Action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Date: November 12th, 2021(Friday)

시간: 오후 2시~6시(한국), 오후 1시~5시(필리핀)
 Time: 2p.m.-6p.m.(KST, UTC+9), 1p.m.-5p.m.(PHT, UTC+8)

참여: 11월 12일 실시간 중 · 유튜브 라이브 예정
 Participation: Real-time Zoom and YouTube live scheduled for November 12th

[실시간 중 라이브 참여 신청하기](#)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예정](#)

언어: 한-영 동시통역
 Language: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주최: (사)캠프 평화와개발센터,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Host: CAMP Int.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Women Making Peace

후원: 일본군위안부학대피해자지원재단, 필리핀여성·시민사회
 Sponsor: Masan, Changwon, Jinhae Civil Assembly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Lila Pilipina, K-1325

외교부: 2021 민간공공외교 지원사업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 2021 People-Participated Diplomacy Support Project

프로그램 Program

개회식
Opening Ceremony

14:00 ~ 14:10
사회: 여혜숙(공동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Host: Ms. Hye-Sook Yoo(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14:10 ~ 14:20
개회사
김성운(이사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Opening Remarks: Ms. Sung-Eun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Women Making Peace)

14:20 ~ 14:30
환영사
김종걸(이사장, 캠프)
Welcome Remarks: Mr. Jong-Gul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CAMP Int.)

14:30 ~ 14:40
축사
GABRIELA
Congratulatory Messages: GABRIELA

1부 주제발표 Session 1. Presentation	2부 라운드테이블 Session 2. Round Table
<p>“한-필리핀 1325 국가행동계획과 여성들의 평화행동(Peace Action) 경험 공유” “UNSCR 1325 National Action Plans and Women’s Experience in Korea and the Philippines”</p> <p>14:30 ~ 14:50 한국 1325 국가행동이행과 진상규명 조영숙(대한민국 임시행동대사) The ROK 1325 National Action Plan and the War-time Sexual Violence: Ms. Young-Sook Cho (Korea’s Ambassador for Gender Equality)</p> <p>14:50 ~ 15:10 1325 결의안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역실천 활동 이경희(대표, 일본군위안부학대피해자지원재단) Korea’s Local Activities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s. Kyung-Hee Yee (Representative, Masan, Changwon, Jinhae Civil Assembly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p> <p>15:10 ~ 15:30 필리핀 1325 국가행동이행과 여성평화운동 Jasmin Nario-Galace(Vice-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Miram College) The Philippines’s UNSCR 1325 National Action and Women’s Peace Movement: Ms. Jasmin Nario-Galace (Vice-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Miram College)</p> <p>15:30 ~ 15:50 1325 결의안과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역실천 활동 Rosanna Cabusao(Coordinator, Lila Pilipina-GABRIELA) The Philippines’s Local Activities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s. Rosanna Cabusao (Coordinator, Lila Pilipina-GABRIELA)</p> <p>15:50 ~ 16:05 휴식 Break Time</p>	<p>“한-필리핀 1325 결의안 실천과 연대를 위해” Discussion on “The Practice and Solidarity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p> <p>16:05 ~ 16:20 젠더ODA와 진상규명 장은하(국제협력센터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ender ODA and War-time Sexual Violence: Ms. Eun-Ha Chang(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p> <p>16:20 ~ 16:35 평화ODA와 시민사회 권구순(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Peace ODA and Civil Society: Mr. Goo-Soon Kwon (Professor, Seoul Cyber University)</p> <p>16:35 ~ 16:50 WEAct 1325와 필리핀 평화과정의 여성참여 Karen N. Tanada(Executive Director, Gaston Z. Ortagas Peace Institute) WEAct 1325 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Bangsamoro Peace Process: Ms. Karen N. Tanada (Executive Director, Gaston Z. Ortagas Peace Institute)</p> <p>16:50 ~ 17:05 필리핀내 위안부 문제 현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평화ODA연계 방안 등 Bernard Karganila(Corporate Secretary, Hunters-ROTC Historical Society) Current situ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 Philippines and ways to relate the issue with the Peace ODA: Mr. Bernard Karganila(Corporate Secretary, Hunters-ROTC Historical Society)</p> <p>17:05 ~ 18:00 청년 참가자 발언: 이지민, 김지민, 한보람 Youth Participant Speech: Ji-Min Lee, Ji-Min Kim, Bo-Ram Han</p> <p>종합토론 Comprehensive Discussion</p>

6) 성과와 과제

- (1) 2021년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 국가행동계획 3기 시행 첫해로, 평화여성회는 하반기 부처별 이행점검에 참여(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민주평통)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편, WPS 1325 의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의미있는 참여와 성인지적 개입을 위한 활동 차원에서 볼 때, 1325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과 성인지적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구체적 캠페인이나 활동으로 가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2) 1325 네트워크 역량강화와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화 확산사업의 경우, 2020년 제작한 교육동영상 ‘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영어자막 버전을 GPPAC의 지원을 받아 평화여성회 YouTube에 업로드하여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 (3) 대중화를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은, 민주평통 여성운영위원회에 1325 소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평여 공동대표들이 참여, WPS 1325 결의안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매뉴얼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점이다.
- (4) 동아시아 WPS 협력 강화 활동 차원에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30년 기념, 2021년 하반기 개최한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향후 동아시아 WPS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 또 캠프와 협력사업으로 ‘한-국 필리핀 1325 국가행동계획과 평화실천 세미나 진행(11월 12일)하여, WPS 1325 의제를 여성평화ODA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필리핀 여성평화운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4.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남북여성 협력 기반 조성 활동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 사업

▣ 개요: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2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기획하여, 6월 2일에는 30년 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성사시킨 주역들을 초청하여 오프라인 간담회를 열었고, 11월 25일에는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 개최하였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본회의 제안으로 모두 11개의 여성평화통일운동 단체가 공동주최단체로 참여하여 함께 기획, 준비, 진행하였고, 동시에 국제여성평화운동 단체들(WCD, WILPF, GPPAC)의 협력, 특히 GPPAC의 재정지원을 통해 성사될 수 있었다.

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안)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사업(안)	
사업 개요	<p>① 1991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민간교류의 역사를 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1991~1994, 동경-서울-평양-동경) 개최 30년을 맞이하여 흩어진 각 토론회 자료들을 모아 자료화하여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동시에 남북여성교류 30년을 기념하고 향후 남북여성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 개최를 추진한다.</p> <p>② 남북여성교류는 지난해 북미 하노이협상 결렬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성평화운동은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평화를 만드는여성회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여 1997년 3월 28일 출범한 단체로서, 위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여성운동 연대와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지원을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여성교류 재개의 가능성을 탐색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p>
사업 내용	<p>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4회 묶음 자료집 발간 및 아카이빙을 위한 준비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 1차(동경), 2차(서울), 3차(평양), 4차(동경)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일본어 자료 포함), 인사말, 준비위원회 명단, 일정표, 주요 사진자료, 경과보고, 팩스 문서자료 등 포함 - 발간시기 : 2021년 10월 중 <p>②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회 참가 인사 초청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년 4월 중 - 장소 : 서울 및 비대면 회의 방식 결합 (코로나19 상황 고려) - 참석 : 30년 전 토론회 남측 참석 인사 외 (윤정옥), 김윤옥, 한명숙, 이미경, 윤영애, 안상님 등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남북민간교류 역사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의미

	<p>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여성 만남과 대화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 남북여성 교류와 만남에 바라는 것은? 등 <p>㉠-1 남북여성교류 30주년 기념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가칭)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년 11월 초 - 장소 : 서울, 개성, 판문점, 금강산 등 - 참석 : 남-북-일-해외 여성 대표 - 주최 : (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외 <p>㉠-2 (㉠-1번 사업이 어려울 경우)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International Women’s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년 11월 중 - 장소 : 서울 및 비대면 회의 방식 결합 (코로나19 상황 고려) - 참석 : 남-일-해외 여성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전 토론회 참석하셨던 원로분들(남-일) 및 참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교회여성연합회, 여성민우회 등) - 남쪽 여성시민사회 중 남북여성교류, 여성평화통일운동 단체 &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남측위 여성본부, 민화협 여성위원회, 교회여성연합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정의기억연대 등 - 남북관계 및 북한사회, 북한여성 연구자 - 국제여성평화운동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Peace Now, GPPAC NEA, UN Women, UNDPWA 등 - 주최 : (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회 및 국내외 여성시민사회,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 등과 공동주최 - 후원 :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p>사업 추진 일정</p>	<p>2월 초순 : 여성단체에게 기념사업 제안문 발송 통일부, 여가부 등 지원 요청 면담 등</p> <p>2월 중순 :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동모임(온라인 회의)</p> <p>2월 하순 :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및 사업 계획 구상</p> <p>3월 초 : 3.8 세계여성의 날 이전에 북측 여성들에게 공동사업 제안서 발송 이후 세부 일정은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함</p>
<p>사업 추진 체계</p>	<p>▣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p> <p>‘한국실행위’(초기) 집행위원회(현재) 국내협력 국제협력 정부 및 기관 후원/지원 등</p>

2)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 사업 준비 모임 참가 단체 (2021년 3월 23일 현재 10개 단체)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6.15 남측위 여성본부, 민화협 여성위원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한국

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3) 참여단체 준비회의

① 1차 회의

-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4시 ~, 온라인 줌회의
- 참석자: 김정수, 안정희, 전희정, 한미경, 황보현, 조영미
- 안건 : 취지 설명, 참가 단체 기대 공유, 사업안 의견 나눔, 차기 회의 등

② 2차 회의

-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후 3시 30분~, 온라인 줌 회의
- 참석 : 김정수, 안정희, 전희정, 조영미, 한미경, 황보현,
- 배석 : 이인선
- 안건 : 한국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북측 서신 발송의 건(초안 검토, 수신처, 내용, 전달 방식, 대외 공개 방식), 기념사업 구성의 건(자료집 제작, 간담회/토론회 참석자+현재 평화활동, 학자 등),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2021년 11월 중), 재정 조달의 건(민화협 여성위원회 사업비 배정 : 약 700만원 정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실 제안, 통일부 자료집 제작 비용 지원 가능성, 통일부 교류협력실 면담 방문의 건-2021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③ 3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1년 4월 23일(금) 오후 3시, 민화협 회의실
- 참가 : 김정수(평화여성회), 안정희(민화협), 양이현경(여성연합),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장수진(여성연합), 한미경(전국여성연대)
- 안건 : 경과 보고, 30년 기념사업 진행 관련 의견 모으기, 기념사업 범위, 준비모임 구성 및 조직에 대한 의견 나눔, 주요 일정 정하기, 실무팀 구성 등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 사전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1년 4월 30일(금) 3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의실
- 참석 : 평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이인선 활동가, 민화협 안정희 팀장
- 내용 : 6월 2일 초청간담회 논의 등

④ 4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1년 5월 6일(목) 오후 3시, 민화협 회의실
- 참가 : 김정수(평화여성회), 안정희(민화협), 김지은(민화협) 양이현경(여성연합), 이인선(평화여성회),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장수진(여성연합),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한미경(전국여성연대)
- 안건 : 경과 보고 - 아세아 토론회 한국실행위원 초청 간담회(안), 초청간담회

준비 역할 분담 등

- 4)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실 접촉 (박정헌 사회문화교류정책과 행정사무관)
- (1) 2021년 2월 2일 2회, 기념사업 계획 안내, 통일부 지원 요청, 기념사업(안) 설 명절 후 보내기로 함
 - (2) 2021년 2월 15일, 기념사업(안) 메일로 발송
 - (3)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통일부 교류협력실 면담
 -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교류협력회의실
 - 참석 : (단체측)김정수, 박현선, 여혜숙, 한미경, (통일부교류협력실측)백태현 교류협력실장, 박성림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 박정헌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정책과 행정사무관
 - 내용 : 기념사업(안) 공유, 통일부 지원 요청과 이에 대한 답변(노력하겠음), 북측 팩스 전달 계획 공유 등
 - (4) 3월 2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북측 접촉신고서 제출, 승인 받음
- 5) 북측에 팩스 전달
- 일시 : 2021년 3월 4일(목)
 - 전달통로 : 6.15 해외위원회(일본), WCC/NCCK-조선그리스도교 연맹
 - 언론 보도는 진행하지 않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 귀하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귀하

그리운 북측의 자매 여러분께!

지난해 갑자기 발생한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며 모든 이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측의 모든 자매 여러분께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특별히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국제부녀절)을 맞이하여 북측 여성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올해는 남북(북남)여성들이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만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남과 북의 여성들은 1993년 동경에서 열린 4차 토론회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함께 토론하였고, 특별히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토론회를 계기로 남북(북남) 여성들이 일제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국제사회에 일제의 식민지 과거사 청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한 해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남북(북남) 관계 개선 뿐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야 할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여 남측의 여성들은 전쟁 종식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내

외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북남)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북남)여성들이 불안정한 현재의 정세를 돌파하여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원하며, 이를 위해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로 만나, 특별히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남북(북남) 여성 공동의 목소리를 국내외적으로 전달하고 공동의 행동도 도모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남측의 여러 여성단체들이 힘을 합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으며,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대로 북측의 자매들을 판문점, 개성, 베이징, 심양 등 가능한 곳 어디서든지 만나 준비하는 실무회의를 가졌으면 합니다. 만일 감염병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서면이나 영상 등의 방법으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토론회 및 실무회의 추진에 관한 귀측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남측의 여성들이 준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북측 여성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동시에 귀 기관 내 전체 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를 준비하는 남측 여성단체들을 대표하여

- 6.15 남측위 여성본부 공동대표단 김정수(상임), 김외숙, 한미경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공동) 김정수, 황은숙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조영미
- 여성평화외교포럼 WPS분과위원장 장필화
-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미경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수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00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장 최소영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민문정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원영희

6) 사업자문 및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활동

- 2월 8일(월) 한명숙 전 총리와 통화, 기념사업 개요 및 자료집 발간 계획 공유, 향후 진행내용 공유 및 논의 참여 의사 밝히심
- 2월 18일(목) 박현선 이사, 이문숙 전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 부장과 통화, 사업 개요 안내 및 자문 요청 등
- 2월 22일(월) 최은아 남측위 사무처장, 북측에 팩스 전달하는 건 자문
- 2월 23일(화) 박지용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가능성 문의
- 3월 11일(수) 조정아 통일연구원 부원장, 자료집 제작 및 기념사업 지원 관련 문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기획안 제출하지 않음
- 3월 15일(월) 안정희 민화협 팀장, 민화협 지원 가능하다는 의견 피력

7) 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실행위원 초청 오찬

- 일시와 장소 : 2021년 5월 25일(화) 정오, 달개비
- 참석 : 김윤옥, 한명숙, 이미경, 정현백, 김정수, 안정희
- 내용 : 6월 2일 간담회 및 당일 패널 역할 소개 등 안내 등

8)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 :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 & 내다봄> 개최를 위한 준비 : 기획, 섭외 등

▣ 기념 행사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 내다봄”

-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14:00
- 장소 : 청년문화공간'주' 2층 니콜라홀
- 공동주최 : 민화협 여성위원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 여성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 남측위 여성본부, NCKK 여성위원회
- 참석 : 약 90여명
-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여는 마당 14:00-14:15	사회 : 서옥영 민화협 여성위원장 ▶ 경과보고 ▶ 자료 영상시청
간담회 14:15-16:00	진행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김윤옥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 前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한명숙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 前 국무총리) • 이미경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 前 코이카 이사장) • 윤영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 前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 / 前 615 남측위 여성본부 대표) • 손미희 (시민모임 공동대표 / 前 615 남측위 여성본부 대표) ▶ 질의 응답
16:00~	▶ 함께 나누는 소감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 & 내다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민간교류의 역사를 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맞아 남북 여성교류의 경험을 통해 여성 통일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향후 남북 여성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2시 (1시 30분~ 접수)

| 장소 |

청년문화공간u 니콜라홀(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코로나 19 방역 지침과 관련하여, 사전 등록한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15 **개회 / 경과보고 및 영상시청** 사회: 민화협 여성위원장

14:15~16:00 **간담회** 진행: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 윤 옥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 명 숙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국무총리)

이 미 경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코이카 이사장)

윤 영 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교회여성연합회총무)

이김현숙

(前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남측 본부장 /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손 미 희

(前 615 남측위 여성본부 상임 대표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질의 응답

16:00~ **함께 나누는 소감**

주최

민화협 여성위원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 남측위 여성본부, NCKK 여성위원회

문의 : 02-761-1213 (민화협 사무처)



■ 기념행사 2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17:40
장소 방식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지하 다리소극장 (한국 : ON-OFF 하이브리드/ 해외 : On-line Zoom 방식)
언어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 제공
공동 주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본부
후원	여성신문, 통일뉴스, GPPAC, WCDMZ, WILPF
순서	
개회식 14:00	사회: 조영미 (여성평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환영사: 공동주최 단체 축사: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소냐 바흐만 유엔정무평화구축국 동아시아 데스크 팀장, GPPAC 이사장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
1부 14:15 ~15:45	사회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부장) 발제 :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토론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문숙 (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시이 마야코 (전 일본YWCA 회장) 패티 텔벗 (캐나다 연합교회 국제 파트너십 프로그램 팀장)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2부 16:00 ~17:40	사회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토론 : (한국)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일본) - 아키바야시 코주에 (윌프 교토,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미국) - 앤 라이트 (미국 우먼크로스디엠지, 평화재향군인회 운영위원) (중국) - 왕 다닝(차하르연구소 연구위원) 전체토론 고유경(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평화연맹 코리아피스나우 컨설턴트)
폐 회	

○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작업반회의

1) 1차 작업반 회의

-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오후 4시
-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 구성 : 강경란(정의기억연대), 김정수(평화여성회), 안정희(민화협 여성위원회), 양이현경.장수진(여성연합),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최규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한미경(전국여성연대), 6.15남측위 여성본부
- 안건 : 30주년 기념사업 - 준비모임 단체회의(7차) 회의 발언 요약 검토, 해외측 논의 진행 상황 보고(김정수-GPPAC Mery Joyce와 텔레그램 논의 공유)

2) 2차 작업반 회의

- 일시 : 2021년 9월 15(수) 저녁 8시
- 장소 : 온라인 ZOOM
- 구성 : 강경란(정의기억연대), 고유경(WILPF컨설턴트),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사무처장),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부장), 한미경(전국여성연대)
- 배석 : 손빛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 안건 : 9월 7일(1차 작업반 회의) 논의한 내용 검토 및 프로그램 확정

3) 3차 작업반 회의

- 일시 : 2021년 9월 29(수) 저녁 8시
- 장소 : 온라인 ZOOM
- 구성 : 강경란(정의기억연대), 고유경(WILPF컨설턴트),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사무처장),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부장), 한미경(전국여성연대)
- 안건 : 행사 준비 점검(섭외 중심으로), 행사 준비 역할 분담 (1) 해외 역할자 연락, 확인, 인사말 영상 받기, (2) 줌/유튜브 기술팀 연락 및 점검, (3) 자료집 제작: 원고/토론문 취합 및 번역 작업, (4) 웹자보 제작 및 홍보, 행사의 주제 및 핵심 메시지, 행사 제목(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2부 패널 질문 초안 1차 토론(도전과 과제, 활동 제안: 한반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현재 조성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여성들이 도전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어떤 활동(운동)을 제안하는가?) 등

4) 4차 작업반 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13(수) 저녁 8시 30분
- 장소 : 온라인 ZOOM
- 구성 : 강경란(정의기억연대), 고유경(WILPF컨설턴트),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사무처장),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부장),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최소영.최규희(NCKK 여성위원회), 안미정(한국교회여성연합회), 최소영(6.15여성본부)
- 참석: 강경란, 고유경, 김정수, 안미정, 조영미, 최수산나, 한미경
- 안건 : 행사 준비 점검, 초청장한글/영문), 초청장 발송 대상, 프로그램 확정, 주최단체, 후원단체, 행사개요 내용, 패널, 전체주제, 언론후원(여성신문, 통일뉴스), 사전보도자료, 각 단체 인사말과 편집, 해외단체 축하영상(UNDP, GPPAC NEA 확인), 해외단체 후원(WCDMZ, WILPF, 공동주최 표기, 장소(청년문화공간 주 지하 1층 다리소극장), 줌/유튜브 업체 & 동시통역부스, 동시통역자 섭외, 웹자보/플랑카드 제작, 홍보(보도자료 및 개별단체, sns 홍보), 패널소개글, 줌세미나 참가자 모집, 국내후원(여가부장관 축사), 해외후원 단체 확인, 자료집 제작 및 원고 일정, 행사 후속작업, 예산안 산출, 러시아 패널 참가 관련, 토론회 전체주제, 행사당일 역할분담, 1세션, 2세션 진행, 자료번역, 인사말 영상편집 등
- 비고: 세션2 라운드테이블 질문(안) (1) 분단된 한반도를 비롯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가? 그것이 여성들의 삶, 평화,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2) 이 문제를 해결 혹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의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면? (2~3가지 제안)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 여성가족부 장관님 축사 요청 공문 발송함

5) 5차 작업반 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27일(수) 저녁 6시 30분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명동)
- 구성 : 강경란(정의연), 고유경(일프), 김정수(평화여성회), 안미정(교회여성연), 안정희(민화협여성위),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최규희(NCCK여성위), 최소영(6.15여성본부), 최수산나(한국YWCA), 한미경(전국여성연대),
- 참석 : 강경란, 고유경, 김정수, 전희정, 조영미, 최수산나
- 안건 : 개회식 점검(단체인사말, 국내 여성가족부 장관 축사, 국외 후원단체 r 축사영상), 세션1토론회(발제 원고와 번역, 국내외 토론 원고와 번역), 세션2라운드테이블(국내외 패널 발표 원고, 질문지 내용), 번역자, 통역자, 통역부스, 줌 & Youtube 중계 기술진, 웹포스터와 플랑카드 디자인, 초청장 발송, 자료집 제작, 예산안 및 단체분담금+GPPAC 지원금

6) 6차 작업반 회의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저녁 8시 30분
- 방식 : 온라인 회의
- 구성 : 강경란(정의연), 고유경(일프), 김정수(평화여성회), 안미정(교회여성연), 안정희(민화협여성위),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최규희(NCCK여성위), 최소영(6.15여성본부), 최수산나(한국YWCA), 한미경(전국여성연대),
- 참석 : 강경란, 고유경, 김정수, 전희정, 조영미, 최수산나, 한미경
- 안건 : 일정 검토, 개회식 점검(사회자 조영미, 행사 취지, 국내외 축하영상, 여성단체 환영사, 영상인사편집, 세션1(진행자 최수산나, 토론회 발제, 토론 원고와 번역, 통역), 세션2(진행자 김정수, 전체토론진행자 고유경, 패널 원고와 토론), 스피커들 short-bio, 사진, 행사장 줌 진행 기술적 문제, 유튜브와 채팅장 질문 접수와 번역, 전달 등 관리 담당자, 유튜브 송출영상, 초청장, 한글영문 웹포스터, 유튜브 썸네일, 일반보도자료, 자료집 제작(당일 공유본, 인쇄본), 플랑카드, 당일 준비와 역할분담,

7) 7차 작업반 회의

-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저녁 8시 30분
- 방식 : 온라인 회의
- 구성 : 강경란(정의연), 고유경(윌프), 김정수(평화여성회), 안미정(교회여성연), 안정희(민화협여성위),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최규희(NCKK여성위), 최소영(6.15여성본부), 최수산나(한국YWCA), 한미경(전국여성연대)
- 참석 : 강경란, 고유경, 김정수, 전희정, 조영미, 최수산나, 한미경
- 안건 : 개회식 점검, 자료 번역과 감수, 세션 1 발제와 토론 원고 번역, 세션 2 패널 원고와 번역, 당일 행사 점검(유튜브, 웨비나, 참가자 등), 예산안 등

8)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평가회의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후 1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1층)
- 참가 : 강경란, 고유경, 김정수, 박혜인, 조영미
- 내용 : 토론회에 대한 평가, 향후 남은 일(자료집, 해외참가자 이사와 발제비 송금 등)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 11월 30일(토)
 주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준비위원회" **평화와 여성**

“전쟁 종식과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17:40

참여 온라인 사전등록 링크 <https://bit.ly/3GkdPTj>

| 공동주최 |
 민족회합리변국민회의 여성위원회 | 여성평화외교포럼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전국여성연대 | 평화통일드림여성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YWCA연합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후원 |
 무장갈등해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 위민크로스디멘지(WCDMZ)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ILPF) | 종일뉴스 | 여성신문



온라인 사전등록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17:40

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 통역 제공

참여 온라인 사전등록 링크 <https://bit.ly/3GkdPTj>

진행순서	
개회식 14:00 ~ 14:15	사회: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참정사: 공동주최 단체 축사: 여성가족부 장관, 유엔 정부평화구축국(DPPA), GPPAC, WCDMZ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	
1부 14:15 ~ 15:45	사회: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총괄부장) 발제: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토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문숙 (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아시아 마야코 (전 일본YWCA회장) 패티 벨벳 (캐나다연합교회 국제파트너십 프로그램 팀장)
휴식 15:45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언	
2부 16:00 ~ 17:40	사회: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패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아키바야시 코주메 (윌프 코도, 도시사대학 교수) 앤 라이트 (미국 WCDMZ, 평화재향군인회 운영위원) 왕 다닝 (중국 Charhar 연구소 연구위원) 전체 토론: 고유경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평화연맹 컨설턴트)



Online Registration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Online event. Registration <https://bit.ly/3GkdPTJ>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provided

Co-Host Organizations |
 Korea Church Women United | Korea Women's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National YWCA of Korea | Women's Committee of the Korea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Women'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omen's Division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 Women Making Peace.

Co-sponsors |



*The seminar is funded by co-host organizations and GPPAC.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provided
 Online event, Registration <https://bit.ly/3GkdPTJ>

PROGRAM

Opening Ceremony 14:00 - 14:15	Moderator: CHO Youngmi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Welcome Remarks from Co-Host Organizations Congratulatory Remarks from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 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GPPAC, WCDMZ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eminar	
Session 1 14:15 - 15:45	Moderator: CHOI Susannah (Director, National YWCA of Korea) Presentation: LEE Hyunsook (Honorary Representative of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Former Vice-president of Korean Red Cross, ROK) Panel Discussion: - LEE Nayoung (Chair of the Boar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fessor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ROK) - LEE Moonsook (Former Executive Secretary for Asian Church Women's Conference, ROK) - ISHII Mayako (Former President of YWCA of Japan, CEO of Unshusha Foundation Kagawa Archives & Resource Center, Japan) - Patty TALBOT (Team Leader, Global Partnership Program a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Break Time	
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	
Session 2 16:00 - 17:40	Moderator: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ROK) Panel Discussion: - HAN Mikyung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 Women's Alliance, ROK) - AKIBAYASHI Kozue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WILPF Kyoto, Japan) - WANG Danning (Research fellow, Charhar Institute, China) - Ann WRIGHT (Board Member, Women Cross DMZ, Veterans for Peace, USA) Overall Discussion: KO Youkyoung (Consultant, WILPF & Korea Peace Now!)

9) 성과와 과제

-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11개의 여성평화통일운동 단체들과 2차례의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남북여성교류 30년을 기념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대한 역사적 작업, 현재적 의미와 과제 정리, 미래를 위한 전망 등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었다.
- (2) 6월 2일, 30년 전 토론회의 주역들은 초청하여 대면프로그램으로 진행, 90명 이상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여성시민사회와 통일부 등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11월 25일 진행한 국제토론회는 6월 2일 간담회를 평가하고, 북측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국제토론회(웹비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역시 평화여성회가 제안하여 11개 여성단체들이 협력하여 준비하고 공동주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단체활동가들의 연대의식이 공고해 지고 또 여성평화역량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30년 전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남한여성들의 선구적 활동의 의미를 현재적으로 이어받아 향후 남북여성협력의 자원으로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 (3) 11월 25일 국제토론회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과정과 의미있는 여성참여를 지지해 온 국제여성평화운동, 국제평화운동단체, 유엔평화정무국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수 있었다. UNDP의 동아시아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또 북측 유엔대표부에 초청장을 전달해 주었다. WCD와 WILPF, GPPAC가 후원단체로, GPPAC이 재정지원으로 협력했다. 이를 통해 30년 전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남북일 여성들의 여성평화통일을 위한 경험과 유산을 넘어 국제여성운동, 국제평화운동, 유엔기구 차원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게되었다. 아울러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발제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현재 증가하는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위협에 대한 여성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모으고 향후 동아시아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4) 아시아토론회 자료집 정리의 경우, 김윤옥 전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의 기증으로 4차에 걸친 토론회 원자료(남한, 북한, 일본 발간) 영인본 제작하여 평화여성회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통일부 지원으로 토론회 자료집 번역과 해제, 관련 연구작업 목록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로써, 향후 자료집 정리, 번역, 해제 등 남북여성교류 연구와 직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 (5) 가장 큰 과제로는 현재 중단된 남북여성교류 혹은 협력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후퇴나 북미관계의 고착, 코로나19의 지속은 여성평화통일운동단체와 같은 시민사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정학적 한계 혹은 기후환경과 생태적 위기라는 구조적이고 문명적 차원의 문제에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여성평화운동 단체들이 국제적 연대를 통한 다자적 접근, 특별히 CEDAW, SDGs, WPS 1325 의제 등을 글로벌 여성평화인권 의제와 결합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 여성들과의 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3】 정보, 홍보, 재정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여성.평화.안보 유튜브’ 등 SNS 평화활동

(1) 구 홈페이지(복원 중)

- ① [공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여성과평화』7호 원고 모집 공고(2021.02.01.)
- ② 2021년 1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2021.02.18.)
- ③ [성명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2021.02.22.)
- ④ [공지] 2021년 제25차 정기총회를 1월 27일에 잘 마쳤습니다.(2021.03.04.)
- ⑤ 2021년 2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2021.03.05.)
- ⑥ [성명] 평화와 전쟁연습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2021.03.08.)
- ⑦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촉구 성명(2021.03.08.)
- ⑧ [연대성명서] 미얀마여성들의 용기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2021.03.17.)
- ⑨ South Korean Women Organizations' Solidarity Statement for Myanmar (2021.03.17.)
- ⑩ [성명서] 여성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반대한다.(2021.03.17.)

(2) 홈페이지 수선 작업 진행

- 장익수 선생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제작해주신 분)
- 기간 : 약 2주 정도
- 비용 : 100만원
- 내용 : 버전 업그레이드, 시각적 업그레이드 등
-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후원금 모금 - 110만원
평화여성회 이사: 김성은(20만), 김지영(50만), 김귀옥(10만), 배현주(30만)
- 홈페이지 재오픈 : 2021년 7월 4일
- 주소 : <http://www.peacewomen.or.kr/>

(4) 페이스북 활동 (<https://www.facebook.com/koreawmp>)

- 2021년 1월 29일: 1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1년 제25차 총회를 개최 보고
- 2021년 2월 9일: 설 명절 인사 “행복한 설 명절되세요”
- 2021년 2월 10일: 회원 선물 -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2권 설 선물 중심
- 2021년 2월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서]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 2021년 2월 23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없이 남북관계 개선 불가능” 6.15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성명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53>
- 2021년 3월 4일: 2020년 6월 민주평통 청년기자단 평화여성회 소개글 공유
<https://blog.naver.com/nuacmail/221993904854>
- 2021년 3월 8일: [공동성명서]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을 맞아 여성혐오와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역사부정 세력을 규탄하며, 젠더정의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 2021년 3월 10일 :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대성명서 연명 요청 <https://url.kr/5wk3ad>
- 2021년 3월 15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최종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안내
- 2021년 3월 16일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최종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개최 보고 (신문기사 공유)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
- 2021년 3월 16일 : 3월 16일(화) 오전 6.15 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린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과 김정수 상임대표 발언 소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
- 2021년 3월 17일 : [여성단체공동성명서]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 2021년 4월 15일 : 코로나 상황 속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원들이 나누는 <온라인 평화대화> 소개
- 2021년 4월 19일 : 4월 15일 기자회견 참여 & [기자회견문] 국익과 한-미 SOFA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
- 2021년 4월 21일 : 초대합니다!!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시리즈 첫 번째 - 세대 간 대화모임> <https://forms.gle/XaW1mUVkvje4rYDNA>
- 2021년 4월 26일 : [연대성명]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 재판부 규탄!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 기자회견 개최 &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발언 예정 소개

- 2021년 4월 29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1회 <여성과 평화 포럼> 주제 : 독일 통일 후 역사교육과 사회적 통합 진행 소개와 행사 사진 공유
- 2021년 5월 4일 :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첫 번째 <세대 간 대화모임> 초대<https://forms.gle/XaW1mUVkvje4rYDNA>
- 2021년 5월 6일 :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시리즈 2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교육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참여 신청:
<https://forms.gle/jUfhpHmAVeqNyzxG8>
- 2021년 5월 11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C12459F179CE65A1E054...>
- 2021년 5월 17일 :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안내 및 연명 요청<https://forms.gle/p9bhFanHQ86TzUK48>
- 2021년 5월 18일 : <https://forms.gle/raR9WM5Dy681qSQ69Korean>
Women's Organizations Press Conference and on the Korea-U.S. Summit and Request to Sign the Press Statement
- 2021년 5월 18일 : 평화여성회, 2021년 올해 박영숙 살림이상(단체)를 수상
- 2021년 5월 20일 :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입장 기자회견을 진행. 74개 국내여성단체, 7개 해외여성단체가 연명 & 지지, 통일 뉴스 보도 공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83>
- 2021년 5월 22일 :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1 <세대 간 대화모임>이 즐겁고 의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2 <갈등해결과 소통역량강화교육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에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신청:
<https://forms.gle/jUfhpHmAVeqNyzxG8>
- 2021년 5월 26일 : 평화여성회가 오늘 박영숙 살림이상을 받았습니다.
- 2021년 5월 28일 : 평화여성회를 비롯 10개 여성단체들이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 & 내다봄]을 6월 2일(수)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개최합니다.
- 2021년 6월 3일 : 어제 6월 2일(수) 오후2시부터 청년문화공간ju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 & 내다봄"을 평화여성회와 민화협여성위 등 10개 단체가 개최하였습니다

다.

- 2021년 6월 9일 : 오늘부터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시리즈2 <갈등해결과 소통역량강화교육>이 시작되었어요.
- 2021년 6월 14일 :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왜, 무엇을, 어떻게???" 평화 여성회가 여성단체들과 함께 1차로 진행합니다.
- 2021년 6월 16일 : 오늘 갈등해결과 소통역량강화교육 두번째 시간 '낮선 시선으로, 일상의 평화만들기'를 손서정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어요.
- 2021년 6월 21일 : 온라인 여성.청년 종전 평화캠페인] 6월 19일 평화여성회-수원여성회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 특강과 조별써클대화와 마무리 나눔까지 토요일 오전, 주말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1년 6월 23일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2021~2022년도 공동대표단 선출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6월 23일 : 평화여성회가 2020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제작한 "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동영상(유튜브 탑재)가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민통선 내 위치)에서 상시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감사-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1325 교육영상' 상영을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 2021년 6월 23일 : 오늘 <갈등해결과 소통역량강화교육&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 3강 “갈등해결 비법”을 찾아서-가족,이웃,조직과 함께 푸는 갈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25일 : 1950.6.25-2021.6.25. 한국전쟁 71년, 여성들이 왜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해야 할까요? 오늘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으로 '여성들에게 위협과 안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분단, 군사주의, 안보에 대해 질문하고 종전이 여성들에게 가져올 삶의 변화에 대해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젠더폭력, 성차별, 혐오... 평화여성회와 여성연합이 지난 6월 25일 함께 진행한 '여성.청년이 함께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1)'이 여성신문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

- 2021년 6월 30일 : 6월 30일(수)에 갈등해결과 소통역량 강화교육&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네번째 시간 ‘존중하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를 박인혜 선생님이 진행하셨습니다.
- 2021년 7월 7일 : “갈등해결, 소통역량 강화교육&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다섯번째 시간.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평화적 소통가 상을 그리고, 약속을 함께 만들어 보고,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시범이 있었습니다.
- 2021년 7월 9일 : 대전평화여성회 회원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뤄진다면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상상했을까요? 2021년 7월 9일 오늘 평화를 만드는여성회가 주최한 '여성.청년들이 만드는 종전 평화캠페인' 첫번째 시리즈 마지막 캠페인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 2021년 7월 9일 : [공동성명]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처
- 2021년 7월 13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2021년 7월 14일 : <갈등해결과 소통역량강화교육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 6회차 “대화 진행 실습- 실천매뉴얼대로 해 보아요”
- 2021년 7월 15일 : "평화를 위한 남북 여성들의 공동의 역사를 만들자". 6월 2일 진행한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 & 내다봄'에 대한 여성신문 기고글이 이제 나와 공유드립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
- 2021년 7월 24일 : “여성들이 만드는 종전 평화 캠페인”으로 7.27 한반도 종전 평화 국제행동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종전 평화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 합니다. 평화여성회,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여성연합, 대전평화여성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 2021년 7월 26일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 평화여성회가 2020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제작한 '1325 교육동영상'에 2021년 GPPAC의 지원으로 영어자막본까지 완성한 것을 공유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115Ene3_ho
- 2021년 7월 27일 :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안내

- 2021년 8월 6일 : 오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더운 여름 고생하셨습니다!!(사진 업로드)
- 2021년 8월 6일 : 광복 76주년 남북.북미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선언(이미지 업로드)
- 2021년 8월 19일 : 평화여성회 부설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성과 평화포럼> 프로그램 공유합니다.(주제 :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김태우, 한국외국어대학교)
- 2021년 8월 20일 :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평화여성회도 오늘 (2021년 8월 20일) 10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 2021년 8월 24일 : [여성단체 공동성명 연명 요청] “아프간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가 복구되기 바란다”
<https://forms.gle/6P3byyrFLAbeTi4z6>
- 2021년 8월 27일 :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한국 1325 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 2021년 8월 30일 : [언론보도] “아프가니스탄 상황, 여성·평화·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 따라 대응하라”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한국 1325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 공동성명서, 탈레반 정권, 국제사회, 한국 정부에게 평화 사회 전환 노력 촉구(여성신문)
- 2021년 8월 30일 : [공동성명] 여성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 2021년 8월 31일 :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GFP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한 여성협력” 9월 2일(목) 오후 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wVPvTbIOo>
- 2021년 9월 1일 : Joint Statement of Korea 1325 Network and Women’s Civic Groups on Afghanistan August 27, 2021
- 2021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참가자 모집합니다!!
참가등록하기: <https://forms.gle/otSMw2CktdNysukC6>
- 2021년 9월 13일 : 사)캠프·(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를 주제로 총 6회 온라인 연속세미나를 진행합니다. 9월 17일 <제2차

온라인 세미나>(주제 :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와 여성평화안보운동-2021~2025
세대평등 행동연합) 가 개최됩니다.

- 2021년 9월 17일 : 추석 인사
- 2021년 10월 1일 : 2021 한반도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에 평화여성회도 공동주최로 참여합니다. 10월 16일(토) 오후 2시에 '평화통일교육의 변화와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도 열립니다.
- 2021년 10월 5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20:00~21:30
- 2021년 10월 6일 : 2019년 8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GPPAC 동북아위원회 연례회의(일명: 울란바타르 프로세스)에서 발표한 글 공유합니다. <https://medium.com/.../south-korean-womens-efforts-and...>
- 2021년 10월 8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 <제5회 여성과 평화포럼>을 10월 20일(수)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 중국 상해 지역의 군위안소 사례를 연구하신 송연옥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kRMeGkKnJjbS5nHg9>
- 2021년 10월 9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여성평화교육은?" 소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57smHSClZQ>
- 2021년 10월 12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종전평화선언문(Women's Korea Peace Appeal) 온라인 발표회>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20:00~21:30, 방식 : 온라인 줌(ZOOM)* <http://forms.gle/aLpGGBSz33VRFL8BA>
- 2021년 10월 13일 : (사)캠프·(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를 주제로 총 6회 온라인 연속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 15일 <제5차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제5차 온라인 세미나>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4:00-16:00, 온라인 ZOOM
- 2021년 10월 22일 :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 2021년 10월 21일(목)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 2021년 10월 26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학술토론회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 여성의 평화통일 활동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공감 노력"이 열립니다. 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1시~, 장소 :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온-오프라인 병행) 참가신청 ☞ <https://forms.gle/CcRqhasLofkkccXw6>
- 2021년 11월 1일 : UNSCR 1325 대한민국 3기 국가행동계획- 글로벌 여성평화 ODA 활성화 1차 세미나-평화여성회와 캠프가 공동주최한 세미나 영상자료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55eOD_kMmg&t=320s
- 2021년 11월 1일 :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와 여성.평화.안보운동(2021-2025) - 글로벌 여성.평화 ODA 활성화 2차 세미나 - 평화여성회-캠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세미나 동영상 공유합니다. <https://youtu.be/ab-TGbI1BP4>
- 2021년 11월 1일 : WPS 아젠다와 해외무기수출 국가들의 여성평화운동 - 글로벌 여성.평화ODA 활성화 3차 세미나-평화여성회와 캠프가 공동진행한 세미나 동영상 자료를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36VHBTFrM&t=42s>
- 2021년 11월 4일 :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 2021년 11월 10일 : On November 12 2021, CAMP Int.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Women Making Peace will hold the 'People-Participated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Seminar on Women, Peace and Security' under the theme of 'UN-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Security and Korean-Philippine Women and Civil Society's Peace Action'. We hope that many people interested in women, peace, securit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participate. ☞ Participate ZOOM Meeting : <https://bit.ly/3D4Da1v>
- 2021년 11월 11일 :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충분한' 국방예산을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사용합시다 일시 & 장소 : 11. 09. (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 2021년 11월 15일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웹비나) 안내 올 한해 여성단체들이 함께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탁드립니다!!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2시~5시 40분, 주제 :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등록 : <https://bit.ly/3GkdPTj>

- 2021년 12월 2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1년 11월 3개의 주요 행사(학술토론회, 2개의 국제토론회)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행사 첫번째 영상은, 11월 5일 본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학술토론회: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 전체 영상입니다.
- 2021년 12월 2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캠프와 2021년 11월 12일 진행한 한국-필리핀 1325 국제세미나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 2021년 12월 3일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지난 11월 25일, 30년 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1991년 11월 25~28일)을 기념하여 11개 여성단체가 함께 개최한 국제토론회 전체 영상을 공유합니다.
- 2021년 12월 9일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에서 보내온 선물꾸러미!!
- 2021년 12월 14일 : 부설 갈등해결센터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도구를 필요한 만큼은 사용해보고 싶어서 함께 배우고 연습하는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 2021년 12월 16일 : 평화여성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한 김지호 활동가가 진도에 내려가 농사지은 대파를 한박스 보내왔습니다. 생협에 납품하는 대파는 싱싱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여성미래센터 4층과 3층, 2층 단체분들과 나눴습니다. 대파를 나눠주니 다들 너~무 좋아하네요. 지호쌤! 고마워요!! 복 많이 받을 겁니다~~
- 2021년 12월 30일 : 2021년 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4) 평화여성회 유튜브 '여성.평화.안보' 채널 운영

- 쉽게 설명하는 1325 교육동영상 - 한글판
- 쉽게 설명하는 1325 교육동영상 - 영문자막판
- 평화여성회 여성평화교육은 - 제작 및 업로드
- 평화여성회-캠프 협력사업 영상 업로드
- 아시아의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영상 업로드

#여성 #평화 #안보



WomenMakingPeac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구독자 48명

구독

홈 동영상 재생목록 채널 정보 🔍

업로드한 동영상

정렬 기준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조회수 56회 · 1개월 전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과 한국-필리핀..."

조회수 27회 · 1개월 전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녹...

조회수 68회 · 1개월 전



WPS 아젠다와 해외무기수출 국가들의 여성평화운동-글로벌...

조회수 24회 · 2개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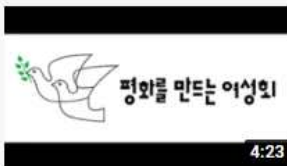
UNSCR 1325 대한민국 3기 국가행동계획 - 글로벌 여성평...

조회수 32회 · 2개월 전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와 여성·평화·안보 운동(2021-2015)-...

조회수 15회 · 2개월 전



평화여성회 여성평화교육은

조회수 83회 · 3개월 전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the...

조회수 278회 · 5개월 전



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조회수 74회 · 1년 전



인류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가 어떻게 온전한 평화?...

조회수 45회 · 1년 전



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조회수 1.4천회 · 1년 전

2. 홍보문자 발송 (2021년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진행되지 못함)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 1) 2021년 2월 9일(화) 회원들에게 설 명절 인사 발송 - 오즈메일러
- 2) 2021년 3월 19일(금) 평화여성회 2021년 3월 소식 알림 - 오즈메일러

4. 회원 사업

1)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조성사업 :

▣ 2021년 신규회원가입 현황

번호	가 입 일	성 명	비 고
1	2021.02.02.	윤여령	
2	2021.06.26.	정은아	
3	2021.07.30.	서영주	
4	2021.07.30.	전수미	연구원
5	2021.09.15.	정은미	
6	2021.10.18.	박명림	연구원
7	2021.12.31.	이하영	

5. 재정 사업

- 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
 - 남북여성교류 30주년을 기념사업은 11개 여성평화통일운동단체들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어, 6월 2일 간담회는 민화협 여성위원회 사업비로 진행하였음.
 - 11월 25일 국제토론회는 국내11개 여성단체 분담금(100만원 4개, 50만원 7개 단체) 700만원과, GPPAC의 지원금으로 마련되었음

2) 연말연시 기금 마련 활동 (곳감 판매)

- (1) 판매기간 : 2021년 12월 15일 ~ 2022년 1월 18일
 - * 기존 판매 종료일은 2022년 1월 20일이었으나, 물량소진으로 판매 조기 마감.
- (2) 총 판매액 : 9,751,000원
- (3) 재정모금액 : 2,467,500원

6. 사업 평가 및 과제

- (1) 평화여성회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은 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진행되어, 시민사회에서 본회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할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었다.

- (2) 그러나 정작 너무 많은 사업을 진행하느라 바쁜 일정으로 인해 본회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소식지와 이메일 소식 전달은 소홀히 한 편이다. 2022년에는 편중된 홍보활동의 균형을 잡고 무엇보다 회원들과의 소통, 평화여성회 활동 안내와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있다.
- (3) 이렇게 회원들과의 미흡한 소통은 결과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이 매우 저조한 것과 연결된다. 2022년에는 여러모로 부족했던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개선하는 동시에 회원 증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아울러 평화여성회의 ‘여성.평화.안보’ 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평화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과제를 지닌다.

【4】연대 및 협력 사업

<p>1. 국내 상설 연대</p> <p>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 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p> <p>1-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p> <p>1-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p> <p>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네트워크 총회, 수요시위 주관</p> <p>1-5. 시민평화포럼</p> <p>1-6. 통일교육협의회</p> <p>2. 국내 사안별 연대</p> <p>2-1.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네트워크 활동)</p> <p>2-2.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p> <p>2-3.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p> <p>2-4. 기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p> <p>3. 국제 연대</p> <p>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 울란바타르 프로세스</p> <p>3-2. 기타</p>

I. 국내 상설연대

1. 한국여성단체연합

- 1) 총회준비위원회 (김정수 상임대표 참여)
 - 1차 회의(2020년 12월 11일), 2차 회의(2020년 12월 21일), 3차 회의(2021년 1월 7일)
- 2) 2021년도 제35차 정기총회(회원단체 대의원 총회)
 - 2021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ZOOM
 - 평화여성회 참석 : 김정수, 김정아, 김세민
 - 안건: 2020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특별안건(김영순 상임대표 불신임의 건, 정관개성의 건, 한국여성단체연합 혁신위원회 구성의 건), 임원선출의 건,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등
- 3) 이사회 참가(김정수 상임대표)

- 1차 이사회(임시: 2021년 1월 4일), 2차 이사회(임시: 2021년 1월 7일), 3차 이사회(임시: 2021년 1월 10일), 4차 이사회(임시: 2021년 1월 19일), 5차 이사회(임시: 2021년 1월 22일), 6차 이사회(임시: 2021년 1월 26일), 7차 이사회(임시: 2021년 2월 5일), 8차 이사회(임시: 2021년 3월 11일), 9차 이사회(임시: 2021년 4월 26일), 10차 이사회(임시: 2021년 5월 24일), 11차 이사회(임시: 2021년 7월 30일), 12차 이사회(정기: 2021년 11월 30일)
- 주요 안건 : 제35차 총회 특별안건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여성연합 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혁신위 제안내용 공유와 혁신실행위 구성 및 운영 등 논의

4) 혁신위원회 의견청취에 참여

- 일시와 장소 : 2021년 6월 17일, 여성미래센터 청산홀(1층)
- 참석 : 평화여성회 김정수, 여혜숙 공동대표
- 안건 : 2020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으로 드러난 여성연합 문제에 대해 조직적 책임을 지기 위해 혁신위원회가 구성됨. 여성연합의 성찰과 혁신에 대한 의견 나눔과 제안 등

5) 여성연합 혁신안 발표

- 일시와 장소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ZOOM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대표
- 주요 내용 : 혁신의 주요 개념(정치적 공유지로서의 페미니즘 운동, 페미니스트 정의와 확장적 민주주의), 인소싱 방식과 페미니즘 운동의 조망), 6가지 혁신방향, 연합운동과 조직구조의 혁신 등

6) 여성연합 혁신실행위원회 참가(여혜숙 공동대표)

- 목적: 2021년 7월 29일 발표된 혁신안을 기반으로 여성연합의 향후 운동 방향과 조직운영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안) 마련
- 회의 : 1차회의(2021년 9월 28일), 2차 회의(2021년 10월 11일), 3차회의(2021년 10월 26일), 4차회의(2021년 11월 1일)

7) 제20대 대선 기획 라운드 테이블

(1) 대통령선거 라운드테이블 기획회의

- 일시와 장소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1시 / 온라인 'Zoom'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주요내용 : 각 단체별 2022년 대선과 지선 활동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 대선대응 라운드테이블(온라인) 총 2회(1차 한국사회 상황 진단 및 방향제시), 2차(각 단체별 대선과제를 발표) 등

(2) 제1차 라운드테이블 ‘여성의 삶을 공약하라’

- 일시와 장소 : 2021년 12월 1일(목) 오후 7시 / 여성연합 유튜브 채널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주요내용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를 진단 및 향후 여성운동의 지향 모색
- 프로그램(*사회 : 김민문정 여성연합 상임대표)
 - 가. 발제 1 : 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전환을 향한 페미니스트 전망
(김은희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 나. 발제 2 :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와 정책 방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다. 발제 3 : 무너지는 민주주의, 사라지는 미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라. 토론 : 남은주(대구여성회상임대표), 문지은(경기여성단체연합사무국장),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마. 질의응답

8) 여성연합 재정 활동에 참여 : 후원의 날, 회비 더 내기 캠페인 등

9)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시~,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안건 : 여성미래센터 대출 승인의 건(1억)

8) 여성미래센터실무자회의: 2021년 5월 21일, 11월 21일- 손빛나리 활동가 참석

2. 6.15 남측위 및 여성본부

1) 6.15 남측위 활동

(1) 6.15 남측위 신년 기자회견

- 주제 :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 일시와 장소 : 2021년 1월 14일(목) 오후 2시, 6.15 남측위 회의실+ 유튜브 생중계
- 참석 : 김정수
- 비고 : 통일뉴스 기사로 소개됨

(2) 상임대표 회의 : 2021년 2월 4일(목), 온라인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2) 한미연합훈련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강당
 - 비고 : 통일뉴스 기사로 나옴
- (3) 한미동맹 변화를 진단하고 각계 역할을 모색하는 집담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3월 9일(화) 오후 4시, 6.15 남측위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여성본부 상임대표)
- (4)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1년 3월 16일(화) 오전 11시, 6.15 남측위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여성본부 상임대표) - 각계인사 발언
 - 공동주최 : 6.15 남측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 (5)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초청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3월 22일(월) 저녁 7시~, 6.15 남측위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내용 :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
- (6) 8.15 자주평화민족대회 행사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2) 6.15 여성본부 활동

- (1) 2021년 3월 19일, 박차옥경(전 여성연합 사무처장, 전 6.15 여성본부 집행위원장)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 송금함 - 2026년 경 미신고 복측 인사 접촉으로 발생
- (2) 여성본부 총회(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 장소 :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회의실
 - 안건 : 2020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승인, 여성본부 신임 상임 공동대표 추천 및 승인, 2022년 사업 및 예산안 보고와 승인 등
 - 신임임원 : 상임대표 : 최소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공동대표 :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 안미정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사업감사(최진미)
 - 총회 후 복측에 팩스 보냄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성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북측 여성분과위원회 성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2019년 2월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남북(북남)여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이래 그동안 만나지 못한 게 벌써 햇수로 2년이나 됩니다.

남측 여성본부는 지난 4월 15일 총회를 열고 새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2021~2022년까지 남측 여성본부를 위해 활동하게 될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임대표 : 최소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장)
- 공동대표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남측 여성본부는 한(조선)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앞당기고 남북(북남) 정상들이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군사비 증액과 연합군사훈련 및 방위비 부담 반대, 종전 평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국내외 여러 주체들과 협력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5 남측위 여성본부를 비롯하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여성연대, NCCK여성위원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남북여

성교류 3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 & 내다봄>, 6월 2일).

현재, 오는 11월 말로 예정하여, 1991년 북측의 여성들이 군사분계선과 판문점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와 함께 개최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1991.11.25. -27.) 30주년을 기념하여 <(가칭)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정세는 우리들의 희망인 반전(反戰)과 평화보다는 대결과 갈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가 평화롭지 못하면 남북(북남)의 평화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남측의 여성들은 이 지역의 여성들을 초청하여 평화의 조건을 논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남측 여성들은 남북(북남)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이 지역의 여성들을 초대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면

합니다. 군사적 대립과 경쟁,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여성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모은다면, 이는 남북(북남) 정상들의 합의를 더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으로 이 지역 여성들의 이동과 교류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반전과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남북(북남) 여성들의 역사적 사명과 과제는 여전히 우리들의 공동의 목소리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측 여성들의 계획은 얼마든지 새롭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기 위한 남북(북남) 여성들의 실무회의를 감염병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판문점이나 개성 등 편한 곳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남측 여성분부는 북측 여성분과 성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속고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7월 9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드림

(3) 여성본부 공동대표자 + 집행위원 회의

-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14:00~
- 장소 : 기독교회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의실 & ZOOM
- 참석 : 최소영(상임대표), 김정수/한미경(공동대표), 안미정(집행위원장), 황보현(집행위원) 등
- 안건 : 2022년 사업계획 및 북측 팩스 전달의 건 논의 등
- 비고 : 북측여성들에게 2022년 신년인사 팩스 보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성원 여러분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에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측 여성본부는 2021년 4월 15일 총회를 열어 2022년까지 일할 임원을 다음과 같
이 구성했습니다.

- 상임대표: 최소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장)
- 공동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집행위원장: 안미정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남측 여성본부는 한(조선)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수호를 위해, 그간 남북(북남) 정상
들의 합의인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군사비 감축과 종전 선언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훈
련 및 방위비 분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북남) 간의 경색된 국면임에도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여성들의 뜨거운 가슴은
아직 식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각계각층의 남북(북남)여성들이
만나 여성의 힘으로 평화와 살림, 자주적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남북(북남) 여성들이 실무회의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남측 여성본부는 북측 여성분과위원회 성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
립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도록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제23차 정기 대의원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3월 9일(화) 오후 2시,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여성위원장)
- 비고 : 김성은 이사장님, 민화협 공동의장 연임

2) 2021년도 대의원총회 준비위원회 - 2회 참석

3) 민화협 여성위원회

① 여성위원회 회의

1차:

- 안건 : 2021년도 사업계획 논의
- 참석 : 김정수
- 비고 : 신임여성위원장 선출(장미란(YWCA), 안준희(통일여성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2차: 2021년 9월 7일(화) 10:30-11:30, 온라인(zoom)

- 참석: 여혜숙
- 안건: 하반기 여성위원회 활동 내용과 방법 논의
여성사회적 대화를 개최 결정

② ‘여성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

- 일시: 11월 10일(수) 14:00-17:00, 온라인
- 주제: 남북 여성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주제발제: 김정수 상임대표
- 전체진행: 여혜숙, 모듬진행: 김정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 질문: 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 남북 여성교류(협력)가 활성화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3.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개인, 단체, 민화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4. 시민평화포럼

1) 2021 제12차 총회

-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참석 : 김정수 운영위원, 여혜숙 감사

2) 운영위원회

3) 정책포럼 : 비공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주제: 북한이탈여성 관련 논의

4) 성명서 연명 등

- ① 2021년 2월 16일(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공동성명서
- ③ 2021년 3월 17일(수)

5. 정의기억연대

- 1) 정의기억연대 네트워크 회의
- 2) 수요시위

6. 통일교육협의회

- 1) 여성분과위원회 평화기행
 - 일시, 장소: 2021년 10월 14일(목), 철원기행
 - 참석: 권희수, 손희정의 2인, 여혜숙
- 2) 여성분과위원회
- 3)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사업 진행 (갈등해결센터 사업보고 참조)

II. 국내 사안별 연대

1.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 Korea Peace Now 캠페인

- 평화통일사업 보고 참조

2.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 1) 운영위원회 (참석: 여혜숙)
 - 일시와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10:00-12:00, 흥사단 강당
 - 내용: 2020년 사업보고, 2021년 사업계획, 총회 논의(4/30)
- 2) 퍼실리테이터 모임 (참석: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 (1) 준비모임 : 1/28(목) 14:00-16:00, 온라인, 2/19(금) 10:00-12:00, 흥사단 강당
 - (2) 전체모임 : 3/9(화) 20:00-21:00, 온라인
 - (3) 공부모임 : 독서모임 3/23일(화) 격주 화요일 20:00
온라인 도구실습 모임 3/30(화) 격주 화요일 20:00

- 3) 통일국민협약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터 (참석: 여혜숙)
6/5(토), 12(토), 13(일), 26(토) 9:00 -18:00, 온라인
- 4) 서울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터 (참석: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9/4(토), 5(일), 12(일) 9:00 -18:00, 온라인
- 5)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세션 2-3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13:30-15:00, 유튜브 중계
 - 사회: 김경민 (한국T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표:
 - (1)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협약을 위한 사회적대화과 통일국민협약/이태호·임현조 (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2) 청년세대에게 한반도 평화란?: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대화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한희승(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 토론: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엔자이칸 잘갈사이칸/몽골 블루배너 의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유희재/ORP 연구소 부대표, 로렌스 필브룩/ 문화문제연구소 소장,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3.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Korea Peace Appeal

-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평화여성회는 2021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4개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사업을 진행하여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2022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참여할 과제를 지닌다.

4. 2021 한반도 평화교육 단체모임 활동

1) 1차 모임

- 일시와 장소 : 2021년 4월 22일 오전 10시,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 참여 : 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여성회
- 논의 결과 (1) 2021년 연대사업 : <한반도평화교육 박람회> 사업의 공동 추진을 통해 연대, (2) 연대 확장 : <한반도평화교육 박람회> 제안 및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연대 확장

2) 3차 모임

- 일시와 방식 : 2021년 8월 5일 오전 10시~12시, 온라인 ZOOM
- 방법 : Zoom
- 참여 : 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여성회
- 논의 결과 : ① 단체별 내부 공유 진행 후 8월 말까지 참여 형태 결정(영상, 탑재 콘텐츠 등), ② 온라인 박람회 참여 확대(참여 범위 : 한반도평화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20~30개 민간단체, 확대 방법 : 단체별로 1차 추천을 진행한 후 단체 수, 범위 등 고려해 추가 논의), ③ 한반도 평화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목적 : 교육과정 개정, 선거 등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를 맞이해 한반도 평화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단체간 연대를 통해 생산하고, 제도화를 모색함.
- 개요 일시 : 10월 12일~16일(온라인 박람회 기간 중), 방법 : Zoom 웨비나, 유튜브 생중계 (주제 : ‘한반도 평화교육’ 확대 발전 방안 - 제도화를 통한 확장 방안)

3) 4차 모임

- 일시 : 2021년 9월 7일 오전 10시~12시, 온라인 ZOOM
- 참여 : 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여성회
- 논의 결과 : [한반도 평화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관련 논의

4) 평화통일교육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 일시와 방식 :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14시~17시, 온라인(zoom)
- 공동주최 : 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관 : 어린이어깨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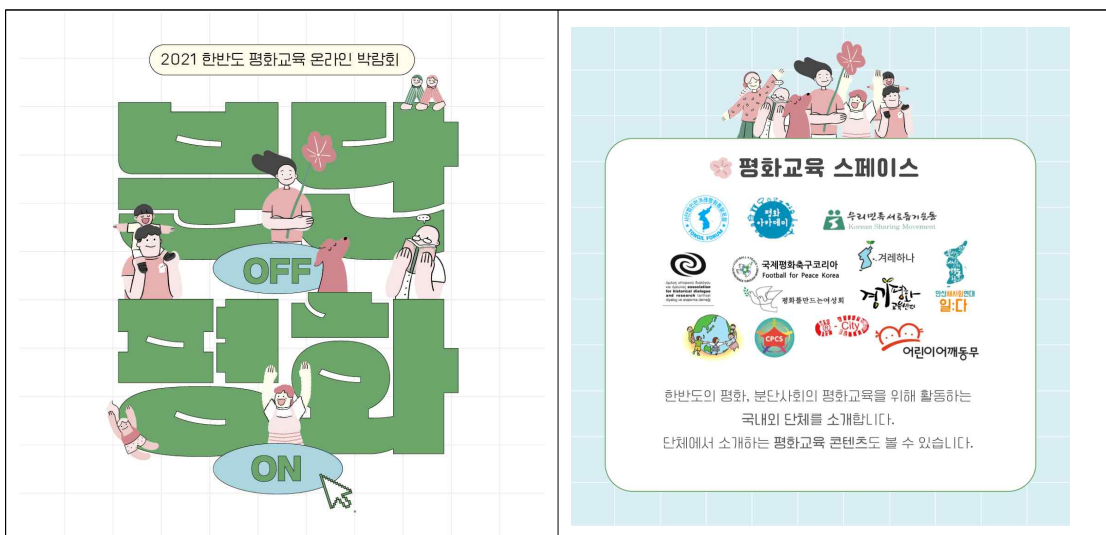
시간	프로그램(사회: 안영옥 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처장)
14:00-15:20	<p>발표 - 수업에서 통일 논의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바꿀 것인가? : 김병연(양재고등학교 교사)</p> <p>토론 - 간우연(계수초등학교 교사)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교수)</p>
15:20-15:40	휴 식
15:40-17:00	<p>발표 - 교과서에 나오는 평화와 통일내용에 대한 개선 방향 : 간우연(계수초등학교 교사)</p> <p>토론 - 김병연(양재고등학교 교사) 이광숙(모현중 교사)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 소장)</p>

5) 5차 모임(평가회의)

- 일시 : 2021년 12월 6일 오후 4시, 방법 : Zoom
- 참여 : 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여성회
- 논의 결과 : 구체적인 사업을 통한 연대 확장의 의미가 있는 2021년이었음. 향후 연대의 지속 및 발전 기대

6) 2021 한반도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10/12~16) 공동주최 단체로 참가

- 주요 활동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교육 홍보 영상 제작 및 여성평화교육 소개 (유튜브 주소: <https://youtu.be/T57smHSCIZ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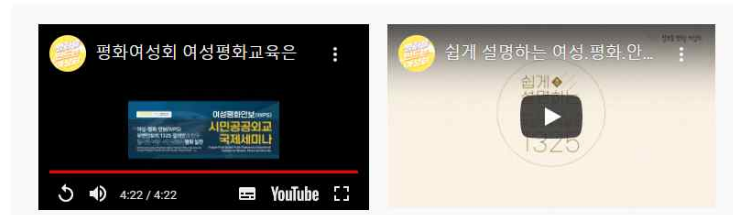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홈페이지 : <http://www.peacewomen.or.kr/>
 대표번호 : 02-929-4846
 대표이메일 : wmpeace@naver.com

사단법인 평화로만드는여성회는 1995년 이후 북한의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던 시기, 북한여성과 아동지원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1997년 3월 28일 전문적 여성평화운동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평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 북한여성과 어린이지원, 평화군축운동,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와 거버넌스,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위원회 서울 포컬포인트, Women Cross DMZ 연대와 Korea Peace Now 캠페인 참여, 여성평화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7) 한국 평화교육과 북한연구의 새로운 미래 세미나

- 일시: 12월 14일 화요일 10~18시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 주최: 서울교대 통일·평화·시민교육연구소
 - 내용 : 시민단체 평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1. 어린이어깨동무 사례(이성숙)
 2.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례(김정수)
 3. 경기평화교육센터 사례 (안영욱)
- 토론: 윤보영(동국대), 댄 가즌(우리민족서로돕기), 신미연(겨레 하나)

5. 기타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평화로만드는여성회는 김귀옥, 김성경,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윤은주, 이금순, 이예정, 장미란, 전수미, 조영주, 조정아 회원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2021년 상임위원회 외 주요 활동은

- (1) 2021 여성평화회의 준비위원회 활동 및 '여성평화헌장' 작업 참여
- (2) 민주평통 소식지 편집위원 참여
- (3) 2021년 20기에 새로 신설된 '여성운영위원회', '종전평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제안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음.

2) 고 백기완 선생님 장례위원 단체로 참가 (2021년 2월 17일)

3) 국가보안법개정 국민연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21년의 경우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활동보다는 성명서 연명 등 차원에서 참여했음

III. 국제 연대

1.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 지역위원회(일명: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 역할 : 평화를 만드는여성회는 GPPAC 동북아지역위원회 서울 포컬포인트 단체로 참여하고 있음

(1) GPPAC NEA + UNDP/PPA 온라인 회의

- 주제 : Supporting Local Infrastructure for Peace Post COVID-19: The Role of an Integrated Peacebuilding - Development Approach : A Dialogue for the South Asia, South-East Asia, Pacific and North East Asia
- 일시와 장소 : 2021년 1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 온라인 ZOOM
- 참석 : 김정수
- 주최 : GPPAC,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오피스(홍콩)

(2) 2021 GPPAC NEA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연례회의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convened the seventh annual Ulaanbaatar Process meeting)

-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5시, ZOOM 회의
- 참석 : GPPAC NEA 참여단체 활동가 등 30여명 (평화여성회: 김정수)
- 역할 : 평화여성회 활동 및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개최 소개 등



(3) 평화여성회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 1325 교육동영상 영문자막 작업 지원 : 1500 유로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지원 : 6,964,927원

IV. 국내의 연대활동 평가와 과제

(1) 2021년 평화여성회 국내연대는 주로 여성단체연합 이사회와 혁신실행위원회 중심의 참여, 한반도평화교육단체모임 활동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평화여성회가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서 여성연합운동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하는 통일교육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평화교육 일반을 넘어서 한반도형 평화통일교육의 담론, 가치, 방법,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2021년 국제연대활동은 GPPAC 동북아위원회 차원의 활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로 온라인 회의에 참여했다. 공식회의 외에도 텔레그램 소통을 통해 WPS 1325 의제의 동아시아 지역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GPPAC이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에 공동후원 단체로 참여하고 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평화여성회가 그동안 GPPAC 동북아위원회에서 Seoul Focal Point 활동, 특히 WPS 1325 의제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원이라는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부설기구

1. 갈등해결센터

【2021년 사업계획】

1. 조직

- 센터장 : 여혜숙 , 부소장 : 박인혜
-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 기획자문위원 : 김희은, 이권명희
- 전문위원 :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 교육매뉴얼 연구팀 : 박인혜(팀장), 김정아, 김지선,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2. 사업방향과 목표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연구, 발전시킨다.
- 조직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발휘 및 활동의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
- 센터 회원들과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소모임 구성과 관련하여 대면, 비대면 상의 다양하고 유연한 구조를 마련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펼치도록 한다.
- 평화·통일교육과 갈등해결교육의 통합적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사회 내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3. 세부사업 (안)

- 평화·통일 교육의 다양한 매뉴얼 개발을 위해 대상별, 계층별 이해를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 소모임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교육과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평화·통일 역량 확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평화·통일·갈등해결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 평화, 갈등해결 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고 진행한다.

1. 조직

1) 구성

- 소장 : 여혜숙
- 부소장: 박인혜
- 운영위원 : 김지선, 박인혜, 여혜숙, 김정아, 손희정, 손서정 (6명)
- 전문위원 :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신난희, 여혜숙, 이권명희, 이향림, 이현숙, 최영애 (13명)
- 교육매뉴얼 연구팀: 박인혜 (팀장), 김다미,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여혜숙 (7명)

2. 회의

1) 운영위원회 (격월 진행)

- (1) 1차 : 2021년 3월 10일(월) 20:00~21:3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논의내용: 2021년 사업계획 검토, 확정
- (2) 2차 : 2021년 7월 5일(월) 20:00~21:4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논의내용: 3월~6월 사업보고, 갈등해결센터 홈페이지 건, 평화적공감대화 실천 매뉴얼 활용 아이디어 모으기
- (3) 3차 : 2021년 9월 8일(월) 20:00~21:3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지선,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 논의 내용: 한반도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 참여 건, 평화적공감대화 후속모임 건, 하반기 평화여성회 행사 공유
- (4) 4차 : 2021년 11월 2일(화) 10:00~11:0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정아, 박인혜, 손희정
 - 논의 내용: 후속모임 '설렘설렘' 모임 운영 방법 논의, 평화통일교육팀 프로그램 논의 (온라인 협업 툴 배우기)
- (5) 5차 : 2021년 12월 7일(화) 10:00~11:0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지선, 손서정, 손희정
 - 논의 내용: 2021년 갈등해결센터 사업 평가, 2022년 갈등해결센터 사업 계획

2) 평화통일교육팀

- (1) 주제: 화상회의 협업, 어렵지 않아요!! 출발~~
 -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20:00-22:00 (온라인)
 - 강사: 이덕경

- 참석: 김다미, 박인혜, 손희정, 여혜숙, 이현숙

3) 교육매뉴얼 연구팀

(1) 1차 : 2021년 2월 22일(월) 19:30-21:30

- 장소: 오프라인(평여 사무실), 온라인 회의 병행
- 참석: 박인혜, 김정아, 이덕경, 여혜숙 / 온라인: 김다미, 손서정, 손희정
- 논의내용: 합의형성 기법을 통한 ‘공적인 온라인 모임에서 필요한 약속 정하기’ 실습

(2) 2차 : 2021년 3월 17일(수) 20:00-21:30

- 장소: 온라인 회의
- 참석: 김정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 논의내용: 공적 온라인 모임시 필요 약속 재검토,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매뉴얼 기초 논의

(3) 3차 : 2021. 4. 26.(수). 20:30-21:30.

- 참석: 김다미,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여혜숙
- 논의내용: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매뉴얼 내용 논의

(4) 4차 : 2021. 5. 31.(월). 20:30-21:30

- 장소 : (zoom)온라인 회의
- 참석 : 김다미, 김정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 논의내용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매뉴얼 양식과 내용 재검토

(5) 5차 : 2021. 7. 26.(월). 20:00-21:30

- 참석: 김다미, 김정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 내용: 평화적 공감대화 매뉴얼 홍보 및 활성화 방안

(6) 6차 : 2021. 8. 31.(월). 20:00-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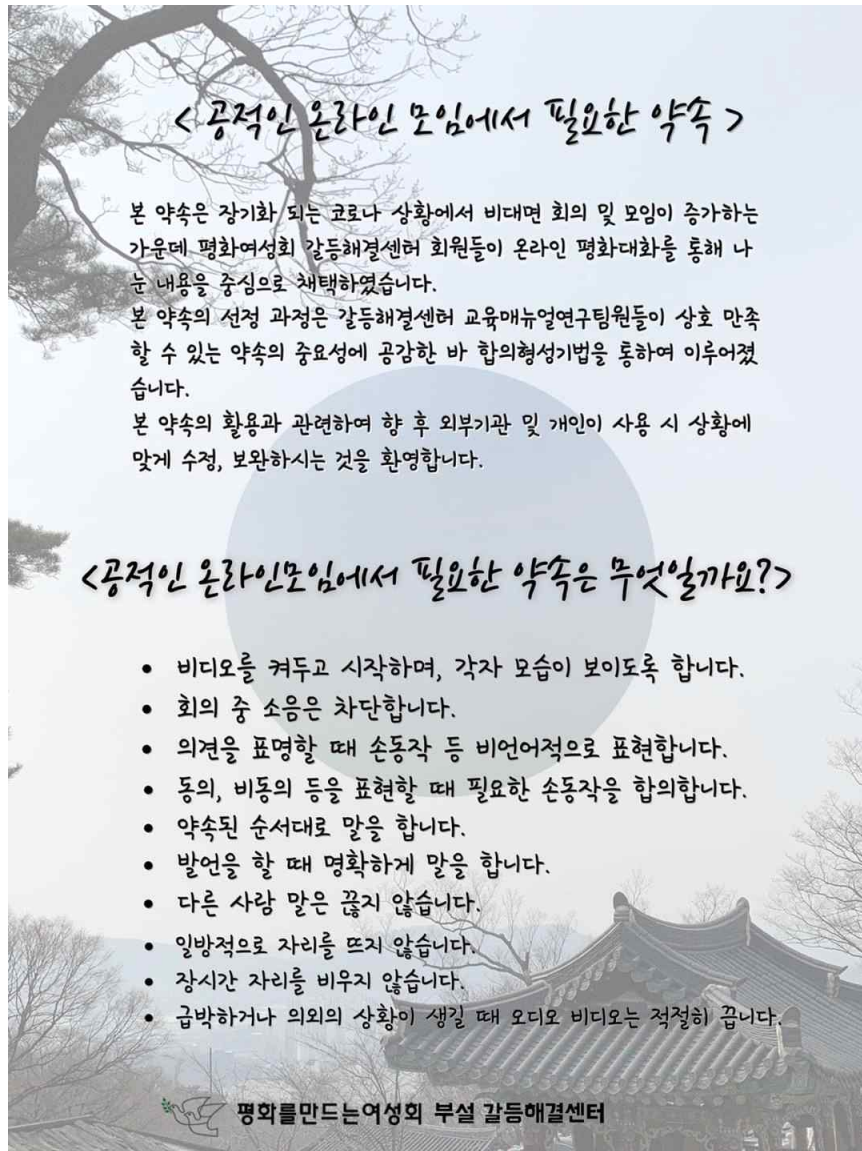
- 장소: 온라인 회의
- 참석: 김다미,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 내용: 하반기 교육매뉴얼 연구팀 회의 방안 아이디어 논의

(7) 7차 : 2021. 10. 11.(월). 12:00-15:00

- 장소: 창덕궁 사랑 카페
- 참석: 김다미, 김정아, 박인혜, 손희정, 이덕경
- 내용: 쉼 & 힐링 모임

(8) 8차 : 2021. 11월 29일(월) 20:00-21:00, 온라인 회의

- 참석: 김정아, 박인혜, 김다미, 손희정, 여혜숙
- 내용: 하반기 교육매뉴얼 연구팀 아이디어 구체 논의



4) 사무국회의 : 여혜숙, 박인혜
주 1회 또는 월 2회 진행

3.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13,000,000원, 자부담 760,000원)
“ 갈등과 함께 하는 평화적 공감대화 ”

1) 기획·평가 회의

- (1) 1차: 4/16(금) 18:00-19:30 참석: 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손희정, 손서정
전체 틀 잡기, 진행자 선정
- (2) 2차: 4/25(일) 14:00-16:00 참석: 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김다미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 및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 회차별 내용 점검

- (3) 3차: 5/15(토) 14:00-16:00 참석: 박인혜, 이덕경, 김다미
평화적 공감대화 매뉴얼 작업
- (4) 4차: 5/26(수) 19:00 참석: 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손희정
세대 간 대화모임 평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점검
- (5) 5차: 6/ 4(금) 15:00 참석: 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 교안 점검
- (6) 6차: 6/16(수) 16:00 참석: 박인혜, 이덕경, 손희정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 교안 2차 점검
- (7) 7차: 7/ 4(일) 16:00 참석: 여혜숙, 김다미, 박인혜, 이덕경, 손희정
평화적 공감대화 실습 역할 분담 및 온라인 교육 및 실습 논의
- (8) 8차: 7/13(화) 20:00 참석: 여혜숙, 김다미,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손희정
평화적 공감대화 2차 실습 역할 분담 및 8월 평가 회의 개최 논의
- (9) 9차: 8/17(화) 20:00 참석: 여혜숙, 김다미, 박인혜, 손희정, 문해숙, 이하영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 교육 평가 및 평화적 공감대화 매뉴얼 홍보 논의
- (10) 10차: 8/29(일) 20:00 참석: 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평화적 공감대화 온라인 공유회 시 참여자들의 적극 참여 방안 논의
- (11) 11차: 10/11(월) 11:00 참석: 김다미,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손희정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 교육 총 평가 및 평화적 공감대화 확산 논의
- (12) 12차: 10/27(수) 11:00 참석: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평화적 공감대화 온라인 후속모임 참여 관련 논의
- (13) 13차: 11/ 3(수) 11:00 참석: 김다미, 박인혜, 김정아, 손희정, 여혜숙
1,2차 후속모임 평가 및 지속방안 논의

2) 갈등하는 세대- 세대 갈등 진단 대화모임

- 일시: 5월 22일(토) 14:00-16:00,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통홀
- 참석: 손재수 외 15명
- 순서

시 간	내 용	담당
2:00~ 2:20	- 여는 인사, 세대간 대화 모임 취지 설명 - 마음열기 (느낌 카드 골라서) : 이름 및 현재 마음 나누기	여혜숙
2:20~ 2:35	- 갈등 거리 재기 - 세대간 대화모임 소개 - 대화모임 약속 정하기 - 조 나눔	박인혜

2:35~ 2:45	휴 식 / 자리 세팅	
2:45~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대화모임 약속 환기 • 워밍업 대화(1인당 2분씩 발언) : ① ‘기억나는 어릴적 놀이’는? ② 요즘 나의 주된 관심사는? • 주제 질문 ①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이며,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요? ② 우리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손서정 김정아 김다미
3:35~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 • 조별 발표(발표자: 참여자) • 소감나누기 	박인혜

세대별 관심사와 갈등의 현주소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고 친솔하게 생각을 나누는
평화적 대화 마당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세대 간 대화모임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시리즈 두번째
갈등 해결과 소통역량 강화교육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곧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일시 2021년 5월 22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대상 서울시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각 세대별 2인 이상 선착순 마감)
문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2.929.4846, 4847 / 010.5588.5469)
신청 <https://forms.gle/XaW1mUVkve4rYDNA>
주최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후원 서울시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시리즈 2

2021 6.9 >> 9.1
여성미래센터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
교육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세대 간 갈등 및 일상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소통역량 강화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명	회차	일시	내용
갈등해결 소통역량 강화교육	1	6/9(수) 18:30~21:00	"우리가 만나는 갈등, 과연 어떤 걸까요?"
	2	6/16(수) 18:30~21:00	"갈등해결 비법을 찾아서!" - 가족, 이웃, 조직과 함께 푸는 갈등
	3	6/23(수) 18:30~21:00	"낯선 시선으로, 일상의 평화 만들기"
	4	6/30(수) 18:30~21:00	"가능할까? - 존중하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5	7/7(수) 18:30~21:00	"평화적 공감대화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6	7/14(수) 18:30~21:00	"대화 진행 실습 - 실천매뉴얼대로 해 보아요."
	7	9/1(수) 18:30~21:00	"실천 공유회 함께 나눴어요"

장소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대상 세대 간 갈등해결과 평화적 소통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20명 내외 선착순 마감

문의 02.929.4846/4847
010.5588.5469
평화로만드는여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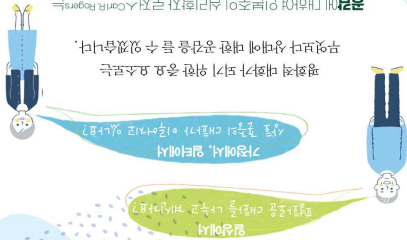
주최 후원



- 3) 갈등해결과 소통역량강화교육&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 시간: 수요일 18:30-21:00 (2시간 반) , 장소: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신청: 18명 (이화영 외)
 - 수료: 10명 (고미진, 이화영, 강경란, 최광기, 여혜경, 송선옥, 문해숙, 최진, 변준희, 김지혜)
 - 회차와 내용
 - 1회차(6/9) “우리가 만나는 갈등, 과연 어떤 걸까요?”
진행: 여혜숙, 이덕경
 - 2회차(6/16) “낯선 시선으로, 일상의 평화 만들기”
진행: 손서정
 - 3회차(6/23) “갈등해결 비법을 찾아서!”-가족,이웃,조직과 함께 푸는 갈등
진행: 이덕경, 박인혜
 - 4회차(6/30) “가능할까?-존중하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
진행: 박인혜
 - 5회차(7/7) “평화적 공감대화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진행: 이덕경, 박인혜, 여혜숙
 - 6회차(7/14) “대화 진행 실습- 실천매뉴얼대로 해 보아요” (온라인zoom)
진행: 이덕경 (모듬진행: 김다미, 손서정, 손희정, 박인혜)
 - 7회차(9/1) “실천 공유회! 함께 나눠요” (온라인zoom) 진행: 박인혜
- 4) 평화적 공감대화 매뉴얼 리플렛 제작 (1,000부), 650부 배포

'대화는, 대화 극작가 10인(10인)의 이야기를 같이 살리는, 대화극은, 대화극

'대화극의 위대한 힘은
.은 극작가 10인(10인)의 극작 특유의 10인(10인)의
극작가 10인(10인)의 극작 특유의 10인(10인)의



'대화극은 극작가 10인(10인)의 이야기를 같이 살리는, 대화극은, 대화극
극작가 10인(10인)의 극작 특유의 10인(10인)의
극작가 10인(10인)의 극작 특유의 10인(10인)의

'대화극은 극작가 10인(10인)의 이야기를 같이 살리는, 대화극은, 대화극
극작가 10인(10인)의 극작 특유의 10인(10인)의
극작가 10인(10인)의 극작 특유의 10인(10인)의

대화극의 위대한 힘은
극작가 10인(10인)의 극작 특유의 10인(10인)의

Equal Talk Empathy Talk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매뉴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 세상을 열기 위하여
성평등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평화적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일상에서부터 지역, 세계로 연결된 갈등과 폭력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 교육하고 적용하여
평화로운 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여성평화연구원과 갈등해결센터가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6/4847 팩스 02.929.4843
이메일 wmpeace@naver.com 홈페이지 www.peacecr.org



서울특별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적 공감대화 어떻게 할까요?

대화에도 사전준비가 필요해요

- ▶ 정중하게 초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 이야기 나눌 주제를 정하고, 참여자들에게 미리 알립니다.
- ▶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 ▶ 대화의 이공이를 정합니다.
- ▶ 대화의 약속을 정합니다.



평화적 공감대화의 태도와 방법론?

- ▶ 모두 돌아가며 골고루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 ▶ 말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갖고 들읍니다.
- ▶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공감하며 지지의 자세를 갖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타당하며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합니다.
- ▶ 상대의 말을 확인하여 주고,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합니다.
- ▶ 말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지적보다
자기가 겪은 사실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평화적 공감대화 언제 하면 좋을까요?

- ▶ 가족회의
- ▶ 애도의 자리
- ▶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 ▶ 의견 차이가 있을 때
- ▶ 모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때

평화적 공감대화 약속

- ▶ 순서대로 말을 하고, 약속된 시간을 지킵니다.
- ▶ 다른 사람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으며
귀 기울여 들읍니다. (경청하기)
- ▶ 다른 사람 이야기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관심사에 집중합니다.
- ▶ 대화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추후 비난이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화적 공감대화 순서

단계	내용
준비	·초대와 자발적 참여 ·대화 주제 정하기
평화적 공감대화	·인사 나누기 ·현재 마음 또는 대화에 대한 기대 ·대화 약속 확인하기 ·상대의 말 먼저 듣기(2인 대화) ·순서를 정하고 말하기(다중 대화) ·다른 사람의 말의 내용과 감정 확인하여 돌려주기(진행자 또는 구성원) ·궁금 사항이나 정보를 좀 더 듣기 위한 질문하기 ·내 의견을 말 할 경우, 상대에 대한 지적보다 내 생각과 감정 위주로 말하기
마무리	·대화 후 느낀 점은 새로이 알게 된 점 나누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서울특별시

5) 후속모임 ‘설렁설렁 모임’ 모임장: 손희정

(1) 1차 모임 : 10월 26일(화) 20:00-21:30, 온라인(zoom)

참석: 김다미, 변준희, 이하영, 이향림, 손희정, 박인혜, 여혜숙 (7명)

내용: 후속모임 운영방법, 평화적 공감대화가 필요할 때, 사례나누기

(2) 2차 모임: 11월 23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참석: 고미진, 김다미, 변준희, 손희정, 송선옥, 이향림, 박인혜, 여혜숙 (8명)

내용: 사례를 가지고 연습하기 (이삿집센터 직원과의 대화, 아들·며느리와의 대화)

(3) 3차 모임: 12월 28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참석: 김지혜, 김다미, 박인혜, 손희정, 이하영, 여혜숙 (7명)

내용: 사례가지고 연습하기 (이웃과의 반려견 소음으로 갈등 상황)

4. 프로그램 퍼실리테이션 (Facilitation)

1) 여성, 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서클대화

○ 일시: 21. 6.18(금),19(토),25(금), 7.9(금) 15:00-17:00, 10:30-12: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수원여성회 (온라인)

○ 진행: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 질문: 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 여성·평화·안보와 내 삶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 민화협 여성위원회 주최 ‘여성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

○ 일시: 11월 10일(수) 14:00-17:00, 온라인

○ 주제: 남북 여성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주제발제: 김정수 상임대표

○ 전체진행: 여혜숙, 모듬진행: 김정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 질문: 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 남북 여성교류(협력)가 활성화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3.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개인, 단체, 민화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진행자 평가: 참여자 모든 사람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좋았다.

전문적인 참여자가 많아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다. 진행이 전반적으로 물흐르듯이 자연스러웠다. 진행자뿐 아니라 참여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을 느꼈다.

3)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주최)

(1) 서울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① 서울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모듬 퍼실리테이터

- 2021년 9월 4일, 5일, 12일 9:00-18:00

- 참여: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② 퍼실리테이터 온라인 심화교육

- 일시: 2021년 3월 3일(화)-6월 29일(화) 매주화요일 20:00-22:00

- 참석: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2) 2020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종합 토론회 모듬 퍼실리테이터

- 일시: 2021년 6월 5일(토), 12일(토), 26일(토) 9:00-18:00

- 참여: 여혜숙

6. 평가

1) 성과: 코로나상황에 맞추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평화여성회가 주최하는 사회적대화와 민화협 여성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기획하고 진행하였고 서울시 평화통일사회적대화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였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를 통해 세대간 대화모임을 시도하여 세대간 공감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갈등을 평화적 공감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훈련과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매뉴얼’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정기적인 연습모임을 진행하였다.

2) 과제: 앞으로 ‘평화적 공감대화’가 일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가 매뉴얼을 연구하고, 회원들이 참여하고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민되고 실행되어야 하겠다.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I. 2021년 사업 활동

1. 구성

- 연구원 이사회: 이사장(김성은), 이사(강명숙, 김성보, 김귀옥, 송연옥, 정경훈, 조영주, 홍승희, 원재연, 한운석, 조정아, 김명환, 정진아, 박명림, 김동환)
- 연구위원: 연구원장(김귀옥), 부원장(조영주), 연구위원(김정아, 박현선, 손서정, 윤보영, 김성경, 이애덕, 강인화, 이현희, 정용숙, 윤여령, 김수지, 정진아, 전수미,정은미)
- 연구원 간사(김태원)
- 연구원 후원회원(강성천, 강지윤, 김동환, 김선일, 박배균, 박병인, 박선옥, 송혜련, 이충진, 정경희, 지혜경, 천정환, 허영란, 최은영, 정경훈, 유임하, 한모니까, 신정완, 박경로, 김진환)
- 『여성과 평화』 7호 편집위원회: 위원장(김귀옥), 편집위원(윤보영, 정용숙), 편집간사(김태원)

2. 2021년 주요 사업 방향

- 1) 연구원 이사 중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 및 참여범위 확대
- 2) 『여성과 평화』 7호 발간
- 3) 학술토론회 개최
- 4) 담론 생산 활동
 - 여성, 평화, 안보(유엔안보리 1325호 결의안) 키워드와 관련 주제의 칼럼 기고 조직화를 통하여 1325의 대중화 및 사회적 소통을 위한 담론화

3. 세부사업

1) 연구원 이사 회의

일시: 6월 4일 저녁 8시

방식: Zoom 회의

참석자: 김귀옥, 김명환, 김성보, 김성은, 김정수, 김태원, 송연옥, 정진아, 조영주, 한운석

; 연구원 이사 상견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반적 사업 보고(김정수 상임대표)

; 연구원 현황 및 과제 보고(김귀옥 원장)

2) 연구위원 회의

일시: 11월 24일 저녁 8시

방식: Zoom 회의

참석자: 김귀옥, 김태원, 김성경, 윤보영, 이애덕, 정은미, 김정아, 강인화, 손서정, 조영주, 윤여령

- 2021년 사업 평가와 과제
- 2022년 사업안 논의와 대강의 계획 수립

3) 『여성과 평화』 편집위원회 회의

(1) 1차 회의

일시: 9월 17일 오후 4시

방식: ZOOM 회의

참석자: 김귀옥, 윤보영, 정용숙, 김태원

(2) 2차 회의

일시: 11월 20일 오후 8시

방식: ZOOM 회의

참석자: 김귀옥, 윤보영, 정용숙, 김태원

4) 연구위원 워크숍 및 여성과 평화 포럼

(1) 1차 연구위원 워크숍

주제: 갈라진 산하, 갈라진 마음들

도서 :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창비, 2020)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저녁 8시 온라인 줌회의

진행: 김귀옥

발표자: 김성경 연구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참석자: 김성은, 김정수, 여혜숙, 김정아, 윤보영, 강인화, 손서정, 이애덕, 윤여령, 배현주, 신난희

(2) 제1회 여성과 평화 포럼

주제: 독일통일 후 역사교육과 사회적 통합

발표자: 한운석 연구원 이사(독일 튀빙겐대 교수)

일시: 4월 27일(화) 저녁 8시

방식: Zoom 화상회의

진행: 김성경 연구위원(북한대학원대학 교수)

토론자: 손서정(연구원 연구위원), 신난희(대구 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조교수),
윤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참여자: 강인화, 김귀옥, 김성경, 김성은, 김정수, 김태원, 박인혜, 박찬우, 배
현주, 서승, 송연옥, 신명훈, 여혜숙, 윤보영, 윤여령, 이현희, 임종명, 정경란,
정용숙, 정현백

(3) 제2회 여성과 평화 포럼

주제: 연대하는 페미니즘과 과제

발표자: 정현백(성균관대 명예교수)

일시: 5월 25일(화) 저녁 8시

방식: Zoom 화상회의

진행: 박현선 평여 이사(이화여자대 초빙교수)

토론자: 김태원(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배현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전
부산 장신대 교수), 여혜숙(갈등해결센터 소장)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

참여자: 강명숙, 강인화, 고유경, 김귀옥, 김다미, 김명환, 김성경, 김성은, 김
수지, 김정수, 김정아, 박인혜, 백미순, 서승, 손서정, 송연옥, 윤여령, 이권명
희, 이애덕, 이현희, 정경란, 정진아, 조천현, 홍승희

(4) 제3회 여성과 평화 포럼

주제: 탈북과 여성

발표자: 조천현(사진작가)

일시: 6월 28일(월) 저녁 8시

방식: Zoom 화상회의

진행: 김정아 평여 이사

토론자: 윤보영(연구원 연구위원, 동국대 강사), 전수미(변호사,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이권명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교육운영위원, 가치교육연구소-숨), 김
진환(연구원 회원)

참여자: 강문, 고유경, 김귀옥, 김다미, 김련희, 김성은, 김정수, 김태원, 도지
인, 손서정, 여혜숙, 이애덕, 정경란, 조천현, 한운석

(5) 제4회 여성과 평화 포럼

주제: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발표자: 김태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현대사 전공)

일시: 8월 26일(목) 저녁 8시

방식: Zoom 화상회의

개회식 진행: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본 행사 사회: 김귀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토론자: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여성사)

* 순차 통역: 나가야 유키코((永谷ゆき子)

유임하(한국여성평화연구원 회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현대문학)

김성경(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화사회학)

참여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비회원 포함 40인 이상

(6) 제5회 여성과 평화 포럼

주제: 군위안소와 그 주변, 경계를 긋는다면? - 상해의 사례로 본다

발표자: 송연옥(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

일시: 10월 20일(수) 저녁 8시

방식: Zoom 화상회의

개회식 진행: 김귀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본 행사 사회: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공동대표)

토론자: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여성사), 심아정(한국방송통신대 강사, 독립연구활동가), 정용숙(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독일사)

5) 학술토론회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1) 1차 회의

일시: 3월 9일(화) 저녁 9시 반

방식: Zoom 화상회의

참석자: 김귀옥, 김성경, 윤보영, 윤여령, 김태원

(2) 2차 회의

일시: 3월 13일(토) 저녁 8시 반

방식: Zoom 화상회의

참석자: 김귀옥, 김성경, 윤보영, 윤여령, 조정아

(3) 3차 회의

일시: 3월 25일(목) 밤 10시

방식: Zoom 화상회의

참석자: 김귀옥, 윤보영, 김태원

(4) 행사 내용 및 결산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문법을 열다

- 여성의 평화통일 활동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공감 노력 -

일시: 2021년 11월 5일 (금) 13:00 - 18:00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주최: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주관: 부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토론회 순서 ▶ ▶ ▶

시간	구성	내용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	사 회: 김정아(평화물만드는여성회 이사) 개회사: 김정은(평화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4:00-15:40	1부	의제: 30년, 남북 여성의 대화 사회: 여혜숙(평화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발표>	<토론>
		김윤옥(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전 기독교여성 평화연구원 원장) "90년대 남북여성교류의 첫 물꼬, 서울-평양토론회 회고와 의의" 정경란(전 평화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여성·평화·안보 의제로 본 남북여성 교류 성과와 한계 - 6·15를 성찰하며" 정현배(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여성평화운동의 새로운 실험"	김숙임(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손미희(우리학교시민모임 공동대표, 전 6·15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최소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 원장, 현 6·15 남측위 여성본부 상임 대표)
15:40-16:00	휴식	다과	
16:00-17:40	2부	의제: 여성주의적 통일의 성찰과 사회적 공감의 확산 사회: 조정아(통일연구원 부원장)	
		<발표>	<토론>
		김정수(평화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여성, 평화, 안보 에 관한 유연안보리걸의 1325 결의안 의제의 대중화: 성 과와 과제" 윤보영(동국대학교 강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평 화·통일"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와 여성주의 평화· 통일 담론의 소통과 공감 노력: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사례를 통한 성찰"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 위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현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
17:40-	폐회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여성의 평화통일 활동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공감 노력

일시 |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13:00 - 18:00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온라인(zoom) | zoom.us/j/85452576476?pwd=VnRxazhCOHlzVE9acjk1RW1wVDQrdz09

개회

사회 | 김정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개회사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부 30년, 남북 여성의 대화

사회 |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발표 | "90년대 남북여성교류의 첫 물꼬, 서울·평양토론회 회고와 의의"

- 김윤옥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전 기독교여성 평화연구원 원장)

"여성·평화·안보 의제로 본 남북여성 교류 성과와 한계 : 6·15를 성찰하며"

- 정경란 (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여성평화운동의 새로운 실험" -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손미희 (우리학교시민모임 공동대표, 전 6·15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최소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현 6·15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2부 여성주의적 통일의 성찰과 사회적 공감의 확산

사회 | 조정아 (통일연구원 부원장)

발표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결의 1325 결의안 의제의 대중화" : 성과와 과제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 - 윤보영 (동국대학교 강사)

"시민사회와 여성주의 평화·통일 담론의 소통과 공감 노력"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례를 통한 성찰

-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토론 |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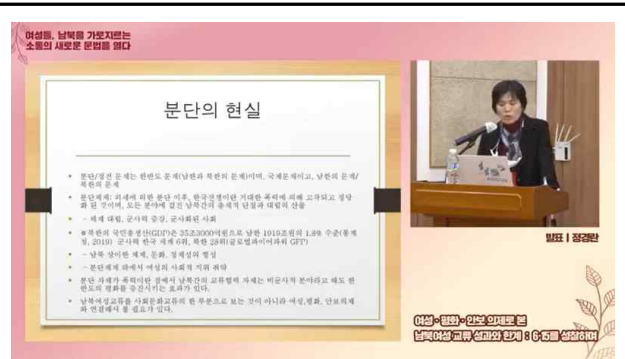
이현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관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세션 제1발표



1세션 제2발표



1세션 제3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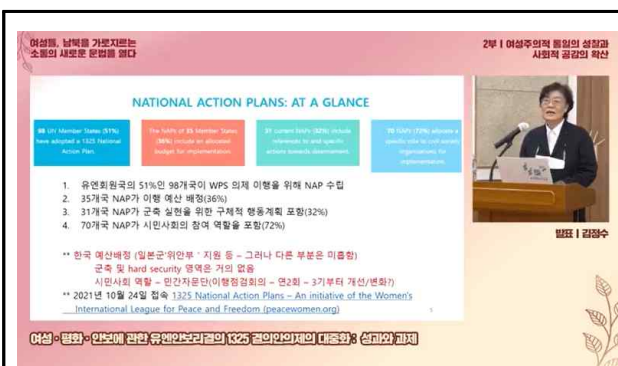
1세션 제1토론



1세션 제2토론



1세션 제3토론



2세션 제1발표



2세션 제2발표



2세션 제3발표



2세션 제1토론



2세션 제2토론



2세션 제3토론



6) 『여성과 평화』 7호 발간

(1) 1차 회의

일시: 9월 17일 오후 4시

방식: ZOOM 회의

참석자: 김귀옥, 윤보영, 정용숙, 김태원

(2) 2차 회의

일시: 11월 20일 오후 8시

방식: ZOOM 회의

참석자: 김귀옥, 윤보영, 정용숙, 김태원

(3) 목차

발간사

머리말

<특집: 여성주의적 평화의 길>

김윤옥 “남북여성교류 첫 물꼬에 대한 회상”

정현백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여성평화운동의 새로운 실험”

<기획: 여성주의와 평화, 통일, 시민사회>

윤보영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

김귀옥 “시민사회와 여성주의 평화·통일 담론의 소통과 공감 노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례를 통한 성찰”

<일반논문>

정용숙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윤택림. “분단과 미수복경기도 실향민 여성의 삶”

한홍구. “1970년 한국 여성노동운동사의 상처와 새로운 소통을 위한 단상”

<특별기고>

하연남. “딸이 쓰는 엄마의 한국전쟁 이야기: 무한한 인내심을 길러주신 엄마”

<청년이 본 평화와 정치>

대학생A “폭력의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대학생B “차별에 대한 나의 성찰”

7) 여성과 평화 - 누리미디어 계약 관련

- 2월 <여성과 평화>의 저작권료 정산 관련 계약의 만료기간이 임박하여 누리미디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여성과 평화> 6호의 출판에 따라 계약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기존 계약은 1~5호까지 범위)에서 저작권료 분할소유 문제(도서출판 당대: <여성과 평화> 제1호~제3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여성과 평화> 제4호~제5호)도 함께 해결할 것을 제안받음.
- <여성과 평화> 2호부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약 내용이 잘못되어 당대의 이름으로 되어있었다는 점을 확인, 도서출판 당대 박미옥 대표에게 이 점을 알리고 구두로 <여성과 평화> 1~3호에 대한 저작권 포기를 확답받음.
- 3월 2일 누리미디어 차종엽 선생님과 통화에서 도서출판 당대로부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으로 <여성과 평화> 1~3호 저작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증빙자료를 받아줄 것을 요청받음.
- 3월 3일 도서출판 당대와 통화에서 '한국여성평화연구원으로 <여성과 평화> 1~3호 저작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은 이미 김귀옥 원장과 박미옥 대표, 누리미디어 사이에 구두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당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누리미디어 측에도 전달. 누리미디어 측은 이후 연구원에서 이 내용을 증빙하는 공문을 써줄 것을 제안.
- 3월 11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에서 계약 진행. 이후 연구원은 새 계약 이전 계약 시기에 지급되었어야 할 저작권료를 모두 도서출판 당대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
- 8월 19일 누리미디어에서는 이전 계약 시기 저작권료는 한국여성평화연구원과 도서출판 당대에 분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서출판 당대에 이전 계약 시기의 저작권료를 일괄지급하는 합의에 대한 공문을 간사에게 요청.
- 8월 24일 기존 계약 건에서 미정산된 금액(2019-12, 2020-12 정산분, 정산대상기간: 2018-12 ~ 2020-11)에 대해서는 도서출판 당대 측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액(2021-8 정산분, 정산대상기간: 2020-12 ~2020-07)에 대하여는 연구원에 저작권료를 받기로 도서출판 당대 대표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공문을 누리미디어에 발송.

4. 평가

- 성과: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2021년 기존의 '연구위원 워크샵'을 '여성과 평화 포럼'으로 전환하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비구성원으로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고, <여성과 평화> 7호 제작 및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동북아 평화 담론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 과제: 2021년 ‘연구위원 워크숍’이 ‘여성과 평화 포럼’으로 전환되면서 연구위원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둔 모임과 회의 시간이 부재하게 됨. ‘여성과 평화 포럼’의 토론자가 많고 늦은 밤(20:00~22:00) 진행되는 점 때문에 참석자들이 피로해질 수 있음. 또한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충분한 사례를 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포럼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이에 정기적인 연구원 자체 모임을 구상하고 연구원 회원 관리 및 기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과 평화> 8호 제작 등 연구원의 주요 활동들을 연구위원들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함.

2021년 결산보고

2021년도 결산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회비수입	36,000,000	30,663,090	85.18%		30,663,090	사업비	16,900,000	19,119,500	113.13%	41,137,673	60,257,173
회원	24,000,000	20,663,090	86.10%		20,663,090	회의비	1,000,000	327,500	32.75%		327,500
이사	12,000,000	10,000,000	83.33%		10,000,000	평화통일사업	2,000,000	3,267,500	163.38%	41,137,673	44,405,173
후원금	22,600,000	23,559,000	104.24%		23,559,000	재정사업	4,000,000	10,524,500	263.11%		10,524,500
개인	10,000,000	13,780,000	137.80%		13,780,000	연대사업비	4,500,000	2,100,000	46.67%		2,100,000
재정모금	4,000,000	8,479,000	211.98%		8,479,000	출판지원금	3,000,000	500,000	16.67%		500,000
부설기관후원	3,600,000	1,300,000	36.11%		1,300,000	부설기구 교부금	2,400,000	2,400,000	100%		2,400,000
참가수입	0	0	0.00%		0	갈등해결센터	1,200,000	1,200,000	100%		1,200,000
자료제공	200,000	5,000	2.50%		5,000	여성평화연구원	1,200,000	1,200,000	100%		1,200,000
기타수입	1,605,183	9,381,310	584.44%		9,381,310	인건비	28,000,000	24,850,000	88.75%		24,850,000
차입금	0	0			0	업무추진비	3,600,000	3,600,000	100.00%		3,600,000
						인건비	24,400,000	21,250,000	87.09%		21,250,000
						운영비	14,200,000	16,261,068	114.51%		16,261,068
사업후원1 (한국여성재단)				15,000,000	15,000,000	관리비	7,500,000	7,168,306	95.58%		7,168,306
						복리후생비	2,000,000	3,786,995	189.35%		3,786,995
사업후원2 (2021 아시아 여성토론회)				13,964,927	13,965,331	사무비	2,500,000	3,865,027	154.60%		3,865,027
						통신비	1,000,000	837,270	83.73%		837,270
사업후원3 (캠프협력사업-외교부)				14,000,000	14,000,000	기타지출	1,200,000	603,470	50.29%		603,470
						미지급금	3,100,000	2,600,000	83.87%		2,600,000
이자수입				404		차입금	2,100,000	1,900,000	90.48%		1,900,000
						연대회의비	1,000,000	700,000	70.00%		700,000
						차입금 반환					
						적립금	1,800,000	2,100,000	116.67%		2,100,000
						퇴직적립금	1,800,000	2,100,000	116.67%		2,100,000
						예비비					
소계	60,405,183	63,608,400		42,965,331	106,573,731	소계	64,000,000	64,930,568		41,137,673	106,068,241
전년이월금	3,594,817	3,594,817			3,594,817	차년이월금		2,272,649		1,827,658	4,100,307
총계	64,000,000	67,203,217		42,965,331	110,168,548	총계	64,000,000	67,203,217		42,965,331	110,168,548

2. 갈등해결센터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전입금	1,200,000	1,200,000	100%		1,200,000	사업비	2,100,000	1,187,090	56.50%		14,187,090
후원금	6,828,000	6,040,000	88.50%		6,040,000	회의비	720,000	255,500	73.85%		255,500
참가수입	150,000	0				강사비	400,000	150,000	37.50%		150,000
자료제공	100,000	65,000	65%		65,000	프로젝트사업비	1,000,000	781,590	78.20%	13,000,000	13,781,590
기타수입	200,602	1,699	8.50%		1,699	운영비	6,500,000	4,048,627	62.30%		4,048,627
						인건비	6,000,000	3,800,000	63%		3,800,000
						사무관리비	150,000	11,818	7.80%		11,818
프로젝트1 (서울시)				13,000,000	13,000,000	복리후생비	300,000	232,000	77.30%		232,000
						기타지출	50,000	4,809	9.60%		4,809
						예비비	300,000	500,000	167%		500,000
소계	8,478,602	7,306,699	86.80%	13,000,000	20,306,699	소계	8,900,000	5,735,717	64.40%	13,000,000	18,735,717
전년이월금	421,398	421,398			421,398	차년이월금		1,992,380			1,992,380
총계	8,900,000	7,728,097		13,000,000	20,728,097	총계		7,728,097		13,000,000	20,728,097

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본회교부금	1,200,000	1,200,000	100.00%		1,200,000	사업비	6,300,000	1,768,418	28.07%		7,173,418
이사회비	6,000,000	7,000,000	116.67%		7,000,000	회의비	800,000	0	0.00%		0
참가수입	150,000	0	0.00%		0	강사비	500,000	414,618	82.92%		414,618
자료제공	100,000	0	0.00%		0	<여성과 평화> 출판비	4,000,000	0	0.00%		0
기타수입	200,053	2,573	1.29%		2,573	프로젝트 사업비	1,000,000	1,353,800	135.38%	5,405,000	6,758,800
후원금	400,000	500,000	125.00%		500,000	운영비	6,400,000	6,451,737	100.81%		6,451,737
출판지원금	4,000,000	1,000,000	25.00%		1,000,000	인건비	6,000,000	6,000,000	100.00%		6,000,000
						사무비	100,000	6,910	6.91%		6,910
						복리후생비	200,000	396,000	198.00%		396,000
사업후원1 (통일부)				5,405,000	5,405,000	기타지출	100,000	48,827	48.83%		48,827
						기관 후원비	200,000	0	0.00%		0
						차입금반환	0	0			0
						예비비	600,000	0	0.00%		0
소계	12,050,053	9,702,573		5,405,000	15,107,573	소계	13,500,000	8,220,155		5,405,000	13,625,155
전년이월금	1,449,947	1,449,947			1,449,947	차년이월금		2,932,365		0	2,932,365
총계	13,500,000	11,152,520		5,405,000	16,557,520	총계	13,500,000	11,152,520		5,405,000	16,557,520

비고 : 2021년도 본회 출판후원금 예산 3,000,000원 중 500,000원 후원됨

2021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기관 포함)의 재정 현황

1. 일반회계

1-1. 일반회계

수 입		지 출	
전년이월	5,466,162		
본 회	3,594,817		
갈등해결센터	421,398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449,947		
2021년 수입	80,617,619	2021년 지출	78,886,440
본 회	63,608,400	본 회	64,930,568
갈등해결센터	7,306,699	갈등해결센터	5,735,71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9,702,57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8,220,155
		차년이월	7,197,394
		본 회	2,272,649
		갈등해결센터	1,992,38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932,365
합 계	86,083,834	합 계	86,083,834

수 입		지 출	
2021년 수입	86,083,834	2021년 지출	86,083,834
본 회	67,203,217	본 회	67,203,217
갈등해결센터	7,728,097	갈등해결센터	7,728,09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1,152,52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1,152,520
합 계	86,083,834	합 계	86,083,834

1-2. 특별회계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2021년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Women’s Korea Peace Appeal-‘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을 위한 여성/지역/청년단체 역량강화와 여성·청년 이니셔티브를 통한 캠페인 확산사업”	15,000,000	15,000,000	한국여성재단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13,000,000	13,000,000	서울시
2021년 통일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 “학술행사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5,405,000	5,405,000	통일부
2021 외교부 민간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청년·여성(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한-아시아 여성 시민사회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생존자와 지원단체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14,000,000	14,000,000	(사)캠프 협력사업 외교부지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13,965,331	12,137,673	공동주최단체분담금 7,000,000 GPPAC 6,964,927후원
이월금		1,827,658	자료집 발행비 등
4건	61,370,331	61,370,331	

2. 기금

2-1. 남북교류기금

내역	수입	지출	잔액	내역
전년이월	77,817		77,817	
2021년 이자	76		76	
합계	77,893	0	77,893	

2-2. 퇴직적립금

내역	수입	지출	잔액	비고
2020년 이월금	1,651,499			
2021년 내역	2,100,000	2,701,000		-김세민 퇴직금 -우리운영비통장으로 이체
2021년 이자	750			
2021년 후원	0			
합계	3,752,249	2,701,000	1,051,249	

3. 자산 및 부채

3-1. 부동산자산 : 여성미래센터 전세금 5,711,000원

3-2. 채무 : 500,000원

연대회비 미지급금 - 500,000

2021 회원회비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번호	이름	금액
1	강경란	60,000	41	박병인	120,000
2	강미연	120,000	42	박선옥	120,000
3	강성천	240,000	43	박유희	250,000
4	강인화	120,000	44	박은미	120,000
5	강지윤	240,000	45	박인숙	120,000
6	고유경	120,000	46	박인아	120,000
7	권희수	120,000	47	박인혜	120,000
8	김경미	120,000	48	박정렬	50,000
9	김귀옥	120,000	49	박주혜	40,000
10	김귀희	120,000	50	박지용	180,000
11	김다미	120,000	51	박진경	60,000
12	김동환	360,000	52	박현선	180,000
13	김명신	20,000	53	박현숙	360,000
14	김미경	360,000	54	박희진	70,000
15	김민화	240,000	55	박남희	120,000
16	김선일	120,000	56	백미순	120,000
17	김선혜	120,000	57	백영민	120,000
18	김성경	360,000	58	서명숙	240,000
19	김숙임	120,000	59	서미숙	120,000
20	김연수	120,000	60	서민순	120,000
21	김영리	90,000	61	서영주	100,000
22	김은진	120,000	62	손서정	120,000
23	김정수	120,000	63	손은정	120,000
24	김정아	120,000	64	손희정	120,000
25	김정옥	120,000	65	송소희	55,000
26	김지선	100,000	66	송혜련	60,000
27	김지호	50,000	67	신난희	70,000
28	김진환	120,000	68	신정완	120,000
29	김현희	120,000	69	안경호	120,000
30	김혜경	120,000	70	안김정애	360,000
31	김화숙	240,000	71	안수경	120,000
32	김희순	120,000	72	안영미	120,000
33	김희은	120,000	73	양덕열	120,000
34	김희정	10,000	74	양미강	120,000
35	노귀남	120,000	75	여혜숙	600,000
36	문영금	120,000	76	오미영	120,000
37	민정숙	60,000	77	오순애	60,000
38	박경로	240,000	78	오종열	120,000
39	박난희	110,000	79	유시대	60,000
40	박배균	120,000	80	유은주	220,000

81	유임하	120,000	116	정경희	240,000
82	유지연	18,090	117	정범진	100,000
83	윤경원	240,000	118	정용수	30,000
84	윤보영	120,000	119	정용숙	120,000
85	윤수경	60,000	120	정원진	120,000
86	윤여령	100,000	121	정은미	60,000
87	윤은주	360,000	122	정은아	60,000
88	이경순	120,000	123	정현기	120,000
89	이권명희	120,000	124	정혜진	120,000
90	이금순	120,000	125	조구희	600,000
91	이덕경	120,000	126	조영미	120,000
92	이명화	120,000	127	조영숙	360,000
93	이상화	160,000	128	조영순	60,000
94	이소윤	45,000	129	조영주	120,000
95	이애덕	240,000	130	조영희	110,000
96	이예정	120,000	131	지혜경	120,000
97	이유란	240,000	132	천정환	120,000
98	이윤아	120,000	133	최민정	60,000
99	이은영	120,000	134	최안진경	50,000
100	이정은	120,000	135	최영숙	60,000
101	이진옥	90,000	136	최영애	120,000
102	이충진	120,000	137	최윤태	120,000
103	이향림	60,000	138	최은순	360,000
104	이현숙	120,000	139	최은영	120,000
105	이현주1	70,000	140	한모니까	240,000
106	이현주2	60,000	141	한산석	70,000
107	이현희	240,000	142	한옥자	120,000
108	이화진	50,000	143	한옥화	120,000
109	장근석	360,000	144	한정숙	120,000
110	장효순	30,000	145	함경숙	55,000
111	전상희	240,000	146	함영미	40,000
112	전수미	50,000	147	허영란	120,000
113	전희정	120,000	148	허옥	120,000
114	정경란	120,000	149	홍승희	120,000
115	정경훈	120,000	150	황영주	120,000
소 계					20,663,090

2021 이사회비 현황_본회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성은	1,000,000
2	김귀옥	1,000,000
3	김정수	1,000,000
4	김지영	1,000,000
5	김정아	1,000,000
6	박현선	1,000,000
7	배현주	1,000,000
8	여혜숙	1,000,000
9	윤은주	1,000,000
10	한정숙	1,000,000
합 계		10,000,000

2021 후원 현황_갈등해결센터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정아	150,000
2	김다미	400,000
3	박인혜	1,380,000
4	손서정	200,000
5	배현주	100,000
6	손희정	590,000
7	여혜숙	2,570,000
8	이덕경	650,000
합 계		6,040,000

2021 후원 현황_본회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고유경	100,000
2	김귀옥	300,000
3	김성은	200,000
4	김윤옥	1,000,000
5	김지영	500,000
6	박수선	400,000
7	박인혜	5,010,000
8	배현주	500,000
9	송연옥 _김귀옥 납부	500,000
10	수지킴	300,000
11	신낙균	1,000,000
12	양미강	120,000
13	여혜숙	500,000
14	윤은주	2,000,000
15	정병하	500,000
16	정현백	750,000
17	조윤희	100,000
합 계		13,780,000

2021 후원 현황
_한국여성평화연구원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신준영	500,000
2	김귀옥	500,000
합 계		1,000,000

2021 이사회비 현황
_한국여성평화연구원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500,000
2	정경훈	500,000
3	김명환	1,000,000
4	정진아	500,000
5	김성보	500,000
6	홍승희	500,000
7	원재연	500,000
8	한운석	500,000
9	송연옥 _김귀옥 납부	500,000
10	조영주	500,000
11	조정아	500,000
12	박명림	500,000
13	김동환	500,000
합 계		7,000,000

2021 해외 지원_GPPAC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1325 유튜브 영상 영문자막작업비	1,987,740
2	2021아시아의평화와 여성의역할국제토론회	6,964,927
합 계		8,952,667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연임 및 신임 임원안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임원 선출 (안)

이사장(신임) : 한정숙

이사 연임 : 김성은 (2022년-2024년)

부설기관장 : 갈등해결센터(중임) : 여혜숙

부설기관장 : 한국여성평화연구원(중임) : 김귀옥

○ 인선위원회 운영 과정

- 3차 총준위에서 인선위원 추천
김정수, 김성경, 김정아, 박인혜, 배현주
- 2022년 1월 20일 인선위원회 개최하여 인선위원장으로 김정아 이사 선임하고
이사회 추천안 마련
- 2022년 1월 21일(금) 2022년 1차 이사회에서 검토 및 승인
- 2022년 1월 27일(목) 2022년 제26차 정기총회에 신임임원 인선안 제출됨

○ 2022년 임원 임기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한정숙	2022~2024	이사장	신임
	김성은	2022~2024		연임
	김귀옥	2020~2022	연임	
	김정수	2020~2022	연임	
	김지영	2021~2023	연임	
	김정아	2021~2023	연임	
	박현선	2020~2022	연임	
	배현주	2021~2023	신임	
	여혜숙	2020~2022	연임	
	윤은주	2021~2023	신임	
	조영희	2020~2022	연임	
상임대표	김정수	2020~2022	중임	
공동대표	여혜숙	2020~2022	중임	
감 사	안수경	2020~2022	신임	
	박유희	2021~2023	연임	
부설기구	소장 여혜숙	2022~2024		중임
	원장 김귀옥	2022~2024		중임

2021년 평화회원상

고유경 회원

● 평화회원상 추천사

1. 고유경 회원은 2021년도 평화여성회가 진행한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전체과정, 즉 기획, 4회의 특강, 특강을 위한 설문 기획과 답변 분석을 통한 강의에 반영, 평가회의, 여성평화종전선언문 작업과 발표회와 평가회의에 이르기까지 적극 참여, 의견을 개진하고, 탁월한 강의를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여성들이 왜 종전평화운동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2. 또한 남북여성교류 30년 기념행사로 진행된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준비과정에 참여, 회의자료 정리와 점검, 단체 소통방에 수없이 많은 의견 개진, 2부 라운드 테이블 질문 기획 논의와 토론 진행, 해외참가자 섭외, 웨비나 기술 점검 등등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여 토론회가 무사히,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2021년 평화회원상

김다미 회원

◎ 평화회원상 추천사

김다미 회원은 실천하는 시인입니다. 등단한 시인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시로 표현하고 스스럼없이 공유하여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광명노인복지관에 일하는 사회복지사이면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실천가입니다. 지역과 단체에 필요한 일이라면 반차를 내기도 하고, 휴가를 내기도 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여성회 회원이 된 것은 2019년 평화통일교육 진행자과정에 참여하면서 부설 갈등해결센터 ‘평화통일교육팀’에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갈등해결교육에 참여하고 일하는 곳에서 갈등해결, 의사소통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교육매뉴얼 연구팀’에 결합하면서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매뉴얼>작업에 기여하였고, <세대간 대화모임>과 <갈등소통역량강화교육&평화적공감대화 실천>의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후속모임인 ‘설렁설렁 모임’에도 연습 사례를 제공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갈등해결센터 여혜숙 센터장

2021년 평화회원상

조영주 회원

조영주 회원(연구원 부원장)의
평화회원상 추천 삼행시

추천인: 김귀옥/연구원장

조용하지는 않지만
평화를 위한 길을
열정적으로 걸어가는 그대

영민하면서도 헌신을 다해
1325 여성평화 세상을 꿈꾸는 그대

주장만 앞세우지 않고
근성과 책임, 실천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그대

2022년 사업계획안

2022년 사업기조와 방향(안)

2022년은 대통령선거가 3월로 예정되어 있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 혹은 제재와 압박 차원에서 접근하는 후보의 당선이 향후 5년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나아가 신냉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비롯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정세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첫째,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평화·안보 정책 제안(공약화)과 선거 이후 여성평화운동 방향 수립, 둘째,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 그리고 남북여성협력 재개를 위한 창의적 캠페인 전개, 셋째 동아시아 미중 경쟁과 갈등 고조로 인한 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여성평화연대 구축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2년 3월로 창립 25주년이 되는 평화여성회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 돌아보고 전환기 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이를 위해 평화여성회는 2022년 다음과 같이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1.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

2022년 3월 28일이면 평화여성회가 창립된지 25년이 된다. 전문적 여성평화운동 단체로 출범한 평화여성회의 그간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향후 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 평화여성회 자료정리와 25년 사업 평가 및 비전 마련
- 회원참여형 사업 기획과 진행
- 25주년 기념행사와 기금마련 후원의 밤 개최 등

2. 여성·평화·안보(WPS) 1325 의제 대중화 사업

여성·평화·안보(WPS) 1325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여성평화교육 방법론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평화지향적 징병제 개선을 위한 담론 발굴
- WPS 1325 기반 여성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 여성평화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진행

3.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어드보커시와 여성들이 만드는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 대응 성명서, 논평 발표
- 2022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여성·평화·안보(WPS) 정책 및 공약 제안 활동
- 남북여성교류 재개와 협력을 위한 활동
-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활동

4.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갈등해결센터는 2021년에 제작한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매뉴얼을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대상별, 주제별 교육 매뉴얼 개발
- 참여활동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 대화모임, 평화적 공감대화를 확산

5.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 전개

2021년에도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이사회와 연구위원 정비, 후원회원 모집 등을 통해 여성평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위원 워크숍을 <여성과 평화포럼>(비대면)으로 꾸준히 진행, 연구원과 본회 회원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외부인들에게 공개했다, 또 『여성과 평화』 7로 발간을 준비하였으며, 11월 25일 학술토론회(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문법을 열다)를 개최하여 남북여성교류 30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 확산을 위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았다. 2022년에도 이를 이어나가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과정과 평화제체 형성에 대한 담론 생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여성과 평화 포럼> 진행 및 연구자 워크숍
- 『여성과 평화』 연구지 발간
- 학술토론회 개최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2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 한정숙
 - 이 사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배현주, 여혜숙, 윤은주, 조영희

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손빛나리(활동가)

3) 내용 : 매주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 1) 역할 :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안한다.

- 2) 구성

- 위원 : 구성 중

2-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 1) 역할 : 1997년 3월 28일 창립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2022년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의 25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다양한

- 2) 구성

- 위원장 : 한정숙 이사
- 위 원 : 구성 중

- 3) 세부 사업 : 사업계획 참조

【2】 평화통일 사업

1.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

2022년 3월 28일이면 평화여성회가 창립된지 25년이 된다. 전문적 여성평화운동 단체로 출범한 평화여성회의 그간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향후 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 평화여성회 자료정리와 25년 사업 평가 및 비전 마련
- 회원참여형 사업 기획과 진행 등
- 25주년 기념행사와 기금마련 후원의 밤 개최 등

2. 여성·평화·안보(WPS) 1325 의제 대중화 사업

여성·평화·안보(WPS) 1325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여성평화교육 방법론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평화지향적 징병제 개선을 위한 담론 발굴
- WPS 1325 기반 여성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 여성평화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진행

3.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어드보커시와 여성들이 만드는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 대응 성명서, 논평 발표
- 2022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여성·평화·안보(WPS) 정책 및 공약 제안 활동
- 남북여성교류 재개와 협력을 위한 활동
-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활동

【3】 정보·홍보, 회원, 재정 사업

1. 정보·홍보 사업

- 1) 홈페이지, 페이스북, 여성평화안보(WPS) 유튜브 채널 등 SNS 평화활동
-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 3) 메일을 통해 본회 소식 전달

2.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3. 재정 사업

- 1)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
- 2) 연말연시 기금 마련 활동 (곶감 판매 등)

【4】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네트워크 활동)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네트워크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6. 시민평화포럼
- 1-7. 통일교육협의회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2-2. 한반도평화교육 단체모임
- 2-3.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2-4. 기타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지역협의회 - 올란바타르 프로세스
- 3-2. 기타

【5】부설 갈등해결센터

【2022년 사업계획】

1. 조직

- 센터장 : 여혜숙 , 부소장 : 박인혜
-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 기획자문위원 : 김희은, 이권명희
- 전문위원 :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이하영
- 교육매뉴얼 연구팀 : 박인혜(팀장), 김정아, 김다미,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2. 사업방향과 목표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연구, 발전시킨다.
- 조직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발휘 및 활동의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
- 센터 회원들과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평화·통일교육과 갈등해결교육의 통합적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사회 내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3. 세부사업 (안)

- 세대별, 대상별, 계층별 이해를 반영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한다.
- 소모임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교육과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평화·통일 역량 확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평화·통일·갈등해결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 평화, 갈등해결 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고 진행한다.

【6】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 소통과 화합
-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이사회 및 연구위원 회의 개최
- 본회, 센터와의 유기성 강화를 위한 활동

2. 연구원 주요 활동 계획

1) 연구원 워크샵

(1) 연구원 내부 사업

- 연구원 회원 관리와 기여 프로그램 개발
- 2022년 <여성과 평화 포럼> 운영방안
- ; 연구원 주관. 3개월에 한 번 정도
- ; 추후 논의
- 연구위원 정기 회의
- ; 2022년-3개월 한 번의 정기 연구원 자체 모임 구상
- :: 화상 모임(북토크) 또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경우 답사 프로그램 운영
- * 확장: 2월 정은미 연구위원의 “2022년의 북한의 전망과 한반도 평화의 길”

(2) 연구원 외부 사업 - 학술심포지엄

- ; 통일부 후원의 2020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주의적 성찰”(11.16), 2021년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11.5)
- ::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른 행사
- ; 2022년 학술심포지엄 주제
- :: 제안1: “여성, 분단/폭력문화를 평화문화로~!”
- :: 제안2: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군복무제도: 징병제도의 현실과 전망”
- ; 후원 가능 기관 - 통일부; 통일연구원; 민주평통; 민화협, 여성재단
- ; 추후 논의

(3) <여성과 평화> 8호

- 6호와 7호는 원장과 윤보영(6, 7호), 정용숙(7호), 김태원 간사 중심으로 일을 함
- 8호 기획에서 편집위원장-김성경, 부편집위원장-윤보영, 정용숙, 강인화, 정은미

(4) 연구원 원장과 부원장

- 2019년 1월 말 ~ 2022년 1월 말 - 원장 김귀옥, 부원장 조영주
- 2022년 1월 말 ~ 2025년 1월 말(차기 임기) - 원장 김귀옥(연임), 부원장 김성경

2022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예산안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목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예산	관	항 목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예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3,594,817	2,272,649	일반 회계	사업비	19,119,500	18,800,000
	회비	30,663,090	36,000,000		회의비	327,500	400,000
	회원	20,663,090	25,000,000		평화통일사업	3,267,500	5,000,000
	이사	10,000,000	11,000,000		재정사업	10,524,500	5,000,000
	후원금	23,559,000	32,400,000		연대사업비	2,100,000	3,000,000
	개인	13,780,000	15,000,000		[여성과평화] 출판비	500,000	3,000,000
	재정모금	8,479,000	15,000,000		부설기구 교부금	2,400,000	2,400,000
	부설기관후원	1,300,000	2,400,000		갈등해결센터	1,200,000	1,200,000
	참가수입	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200,000	1,200,000
	자료제공	5,000	200,000		인건비	24,850,000	29,640,000
	기타수입	9,381,310	1,127,351		업무추진비	3,600,000	3,600,000
	차입금	0			인건비	21,250,000	26,040,000
					운영비	16,261,068	17,050,000
			관리비	7,168,306	7,500,000		
			복리후생비	3,786,995	4,000,000		
			사무비	3,865,027	4,000,000		
			통신비	837,270	850,000		
			기타지출	603,470	700,000		
			미지급금	2,600,000	500,000		
			차입금	1,900,000	0		
			연대회의비	700,000	500,000		
			적립금(퇴직적립금)	2,100,000	2,160,000		
			예비비	2,100,000	3,850,000		
			차년이월	2,272,649			
			합 계	67,203,217	72,000,000		
				67,203,217	72,000,000		

2. 부설 갈등해결센터 예산안

수입부				지출부				
관	항목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예산	관	항목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예산	
일반	전년이월	421,398	1,992,380	일반	사업비	1,187,090	1,300,000	
	전입금	1,200,000	1,200,000		회계	회의비	255,500	300,000
	후원금	6,040,000	4,700,000			강사비	150,000	200,000
	참가수입	0	50,000			프로젝트 사업비	781,590	800,000
	자료제공	65,000	50,000		운영비	4,048,627	6,400,000	
	기타수입	1,699	7,620		회계	인건비	3,800,000	6,000,000
						사무관리비	11,818	50,000
			복리후생비	232,000		300,000		
			기타지출	4,809		50,000		
			예비비	500,000	300,000			
			차년이월금	1,992,380				
합계		7,728,097	8,000,000	합계		7,728,097	8,000,000	

3.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예산안

수입부				지출부				
관	항목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예산	관	항목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예산	
일반	전년이월	1,449,947	2,932,365	일반	사업비	1,768,418	6,100,000	
	전입금	1,200,000	1,200,000		회계	회의비	0	100,000
	이사회비	7,000,000	7,000,000			강사비	414,618	500,000
	참가수입	0	150,000			[여성과평화] 출판비	0	4,000,000
	자료제공	0	100,000		프로젝트 사업비	1,353,800	1,500,000	
	기타수입	2,573	115,613		운영비	6,451,737	7,100,000	
	후원금	1,000,000	1,000,000		회계	인건비	6,000,000	6,600,000
출판지원금	500,000	3,000,000	사무비	6,910		100,000		
			복리후생비	396,000		300,000		
			기타지출	48,827		100,000		
			기관 후원비	0	100,000			
			차입금반환	0	0			
			예비비	0	600,000			
			차년이월금	2,932,365	1,600,000			
합계		11,152,520	15,500,000	합계		15,500,000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도
- 2021년 성명서 목록
- 2021년 홍보자료
- 회원가입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2010년 1월 20일,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

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최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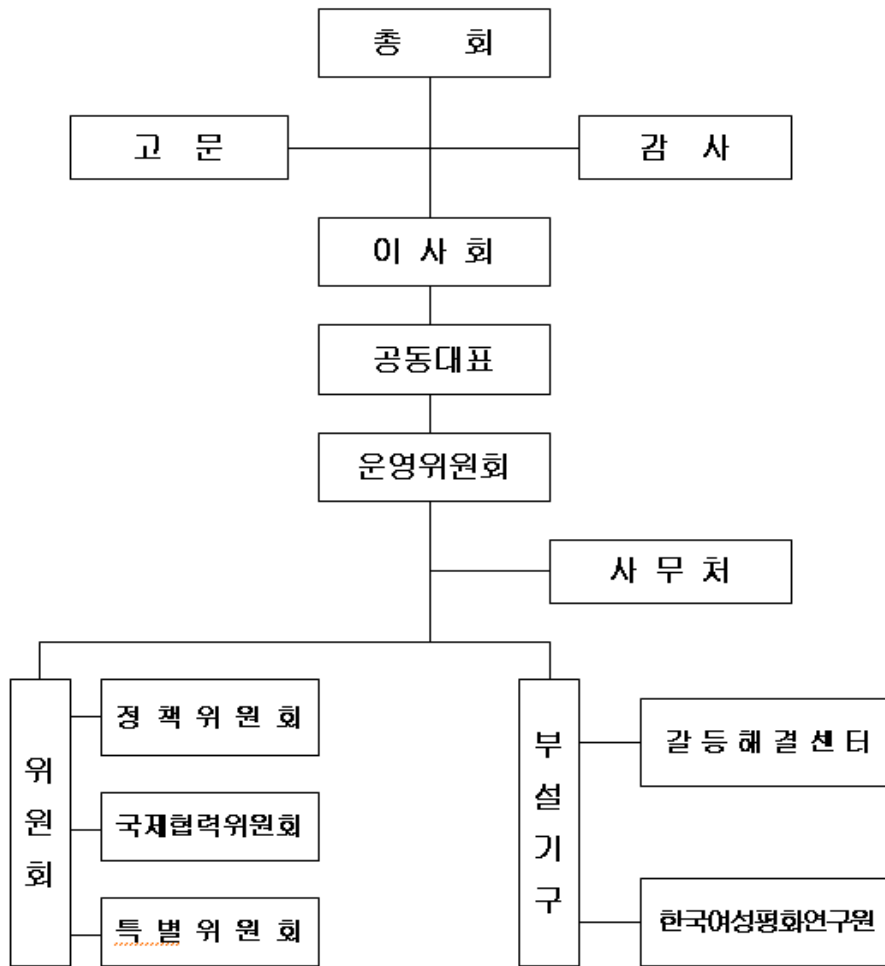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도



【 부록 】 2021년 성명서/기자회견문/의견서 목록

날 짜	제 목
1월 5일	기자회견문 :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합니다!
1월 13일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Letter to the US President Joe Biden to Call for Ending the Korean Wa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70 years is enough, End the Korean War, Korea Peace Now
1월 27일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합니다
1월 28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2월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서 :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을 맞아 여성혐오와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역사부정 세력을 규탄하며, 젠더 정의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3월 16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 여성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반대한다.
3월 17일	한국여성단체 성명서 :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3월 17일	시민평화포럼 :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즈음한 입장 :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자
3월 1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미국 국무·국방 장관 한국 방문,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
3월 26일	피해자 일상회복 및 권력형성폭력 없는 부산을 위한 공대위의 입장 : 오거돈 성폭력사건 1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4월 15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국익과 한-미 SOFA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
4월 26일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Defund the Military, Defend People and the Planet!

날 짜	제 목
4월 27일	정의기억연대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2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5월 21일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라!” Press conference statement of women's organiz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U.S. Summit on the occasion of May 24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The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should dismantle the hostile relationship caused by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 the foundation for a lasting peace regime"
5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7월 6일	[기자회견문]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7월 9일	[공동성명]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처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7월 26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7월 27일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8월 11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한다
8월 13일	[기자회견] 이재용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8월 20일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8월 24일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8월 24일	탈핵비상선언문 :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

날 짜	제 목
	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한국 1325 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 공동성명서 Joint Statement of Korea 1325 Network and Women's Civic Groups on Afghanistan
8월 30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여성단체 공동성명 : 여성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9월 3일	공동성명 : 충청남도는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정책을 폐지하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정책에 부처
10월 19일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
10월 21일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 for Korea Peace with Gender Equality
11월 4일	기자회견문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11월 9일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문 : '충분한' 국방예산을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사 용합시다
11월 19일	<대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 성평등 외면하는 퇴행적 대선정국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성차별·성폭력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평등 국가를 만들어 갈 대통령을 원한다!
11월 24일	UAE로 무기 수출과 방산 수출 진흥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분쟁과 고통을 양분 삼아 성장하는 한국의 방산 수출 진흥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 UAE로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중단하라!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맞이하여 한국시민사회단체 국방부 앞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문 :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

[기자회견]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합니다!

국가폭력과 고문, 부당해고, 일터로부터의 배제 35년...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은 정부, 사회,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암이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길을 나섰습니다. 추위가 살을 에는 한겨울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김진숙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김진숙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숙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시민사회는 희망버스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숙의 복직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의 복직 여부는 특정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기업 내부의 노사관계에만 맡겨둘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노동자 김진숙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해온 오래된 폭력과 배제의 질서를 우리는 기필코 바꿀 것입니다.

첫째, 김진숙의 복직은 한 인간의 파괴된 삶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농성으로 표상된 김진숙도 모두와 똑같은 평범한 한 인간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 웃고 우는 인간이고,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한 인간이 공권력에 의해 끌려갔고, 끔찍하게 고문당했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의 가치를 파괴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회복'은 누구도 훼손 할 수 없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 회복'은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소모되고 언제든 버려져도 좋은 부속품이나 소모품이 아닙니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의 헌신이 없다면 기업도 존립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이익도, 더 좋은 세상도, 더 나은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강요와 폭력으로 부서져 버린 노동의 가치,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보다 존엄한 사회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역사적 의식입니다. 광주에서 국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정권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이익제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이 한 일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노조의 공개운영, 생활관과 도시락 개선, 산재 환자의 불이익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스물 다섯 살 김진숙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고문당하고 해고당한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부산시 의회도 김진숙의 해고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김진숙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되고, 고문당하고, 구속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 이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 회복’은 김진숙 개인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김진숙의 복직은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폭력,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다짐의 상징이 될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김진숙처럼 부당하게 해고되고 희생된 노동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노동자 김진숙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은 국가, 사회, 기업 공통의 책무입니다. 단순히 특정기업 내부 노사관계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채권단과(주 채권자인 산업은행) 한진중공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김진숙 노동자의 해고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끌려가고, 고문당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동안의 시간을 한진 중공업은 김진숙 노동자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해고했습니다. 공권력과 기업의 합작에 의해 해고가 자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숙 노동자의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기업을 물론 국가가 이제라도 응분의 책임을 인정하고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들 국책은행은 <IFC(국제금융공사)의 이행지침>, <적도원칙>, <다국적 기업에 대한OECD 가이드라인>등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의 규제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IFC 이행지침과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행동협약”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은 정책상의 의지와 실제 집행과정 모두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기본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들 가이드라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책은행들이 금융을 지원한 기업에서 지난 35년간 지속되어온 반인권, 반노동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눈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그동안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동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지난 35년간 ‘김진숙만은 복직시킬 수 없다’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감내했던 이유도 복직의 정당성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복직을 우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 힘을 모아 그를 복직시켜야합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해당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노동자 김진숙에게 가해졌던 국가 폭력과 부당해고의 굴레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침해된 권리의 회복과 복직을 위해 정부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국민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김진숙 문제'를 특정기업 노사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진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 시장권력 남용의 문제로 정의하고 그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 특히 즉각적인 복직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KDB산업은행과 이동걸 회장은 국책은행이자 채권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책 채권은행으로서 한진중공업에 즉각 노동자 김진숙에 가한 반노동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 김진숙에게 가해진 부당해고와 그 후 35년간의 블랙리스트 지속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응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진중공업에 요구하고 그 여부를 금융지원 등과 연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그리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2021년 1월 5일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연석회의 참가자 명단>

강명숙(민교협 상임의장, 배재대),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고철환(성신학원 이사장), 공미해(경남여성회 대표), 광성근(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대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성연 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금박은주(포항여성회 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희(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김귀옥(한성대), 김기연(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김방희(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순애(부산여성회 공동대표), 김영(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김영식(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원호(사단법인 나라풍물굿 이사장),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익자(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인봉(안양근교의왕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김일규(강원대), 김정범(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 김정연(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제선(한국사회혁신가넷 공동대표), 김준표(춧불교회 대표), 김지석(민중과함께가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학생대표), 김진석(민교협 상임의장, 서울여대), 김학원(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형성(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호규(금속노조 위원장), 김호철(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김희룡(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남기정(민교협 사무처장, 서울대), 남명수(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회장),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두시영(민족미술인협회 회장),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득훈(평화누리 대표), 박래균(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만규(흥사단 이사장), 박명숙(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미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박배균(민교협, 서울대), 박상훈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성희(마창여성노동자회 회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박승렬(ncck인권센터 소장), 박영철(울산인권연대 대표), 박요환(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박주연(민중과함께가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한의사대표),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도(국민총행복포럼 이사장), 방인성(하나누리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춘환(손잡고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이사장), 백승현(전 민변회장), 변연식(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대표), 서선미(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감사), 서정숙(한국민족총협회 이사장), 석영미(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성해용(6월민주포럼대표),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송경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송병구(고난함께 이사장), 신미자(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연대사업 위원장), 신철영(경실련 공동대표), 신희주(민교협, 카톨릭대), 안기석(새언론포럼 대표), 안병옥(호서대 교수),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안중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기석(가톨릭 수원교구생태환경회), 양기환(문화다양성협회 상임이사), 양길승(원진녹색재단 이사장), 양성일(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양한

웅(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오상운(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회장), 오정훈(언론노조 위원장),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우정원(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위대현
 (이화여대), 윤명희(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철
 호(대한출판인협회 회장), 이나영(정의연 이사장), 이단아(형명재단 상임이사), 이덕우(민화운동정신계
 승국민연대 이사장), 이무성(민교협 노동위원장, 광주대 해직),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이사라(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소집권자),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전 환경련 대표), 이영훈(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용관(부산국
 제영화제이사장), 이우원(동학민족통일회 대표),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이은(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
 사장), 이은영(대구여성회 공동대표),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대표), 이
 주형(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이철순(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
 동대표),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해성(블
 랙타파 연극인회의 상임대표), 이현선(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임미정 살루스수녀(한국천주교 여자수도
 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임순례(성평등센터든든센터장), 임옥상(화백),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
 표), 임종대(전 참여연대 대표), 임진택(판소리명창),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임현재(70년대민주
 노동운동동지회 대표), 임형진(천도교종학대학원 원장), 자개오(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나눔의
 집협의회 정책위원장), 장기용(NCCCK정의평화위원장), 장선화(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장수아(천주교정의
 구현전국연합 감사),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민용(전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대화(상지대총장),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현정(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정현창(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회장), 정해실(이주
 민방송MWTV 대표), 조남준(우리만화연대 회장), 조대원(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처장), 조
 병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조영숙(수원여성회대표), 조헌정(예수살기 대표), 조현철(천주
 교 예수회 JPIC위원회 위원장,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 좌세준(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채
 윤희(여성영화인모임대표), 천정환(민교협, 성균관대), 천제욱(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의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최순영(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최연엽(한국순교복자수녀회수원관구
 JPIC위원회 위원장),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최영민(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종관(가톨릭 수원교구정
 의평화위원회), 최형목(한국민중신학회 회장), 한경아(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한기
 명(형명재단 이사장),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한유리(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무국
 장),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허우영(문턱없는한의사회 대표), 혜찬(대한불교조계종 사
 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성국(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170명

<2020년 12월 28일 기자회견 참가 사회원로 >

강내희 광노현 권낙기 권영길 권오현 김금수 김상근 김세균 김승균 김승호 김영호 김정현 김종철 김준
 기 김중배 남상헌 단병호 명진 문규현 문대골 문정현 박석무 박석운 박순희 배은심 백기완 백낙청 백도
 명 성해용 손호철 신경림 신학철 안병욱 안중석 양규현 양길승 염무웅 오세철 유영표 유홍준 이덕우 이
 부영 이수호 이애주 이창복 이해동 임옥상 임재경 임진택 임현영 장남수 장임원 장희익 전민용 정동의
 정재돈 정지영 정현찬 조돈문 조순덕 조헌정 조화순 조희주 주재환 천영세 최갑수 최병모 최열 한승헌
 함세웅 현이섭 홍세화 황석영 (73명, *밑줄친 11명은 위 명단에도 중복)

총 233명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온 겨레의 열망과 세계의 관심 속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좌초할 상황에 직면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70년이면 충분하다”는 종전과 평화를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전 세계가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 전쟁과 대결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담아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있다. 서명과 선언을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하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2021년 한반도 평화의 앞길은 불투명하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보고를 통해 정치·군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화를 제안해왔으나,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아왔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정부의 북미 합의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남,북,미 모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 2021년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군비 경쟁과 상호 위협의 악순환을 끊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한반도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은 전쟁의 위협과 소모적인 대결에서 벗어나 전 세계 시민들과 더불어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한국전쟁 당사국 간의 누적된 불신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강 대 강’의 대결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파국에 이르고 합의 이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동참하고 한반도 종전 평화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기로 다짐한 우리는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남북, 북미 정상이 어렵게 맺은 그동안의 합의를 관련국 모두가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은 한결같이 서로에 대한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라고 확인했다. 합의의 당사자들은 이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둘째, 남북, 북미는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위협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행위

를 중단해야 한다. 군비는 군비를 부르고 무력 시위는 무력 시위를 부른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군사력과 군사비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미국과 남한이 먼저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제재와 압박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하며, 특히 민간의 대화와 교류는 정치·군사적 전제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 등으로 고통이 가중된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민생품목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협력과 신뢰 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과 전쟁의 공포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한반도 주민만은 아니다. 한국전쟁 관련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군사적 수단, 특히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 세계를 휩쓰는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과 자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Korea Peace Appeal) 행동 계획

2021년을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2,969명의 코리아 피스 메이커(Korea Peace Maker)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할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오늘 코리아 피스 메이커 국내 선언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시민 평화선언을 이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씨줄과 날줄을 전 세계로 넓혀갈 것이다.

셋째, 한국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지지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 동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촉구할 것이다.

넷째, 남북, 북미 간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들을 계기로 국제평화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약 240km 휴전선을 평화와 공존, 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평화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특히 전쟁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연대할 것이며, 소모적인 군사비를 줄이고 생명과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

7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동참과 연대를 간절히 마음으로 호소한다.

2021년 1월 1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국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대표단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휴전협정 체결 67년이 된 작년 7월 우리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받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단을 포함하여 360여 개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50여 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세계 시민들이 하루속히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주민들에게 큰 희생과 상처를 주었고, 이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들과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한반도는 냉전 시대 이념과 체제 대결, 군사력 대결의 장이 되었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도 군비 경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주민들은 휴전협정 체제 하에서 전쟁 위협의 언어와 군사 행동이 펼쳐질 때마다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지난 30년 동안 남과 북은 전쟁의 공포와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정부 차원의 한반도 종전 평화를 향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온 세계 구성원들은 기후 위기와 함께 닥쳐온 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에 다방면의 협력을 통한 공존과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무력 충돌과 갈등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자원과 지혜를 동원하여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을 끝내고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취임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70년 한국전쟁을 끝내는 데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상 차원의 북미 대화를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물꼬를 튼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비롯해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까지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남북 합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협력을 통해 신뢰가 구축된다면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가 잘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북미 협상의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 정부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협상 전략의 중심에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던 시기에 협상이 성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과 같은 군사행동은 대화의 문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지구적인 노력과 연결될 때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에서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 형성된 신 냉전적 갈등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미국 정부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희망하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의 자원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5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명예대표

원행(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이흥정(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오도철(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손진우(성균관 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김희중(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원웅(광복회 회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수연(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내 참여 단체 (총 364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남북물류포럼,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단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띠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경계를넘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시민회, 광복회, 교회와사회연구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차길옆작은학교, 끈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인투플러스,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피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시아부, 모병제 시위 본부, 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백두산문인협회, 법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부산참여연대,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꽃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 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미산학교, 소성리사드철폐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성시민연대, 어린이어깨동무, 에너지나눔과 평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동군노인복지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람,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귀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작21작가회, 천도교청년회, 천안KYC,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대연구센터,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민심관철 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루, 통일열차 서포터즈,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 꾸비꾸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피스모모,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제 파트너 단체 (총 54개)

Letter to the US President Joe Biden to Call for Ending the Korean Wa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70 years is enough, End the Korean War, Korea Peace Now

Jan 25, 2021

Dear President Biden,

First of all, we extend our sincere congratulations on your inauguration as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ar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campaign that seeks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to achieve a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year 2020 marked 70 years from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67 years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2020, we launched the Korea Peace Appeal to pursue the demands of civil societies and religious communities

for peace, and began a campaign to collect signatures and declarations of support across the world. The seven major religious orders in Korea and more than 360 civil society groups, as well as 50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have joined this campaign. People around the world including US citizens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end to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has brought great loss and pain to not only the people of the divided peninsula but also US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The unresolved Korean War has left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rontline of confrontations between Cold War regimes and military powers, and ideologies and has been responsible for a continued arms race,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has led to the DPRK'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Under the armistice system,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lived with constant fear of war and threats of destruction as well as endless military exercises.

For the past three decades, the Two Koreas have been working to resolve this military impasse and to eliminate the fear of war. In 2018 for example, the leaders of two Koreas declare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w age of peace had begun. The Singapore Summit, where the leaders of the US and DPRK agreed to create new US-DPRK relationships, offered great promise for the build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our expectations have been disappointed as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ending the war at government level.

Over the past year, people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working hard to deal with the Covid-19 crisis, on top of the climate crisis. We have learned tha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t all levels are essential in overcoming these crises. It is time to stop all armed conflicts and confrontation and instead rely on the pooling of our resources and wisdom through dialogue. More than eve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need a formal end to the War and confidence building to enable peaceful coexistence.

We call on the US President Biden to actively engage in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following:

Firstly, we call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o actively take meaningful steps to end the 70 years of Korean War. We also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move toward establishing new US-DPRK relations and building a lasting peace regime and achieving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nd of long-lasting hostile relationship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be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well. We hop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engage in talks and negotiate with the DPRK at the summit level to achieve a peace regime and the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We hope that President Biden will be both determined and persistent in ending the Korean War so that 2021 will be remembered as the beginning of peace with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on the Peninsula.

Secondly, we hope for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ensure that inter-Korean agreements are respected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an be implemented.

The two Koreas have already made strides in inter-Korean agreements for peace and shared prosperity, such as, the June 15th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t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t the summits in 2018. Confidence building based on inter-Korea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promote achieving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We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actively cooperate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to establish peace on the Peninsula.

Thirdly, we hope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abandon sanctions and pressures, and continue negotiations with the DPRK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hen we look back at the history of the US-DPRK negotiations, flexibility, dialogue and cooperation have led to positive results, whilst sanctions and pressure generally stalemated negotiations. Military activities such as large-scale joint exercises are not conducive to sustained dialogue, as they create tension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Peninsula.

Fourthly, we call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promote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We believe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uccessfully achieved where it combined with global efforts towards world denuclearization. We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how leadership to sign and ratify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Fifthly, we hop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make efforts to establish a

common peace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The new Cold War conflicts of the great powers in Northeast Asia would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world and endanger peace and people's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fundamentally. We hop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 new peace order in Northeast Asia, which will help create a global environment for peace on the Peninsula.

We want peace, and we hope the world and the Korean Peninsula can be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 Our goal is a break from the vicious cycle of the arms race and invest instead in our peaceful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e hope that President Biden responds to our request for ending the Korean war and achieving peace.

70 years is enough. Let us move from armistice to peace. Let us end the Korean War now.

Sincerely,

Korea Peace Appeal Campaign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합니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마침내 한국 법원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 호소하며 30년간 전 세계를 누빈 피해자들에게 정의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뿐 아니라 법적 지위가 취약한 무력분쟁 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의 길까지 여는 의미있는 판결로, 국제인권법적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은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물론이고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맞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도 피해자들의 권리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한일합의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30년을 싸워 이뤄낸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2015 한일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 또한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발언과 상반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외교부 장관 발표를 통해 ‘2015 한일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 반환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피해자들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에서는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발언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기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 그동안 말해왔던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았는지 그 발언의 진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으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를 조직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심지어 불법감점과 강제동원, 체계적 성노예제 자체를 부인하며 역사 지우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것이 ‘2015 한일합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더 이상 전 세계를 향해 거짓을 말하지 말고 반복할 수 없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인권’이라는 최고의 보편 가치를 파괴한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백년 천년을 넘게 사죄한다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일본은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고 지금까지 세계 시민들이 요구해 온 범죄 인정, 공식 사죄, 진상 규명, 미래세대 교육에 적극 나서므로써 부디 마지막 남은 문제 해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올해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자임을 밝힌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서 전 세계에 호소함으로써 정의 실현을 위한 길을 닦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다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공식 합의’라고 한 근거와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
- 한국 정부는 적극적 대일외교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실현하라.
-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라!
-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공식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현실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길에 동참하라.

2021. 1. 27.

한국(76)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남본부,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창원시지부,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겨레하나, 겨레하나유보연대회의, 경기민족국연합 수원지부, 광주여성회,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반성 폭력센터, 기독교민회, 김포평화나비, 나눔의 집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남해여성회, 대순교육공동체, 대학생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두레방شط터,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서울노동광장,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수원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평화나비, 순천평화나비 인권 강사단, 안양나눔여성회, 안양 시장장애인인권센터,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나비, 여수진보연대, 여수평화나비,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이천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성시민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평화의 소녀상 연대,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진보당,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나비 대전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여교역자회, 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해아라 경기지부, 햇살사회복지회, 흥사단
독일(2) German East Asia Mission, Korea Verband(코리아협회)

말레이시아(1) Alternatives of Violence Project Malaysia

미국(5) Alpha-LA,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사회정의교육재단), Houston HAMB

(함께맞는비@휴스턴/샌안토니오/오스틴/노르웨이), KAN-WIN(시카고 여성햇라인), Washington DC Butterfly for Hope(워싱턴 희망나비)

일본(14) china shanxi group for uncovering the facts, Hiroshima Network for the Solution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Japan Network against Wartime Sexual Violence(전시성폭력문제연락협의회), Japanese Committee for Filipino 'Comfort Women', Kansai Network for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The network of Hokkaido for knowing the past and the present,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WAM), 로라넷, 女性参政權を活かす会, 日本軍慰安婦問題を記憶継承する会(일본군'위안부'문제를 기억 계승하는 모임), 일한민중연대위원회,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中国人「慰安婦」裁判を支援する会

캐나다(3) B.C. ALPHA, B.C.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ALPHA), Calgary Association of the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WWII

프랑스(1) Le Chemin Fleuri

호주(2) Melbourne 'Comfort Women' Memorial TaskForce(멜번 소녀상 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우 도발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전쟁 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진정한 북미 대화를 열어낼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70년 한국 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 세계가 직면한 핵없는 세계,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고 한반도 외의 미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쟁 연습의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촉발해왔습니다.

과거 연합훈련의 경우 핵무장이 가능한 B-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된 바 있고, 장거리 포를 비롯한 여러 무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연습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 지우며, 한국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역 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 환경,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보건 의료와 지속가능한 환경 등 진정한 인간 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들을 전용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쟁 연습으로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수백만의 희생을 불러올 참사인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우리는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 갈등의 근본 원인인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해결하는 데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위험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되는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헤어진 수십만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해온 정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70년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외교를 재개하여, 궁극에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2021년 1월 28일

미국 단체 (총 110개) 한국 단체 (총 197개)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여성단체 성명서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2월 14일(일), 설 연휴 마지막 날 "한미연합군련 실시 3월 조율 중"이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와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 워싱턴의 싱크 탱크 등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벌써 71년이나 지나도록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두려움을 안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늘 밤에도 싸운다”(Ready to fly tonight)는 모토로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 준비 훈련이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과 워싱턴의 싱크탱크 인사들이 강조한바 “준비 태세”는 오늘 밤이라도 전투기를 날려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본질이다. 여기에 공격과 대응공격, 폭격과 대응폭격으로 치명적인 피해와 파괴를 겪어야 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대신 중단된 “평화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 개선의 작은 기회조차 차단할 것이다. 북의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이 훈련이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기 위해 필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훈련이며 동시에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최대 규모의 무기를 동원하고 참수 작전 등 지휘부 제거와 점령을 상정한 훈련이 방어적 훈련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북미 협상은 적대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정이 필요하다. 북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 규정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미의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의 여성들은 70년 넘게 이어지는 전쟁의 비극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전쟁 준비 훈련과 무기도입, 군비경쟁을 통한 안보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비극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전쟁 준비 태세가 아니라 불신을 신뢰로 전환시키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평화적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오직 평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반도 내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2021년 2월 22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성공회전국여성성직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서]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을 맞아 여성혐오와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역사부정 세력을 규탄하며, 젠더정의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 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지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시작된 이후 여성들은 참정권과 노동권은 물론 사회 곳곳의 성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날로 기념하게 되었다.

2021년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를 외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 김학순이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용어조차 낯선 시절, 성착취와 여성살해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 피해자중심적 접근이란 개념조차 없는 시절, 당당한 태도로 증언하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고, 가해자의 책임을 물으며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

김학순의 용기는 한반도를 넘어 지구 곳곳에 공명되어 무력분쟁 하에서 고통받는 여성들과 일상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젠더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세계시민들의 연대를 이루어 냈다. 그렇게 30여년의 외침이 쌓여 일본군성노예제가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라는 국제적 인식이 형성되고 가해자는 공식사죄하고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는 국제적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가해자 일본의 사실인정과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과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적 정의가 지연되는 사이 역사수정론자들과 역사부정론자들에 의한 사실왜곡과 피해자 명예훼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는 ‘매춘부’라거나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당연했다는 식의 극악한 논리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설파되고 있다.

우리는 일제에 의한 근대 공창제가 본질적으로 성폭력과 인신매매, 노예제였다는 사실을 외면한 체, 전시성폭력과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가해자의 논리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일본 정부의 모든 시도를 규탄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왜곡하고 성폭력과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연구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등과 정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평화가 여성의 얼굴을 하게 될 그 날을 위해, 전시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의 보편성 회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외칠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와 역사부정 세력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3월 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겨레하나/경기광주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경기여성단체연합/관악여성회/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 평화의소녀상/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군포여성민우회/그십자가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여민회/기지촌여성인권연대/김포 평화나비/나눔의 집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노후희망유니온/다른세상을향한연대/당진어울림여성회/당진청고래/대안문화연대/대한성공회 여성성직자회/동학실천시민행동/동해평화나비 초록/두레방/부산민주일반노조/사회정의교육재단(미국)/새가정/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서산평화의소녀상 보존회/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모모이/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인권 돌음/수원여성회/수원 일하는여성회/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수원평화나비/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호주)/씨알여성회/여성교회/열린여성/울산여성회/워싱턴희망나비(미국)/이주민노동인권센터/이화여대민주동우회/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위한 부산여성행동/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충남지부/전국여성연대/제주녹색당/천안여성회/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탐정들의 밤/평화나비네트 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비경기연대/평화어머니회/프로그레시브코리아(독일)/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학자협의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한소울장애인지원센터/함께맞는비@휴스턴_샌안토니오_오스틴_노르웨이(미국)/햇살사회복지회/화성YMCA/화성아이쿱생협/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KYBA대한불교청년회 여성위원회/S.P.Ring세계시민연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 활동가)(연명단체 가나다순/정의연 포함 총 82단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

여성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반대한다.

지난 3월 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외교부는 이 타결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 자평하였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지되는 다년도 협정이며, ② 2020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 2021년은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며, ③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정한 점 등이다. 여성들은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번 합의가 전혀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로 반대한다.

첫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하다.” 원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5조에 의하면,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부터 특별협정(SMA:Spea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한국이 미국 부담 몫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한국 부담이 추가된 것이다.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애당초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주둔경비를 벌써 30년째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 1991년 1,073억 원이었던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30년이 흘러 지금은 그 10배가 넘는 1조 원 이상을 부담하였다.

<https://www.index.go.kr/.../selectPoSttsIdxSearch.do...>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 중 가장 큰 충격은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인상률은 대체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는 1.3% 상승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11일자 참조.) 한국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연평균 약 6.1%씩 증액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2025년까지 2021년에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기준으로 매년 6%씩 증액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특별협정’이 아니며,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연례화 혹은 정례화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어찌 이에 대해 합리적이라 외교부가 자평할 수 있는가?

둘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하다. 이미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공평한 분담”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 한국정부는 현금 부담과 같은 직접 비용뿐 아니라 각종 간접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또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 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3조 원 이상을 매년 미군에게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

경오염 정화비 등까지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무려 3조 1,500억 원(환경오염 정화에 향후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에 달한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료 참조.)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했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국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연합뉴스' 2016년 3월 28일 참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28일 간접적으로 반박하며 한 말.) 미국 내 보수적 언론으로 알려진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직접 비용뿐 아니라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부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도 보도한 적이 있을 정도다.('연합뉴스' 2018년 5월 14일자 참조.) 따라서 “공평한 부담”이란 평가는 말도 안된다.

셋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 거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미한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The proposed agreement reaffirms that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nd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region)이라 의미를 부여했다.('VOA 뉴스' 2021년 3월 9일자 참조.)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길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남북의 상호군축, 적대적 행위 중단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대화와 협상의 지속, 이를 통한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평화로운 동북아 형성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조건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단순히 한국 내 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궁극적으로 대결과 갈등, 그리고 반목으로 이어질 반평화적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중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군비 증강은 대결 구도를 더 강화할 것이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만큼이나 미군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이번 결정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멀어지는 합의이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평화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 가서명을 비롯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절차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이번 합의를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내일(3월 17일) 미국의 국무부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 방한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밝혔다. 오늘(3월 16일) 오전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여성들 역시 이번 합의안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코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여성들의 요구이다.

2021년 3월 16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64개 여성단체들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광주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성남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이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택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희망세상일구는구로여성회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 정부의 출현을 좌초시켰다. 군부는 지금까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저항과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대적인 유혈사태가 초래되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폭력과 살상 가운데서도 용기를 지니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저항과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은 유엔과 국제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호소하고 있고, 유엔이 미얀마 군부를 테러집단으로 지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쿠데타가 발발한 바로 다음 날인 2월 2일 71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과 연대를 밝히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얀마 군부에게 쿠데타의 종료, 선거로 뽑힌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 2020년 11월의 총선 결과에 대한 존중과 민간정부 정권 이양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유엔, 각국 정부에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였다.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과 자유를 위한 운동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계시민운동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깨달았듯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집단 지혜를 모아 지구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존중하는 전지구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군부의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항거와 투쟁의 현장에서 그 무엇도 저지할 수 없는 용기를 지니고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얀마 여성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미얀마 민주주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뜻을 함께하며 특별히 전쟁, 내전, 군부 독재가 초래하는 성폭력과 군사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과 소녀들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 군부에게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에게 미얀마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끄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대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미얀마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이양과 여성들의 저항과 투쟁을 지지하는 한국의 여성단체들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대전여성, 고양YWCA,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

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성공회 여성성직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가정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녹색당여성주의모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YWCA,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씨알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앤의 친구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평화외교포럼, 열린 여성,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오나학교, 전문직여성BPW한국연맹춘천클럽,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 효재(구.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성폭력상담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함께크는여성올림

그 외 지지 단체들

뉴코리아, 몸꿈춤공간, 물댄동산교회, 미디어협동조합 청어,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f결,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바다의별어린이집(풍동), 사람과평화, 산돌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문밖교회, 송광영.천세용열사기념사업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누리평화운동, 이은교회, 이음교육협동조합, 청소년희망플랫폼, 평화바람, (사)평화통일연대, 한국기독교장로회서울제일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한빛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한빛교회남신도회 바울회, 한국소매택연구교육원, Asian Re, K소매틱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즈음한 입장 :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자

오늘(3/17)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방한하고, 내일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가서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한국군의 역내 역할 강화 등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대결은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상충한다. 맹목적이고 관성적인 한미 군사동맹 의존은 원치 않는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방한 중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일 타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안은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과 인상률 연동 등 최악의 합의이며, 트럼프 정부의 50% 인상 요구를 결국 실현한 안이다. 전작권 환수 등을 이유로 국방비를 인상하면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다시 주한미군 주둔 지원도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SOFA 협정에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방위비분담금을,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매년 증액해야 할 이유를 더이상 찾을 수 없다. 예정된 가서명은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면 국회는 이번 협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은 즉시 환수되어야 하며, 그 어떤 조건도 환수 연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을 명분으로 전력 증강을 지속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으나, 정작 이번 연합군사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안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진행되지도 못했다. 전작권 환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조건 충족의 문제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그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을 조건 충족의 문제로 엮지 말고 즉각 환수해야 한다.

셋째, 사드를 매개로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미사일방어청(MDA)이 세 가지 특정 능력(specific capabilities)을 개발 중”이며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설치되어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합동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라 사드 발사대와 포대 분리 및 원격 조정, 사드와 패트리엇 통합 운용 등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왔다. ‘임시 배치’ 상태일 뿐인 사드 기지는 공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MD 능

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할 뿐이다. 사드를 철거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넷째,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향한 한국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이 대중국 군사행동에 동원될 가능성, 쿼드 플러스(Quad Plus) 등의 형식으로 쿼드에 동참하거나 그 하위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대결의 심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관계 개선과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분쟁의 군사적 해결이나 무력 시위에 반대하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국 군사협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2+2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여러 정책 결정과 협의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맹목적인 한미동맹 의존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 위기 등으로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낡은 냉전 질서를 넘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자유언론실천재단,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미국 국무·국방 장관 한국 방문,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국무·국방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16일부터 18일까지 순방한다.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해외 방문이다. 우리는 이번 방한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지역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두 장관의 방일, 방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행보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하고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 태세를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맺은 동맹을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s)’라고 표현하고 ‘힘을 모아야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더욱 강력하게 맞설 수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교착 상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거나,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 구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2일 개최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Quad)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비롯되는 도전 과제들’은 다루었지만,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역내 평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양자 군사동맹과 한-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한-미-일의 대중국 군사 대결 태세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군사적 역지력 강화에 의존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도 이룰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 이를 위해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장과 역내 군사적 역할 강화는 동아시아 전후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일본 평화헌법 9조, ‘전쟁을 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합의에 반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전환, 이를 위한 남한의 군비 증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충돌한다. 남북 간 상호 위협 감소와 단계적 군축에 역행할뿐더러, 핵 포기를 요구 받는 북한에게 달리 감당할 수 없는 군비 경쟁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축으로 하는 역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논리로 ‘법치, 항행 및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적 온전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앞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Quad)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어느 하나도 군사적 수단과 압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그 밖의 관련 당사국들이 벌이는 무력 시위가 문제 해결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는 전혀 없다. 도리어 강대국 간의 패권적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지역 내 군사 충돌 위협을 높이고 있다. 반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 대화는 무관심 속에 교착되고 있어,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남중국해 등 분쟁 수역에서 시도되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은 새로운 냉전적 대결 질서의 한편에 서는 대신, 지난 70년 넘게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협력의 질서가 형성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지난 1월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 형성된 신 냉전적 갈등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에서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 줄 것”도 요청했다.

두 장관의 이번 한국, 일본 방문은 시대착오적인 낡은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하고 분쟁과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한-미-일 정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의 개선, 미중 관계와 역내 다자간 협력관계의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아시아 평화 협력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전시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평화여성회 연명)

오거돈 성폭력사건 1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 일상회복 및 권력형성폭력 없는 부산을 위한 공대위의 입장

오거돈성폭력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간다. 오거돈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였다. 지난 1년 우리는 오거돈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 언론은 본질을 비껴간 온갖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였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나 수많은 악성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정치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오거돈의 행위에 대해, 소속정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정치권 내부의 성평등 인식의 부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하였으나 각 정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정쟁화시키기에 급급하였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안전보장과 일상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지원자에 대한 압박이 지속 되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조사라는 명목으로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내용까지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면서 기소를 지연하였고, 법원도 오거돈에 대한 구속수사를 두 번이나 기각함으로써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한몫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는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곳곳이 활동을 지속해 왔다. 부산시청에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하였고,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삭제 요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엄중히 대응했다. 오거돈에 대한 구속이 기각되고 기소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검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국적인 탄원서 조직 등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드디어 8개월 만에 오거돈은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잡힌 첫 공판도 보궐선거 뒤로 재판을 연기하며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오거돈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장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등 보통사람은 한 사람도 선임하기 어려운 변호사를 9명이나 선임하며 인정하지만 기억이 안난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제라도 겸허히 본인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호화변호인단 선임을 취소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한 선거임을 잊지말아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에 두 후보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우리는 후보들의 사과와 응답에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후보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기나긴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위는 피해자에게는 일상이, 가해자에게는 엄벌이 돌아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더불어 오늘 부산시민 앞에 엄숙히 서약 할 두 부산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약속한 모든 것이 이후 실제 시정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감시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성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3월 26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익과 한-미 SOFA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①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한다. ② 2021년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을 미국에 지불한다. ③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한국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분담금 액수를 올린다. 이상 내용으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으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정 공백기'였기 때문이며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으로 합의됐다.

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였으며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과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2021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가 인상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만 반영되고 한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며 국회는 그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첫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처음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미국이 1991년부터 불법부당하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한미 SOFA 제 5조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규정 위반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핵심 목적이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의 임무가 전면 변화된 주한미군의 대중봉쇄를 위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이기에 주한미군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하여 신속기동군으로 역외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셋째,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불법 전용과 불법 집행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주일미군 항공기 등 해외미군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 소파(SOFA)나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또한 국회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제도개선 내용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불가, 주한미군 경비 전액 부담 금지,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회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 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

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부담 금지,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폐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은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대중국전략, 대아시아전략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북적대, 대중압박의 발진기지로 한반도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다섯째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역대 최고의 증액을 보장함으로써, 11차 특별협정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 갈취와 한국의 퍼주기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협정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제 공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넘어왔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분노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협정의 비준동의를 결연히 거부할 것을, 우리는 엄숙하게 요구한다.

2021년 4월 15일

427시대연구원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 (사)통일의길 / (사)평화철도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개헌민회 / 겨레의길 민족광장 / 국민주권2030 포럼 / 귀농사모 / 남북상생통일총남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동학마당사람들 / 민주노총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서울진보연대 / 아나키스트의열단 / 아힘사공동체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주권자전국회의 /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 평택평화센터 / 평택평화시민행동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어머니회 / 평화재향군인회 /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겨레주주단 일동 / 한국귀농인협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한국시민연대 / 한국신학대학 민주화운동 동지회 / 한국역사영토재단 / 한국진보연대 (42개 단체)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Defund the Military, Defend People and the Planet!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억 4천만 명, 사망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재난과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심각한 위협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진 산불, 폭염, 장마, 가뭄은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매년 치솟는 군사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4/26)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9,8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6.7%씩 증가해온 국방비는 2021년 52조 8,401억 원에 달합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해왔으나 정작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동안,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책정했지만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예산은 약 9조원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나 소득 감소, 고용 위기, 돌봄과 교육 공백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3년 전 평화의 봄을 기억합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늘려왔습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의 증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은 남북한 군비경쟁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한다면 국방비 증액부터 중단하고 남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단계적 군축' 합의의 이행이야말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군비 증강이 아닌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합시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합시다. 남북이 어렵게 맺은 '단계적 군축'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021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전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군사비 삭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투자하자!

2021년 4월 26일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사단법인 개척자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비교사 기후정의 모임, 전쟁없는세상, 진보당 기후정의 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피스모모,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연대성명]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그 절실한 호소를 짓밟은 이번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재판의 원고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전히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면제라는 논리 뒤에 숨어 시종일관 한국을 비난하며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일본국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무너뜨린 반인권적 판결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에 묻는다. 국가는 그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된다는 것인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 아니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뒤집으며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스스로 퇴행시켰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심대한 범죄행위마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하고, 주권면제를 적용해 전시 성폭력을 묵인하는 반인권적·반평화적 판결을 감행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번 재판부가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걸쳐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군다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이면합의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데는 참담함을 느낀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다.

‘2015 한일합의’ 무효, 평화의소녀상 철거 반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반대하며 함께 해온 우리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는 협소하고 퇴행적인 국제 관습법에 대한 해석을 방패삼아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피해자 인권을 외면한 이번 판결과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일본정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한 적극적 책임추궁과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라!

2021년 4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및 연명 단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9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9명으로 이 중 63명이 어린이/청소년이다. 부상자는 1,6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서 국경 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마스의 통첩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국경의 도로를 봉쇄하고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군사 훈련을 중단하며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그리고는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없는 국경 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 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 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이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 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 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 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 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60여 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 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 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 인권단체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700만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포괄하는 적절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떨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 점령을 도외시한 채, “특히 가자지구로부터의 무차별적 로켓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책임을 팔레스타인 측에 묻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가 종식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160개 한국시민사회단체

(사)개척자들, (사)우리누리평화운동, 강정 국제팀, 강정평화네트워크, 갤러리 포도나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경계를넘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공동행동(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난곡사랑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지회(초등·중등·사립), 봉천동나눔의집, 푸른공동체 살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여성회,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관악평화철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참소중한"),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화문서림, 국제가톨릭형제회 AFI, 국제민주연대, 극단 고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후정의포럼, 김찬국기념사업회,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이랑북이랑,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이애나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노원·성북·인천·봉천동·수원·포천·용산·동두천·춘천),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더불어꿈협동조합, 동도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두번째테제, 마감마녀들, 무지개신학교, 무지개장신, 문화나눔다가치, 문화사회연구소, 민주묘총 중앙대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

는 사람들, 비영리민간단체한바라기, 빌리카터, 사단법인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새민족교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문밖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성인권센터 작은차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계시민선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요평화모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얼굴있는거래,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문회, 연세민주동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원불교평화행동,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노사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작은따옴표, 장수YMCA, 재)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전교조 관동지회,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교육마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팔레스타인 평화를 지지하는 학생모임, 진보3.0,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큐앤아이, 탐정들의 밤, 트랜스해방전선,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어머니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제주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 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Justice, Peace, & Integrity of Creation),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한청협동지회,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인문공화국>, DxE 야생동물소모임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라!”

오는 5월 21일(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100일에 즈음하여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한반도가 다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긴장과 불안으로 되돌아갈지 가늠할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과 세계의 여성단체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바라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미정상은 2018년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 도달한 선언과 합의, 즉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남북 사이에, 그리고 북미 사이에 신뢰가 거의 없다. 신뢰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한미정상은 신뢰를 쌓고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남북관계 재개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합의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둘째, 최근에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안할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굴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대화의 원칙을 표명했다. 대화의 악순환도 선순환도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동시에 공식으로 남아있는 대북정책특사를 조속히 임명하여 대북대화를 실질적으로 전개하기 바란다.

셋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미관계의 현재와 미래는 양국의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공존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는 지역의 평화와 함께 가야 하는 구조적 성격이 있다. 미중 경쟁과 신냉전 출현에 대한 우려가 깊은 이때에, 사드 배치 공식화나 새로운 무기 체계의 한국 배치와 같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여성들은 감염병 확산과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미정상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 가치는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전쟁 후 지금까지 70년 이상 지속된 군사적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신뢰에 기초한 북미관계의 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북미관계의 정상화, 대북 제재의 해소와 한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이 염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입장 발표 연명 여성단체들(가나다순)

6.15남측여성본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의전화,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양산여성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장진시민모임, 전국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성연,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함안여성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Endorsed by: (국외 지지하는 여성운동단체)

Global Partnership Program - The United Church of Canada
Hawai'i Peace and Justice
International Women's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Veterans For Peace Chapter 113-Hawai'i
Women Cross DMZ
Women for Genuine Security

Press conference statement of women's organiz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U.S. Summit on the occasion of May 24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The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should dismantle the hostile relationship caused by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 the foundation for a lasting peace regime."

The ROK(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summit in Washington D.C. on May 21, 2021. A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review on the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policy, the summit will be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Korea Peace process whether to make meaningful progress or to roll back to the past of tension and anxiety under the situation that President Moon's term remains one year.

women'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would like to express our demands for the summit as follows.

First, the presidents of the ROK and the U.S. should come up with specific measures to implement agreements in 2018 such as the Panmunjom Decla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April, and the U.S.-DPRK joint statement in Singapore in June. Since there is little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t needs that trust building starts with mutual understanding. The presidents of the ROK and the U.S. should take the first step of withdrawing their hostile policy on the DPRK, which the DPRK has demanded. Suspending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in August can play a role of a meaningful point for resuming talks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malizing the DPRK-U.S. relations.

Second, the U.S. recently explained that their DPRK policy would pursue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he ROK-U.S. summit should serve as a venue for developing initiatives for peace that the U.S. will propose to the DPRK. The DPRK stated their principle of power for power and goodwill for goodwill. Considering the DPRK's position that a vicious and virtuous cycle of dialogue is possible, the U.S. should open the door to unconditional dialogue rather than presenting conditions for dialogue with the DPRK. At the same time, President Biden should appoint a special envoy for the DPRK policy which remains vacant as soon as possible and develop the practical dialogue.

Third, we hope that the two leaders discus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relationship but also how to contribute to co-existence and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at the summit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ROK-US relatio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a structural nature that must go with peace in the region. At a time when there is a lot of concern about the U.S.-China competition and possible rising of the new Cold War era, we hope that there will not be a decision to set off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such as formularization of the THAAD deployment or deployment of new weapons systems in South Korea.

We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coexistence amid the COVID-19 situation and the climate crisis. The priority values that the summit of the ROK and the U.S. should pursue are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a consensus should be formed on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and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instead of the military confrontation and conflicts that have lasted more than seventy years since the

Korean War.

In this sense, we hope that the ROK-U.S. summit will develop a way to start the U.S.-DPRK relations based on trust and pave the way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normalization of the DPRK-U.S. relations, relief of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lasting peace regime for people on the peninsula.

May. 20, 2021

Signed:

A network of parents who act, Ansan Women Workers Committee, Anseong Women's Association, Anyang Sharing Women's Association, Anyang Women's Hot-Line, Bucheon Women's Hot-Line, Bundang Women's Association, Busan Women's Association, Bu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Center for Women & Politics, Changwon Women's Association, Cheonan Women's Association, Corporation Korean Unification Women's Council, Daegu Women's Association, Daegu-Kyungbook Women's Association United, Dangjin Eoulim Women's, Four Thousand Women's Association, Gender Equality Training Platform, Goyang Women's Link, Gwangju Women's Association, Gyeonggi Gwangju Women's Association,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Gyeonggi-do Women's Solidarity, Gyeongnam United, Gyeongnam Women's Solidarity, Haman Women's Association, Hanam Women's Association, Hwaseong Women's Association, Icheon Women's Association, INCHEON WOMEN WORKERS' ASSOCIATION, JEJU WOMEN'S ASSOCIATION, Jinhae Women's Association, Jinju Women's Association, KIDOKYOMINHOE, Korea Church Women United,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Korea Women's Movement for Pea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Korean Hanbumo Association, Korean Methodist Women's Leadership Institut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WSI, Masan Changwon Jinhae Civil Assembly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Namhae Women's Association, Namyangju Women's Association, National Federation of Women's Peasants., National Women's Farmers' Association, National YWCA of Korea, Paju Women Link, PEACEWIND, Phwomen's Association, Pyeongtaek Women's Association, Seogwipo Women's Association, Seongnam Women's Association,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Seoul Women's Solidarity (Jun), Solidarity for USAFIK Women's Human Rights, South Gyeongsang Province Branch of the National Unregular School Workers' Union, Suwon Women Workers' Association, SUWON WOMEN'S ASSOCIATION, SUWON WOMEN'S HOT-LINE, Suwon Working Women's Association,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Women'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Ulsan Women's Association, ULSAN-WOMEN, Women Making Peace, Women's Division of South Committee for the Realization of the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Women's Forum for Peace & Diplomacy, Yangsan Women's Association, Yongin Women's Association

Endorsed:

Global Partnership Program - The United Church of Canada
Hawai'i Peace and Justice
International Women's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Veterans For Peace Chapter 113-Hawai'i
Women Cross DMZ
Women for Genuine Security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지난 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사위는 여태까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나몰라라하는 사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어느 사회 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인 여성노동자는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어느 프리랜서 직장인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게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재보궐 선거 전후로 정치권에서 성평등 이슈는 삭제되고 차별·평등에 관한 담론은 심각하게 후퇴하는 등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두고 보지 않기 위해, 국회를 움직일 힘을 모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성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우리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여성이자 노동자로,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여성이자 양육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존재하는 우리는 제도부터 일상까지 스며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왔고, 이겨왔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낙태죄를 폐지했다. 2021년,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10만 행동에 돌입한다. 10만 행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넘어 법 제정까지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 10만 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5월 26일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짓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술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공동성명]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처

7월 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 또한 “대선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라며 이에 가세하였다.

“여가부가 그동안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 유 전 의원의 발언이나,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2030 세대에서 벌어지는 갈등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실재하는 성차별구조를 무시한 채 차별의 문제를 단순한 여성과 남성 양자 간 갈등으로 이해하는 몰지각의 소치다. 특히,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을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한 한국형 ‘지아이빌’ 도입에 쓰겠다”는 유 전 의원의 공약은 여성 인권과 의무복무 남성의 권리를 대립·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묵은 ‘갈등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확대재생산한다.

이는 갈등을 조장하고 이에 기생하여 정치적 이익을 편취코자 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의무복무 남성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시한다면, 왜 독자적인 지원체계의 구축과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부수적으로 언급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올해 발표된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 / 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해 발표)’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무조건적 폐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 배분 등 개선 방안을 먼저 고민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타부처의 업무 간 중복이 있다면 어떻게 부처 간 원활한 협업과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직을 폐쇄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조직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어온 국민의힘식 쇄신의 무책임을 반복할 수는 없다.

한편 유 전 의원이 제시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에 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문·조정기관으로서 위원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 추진체계와 실무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있었음에도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된 데에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이 이미 깔려 있다. 성차별 문제 해결에 있어 이미 구축된 집행체계를 폐지하고 한계적인 자

문조식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한국 사회가 여성 인권과 성평등 문제에 대응해 온 역사와 성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의 상황은 경제와 노동, 주거, 돌봄과 같은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상존하던 부정의를 드러냈다. 경제적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고용상황은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들은 과로와 산재의 위험 속에서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젠더폭력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돌봄 위기 속에서 돌봄 영역에 배치된 이들은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의의 상당 부분은 뿌리 깊은 성차별에 근거하는 것이다. 차별 해소와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 시점에,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 공약으로 응답하기보다 여성가족부라는 희생양 던지기를 선택하는 저열하고 무능한 정치는 이제 더는 설 자리가 없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토록 하는 토론과 정치의 장이다. 대통령 후보는 이 같은 상상의 저변을 넓히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과연 여성가족부 존폐가 전환기 우리 사회의 여러 시급한 현안을 제치고 먼저 제시되어야 할 의제였는지 의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 대선주자는,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로서 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선 성찰해야 할 것이다.

허구적인 '젠더 갈등' 프레임을 양산하면서 여성가족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보다, 젠더 차별 철폐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성평등 추진 부처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분명히 공약하여 제 할 일을 하라.

2021년 7월 9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군산여성의전화, 녹색교통운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새움터, (사)한국여성연구소,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정부는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에 반한다. 한미 정상도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교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도발적이지자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작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전계획 5015 등에 바탕한 훈련의 성격이 그대로라면, 이는 신뢰 구축과 대화를 방해할 뿐이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얽매어 전작권 환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는 검증에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은 조건에 상관 없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북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 응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난이 겹쳐 북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착 상태를 돌파할 열쇠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겐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주변 정세와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대화

와 협상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하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고, 언론의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에 받고 있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멸절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내어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 총수들은 또 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짓값을 다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 7. 6.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입니다. 1953년 정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8년간 포성없는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오랜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대결은 끊이지 않았으며, 분단과 적대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전쟁의 위협뿐 아니라 적대 이념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은 여전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전 68년의 현주소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렵게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멈춰선 한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멈춰선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북미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맺은 남북의 합의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군축을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대화는 멈춰 섰습니다. 종전과 함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던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선 한반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헌과 재무장도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냉전에로의 회귀가 아니라 남북의 화해, 한반도 평화에 있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가 공히 공유하고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이행에 답이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선언이행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입구를 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018년, 상대방을 적대하지 않는 일로부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시작된 남북,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시험 유예를 선언했으며,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까지 이끌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그 훈련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 훈련이자,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하는 체제전복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축소한다 한들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신뢰가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한미, 한미일간 대북정책 협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적대를 철회하고 신뢰의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지금 신뢰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각계 대표들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와 절실한 바람을 담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정전협정 68년을 맞는 7월 27일부터 광복 76주년 8.15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1년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늘의 결단과 행동이 희망찬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사)겨레하나, (사)국민통합비전(피스코리아),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열린포럼,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평화철도, (사)평화통일연대,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하나누리, 과기정통부공무원노동조합, 광복회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노동희망발전소, 대한도덕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민중민주당, 벽을문으로!2021평화통일시민회의준비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시민평화포럼,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유라시아평화의길,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중행동(준), 전국국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소명,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시민연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6.15청년학생본부, 6.15학술본부, 6.15여성본부,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기중부분부, 6.15경남본부, 6.15광주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8.15서울추진위 [83개 단체]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68년 전 오늘, 한반도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한반도 내 대결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10%를 국방예산에 투자하고 일 년에 수차례씩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전쟁의 종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 진행된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고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래된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70년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도 우리의 관계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발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아직 평화를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으로 이제는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화와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북을 적으로 규정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전쟁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것이 북에 대한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선제 공격 훈련임과 동시에 북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진행된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해 북은 핵 실험을 유예했습니다. 이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침내 전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7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남여성연대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대한불교조계종불교여성개발원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수원여성회 /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 진보당 여성엄마당 / 울산여성회 / 원불교여성회 / 인천여성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정의당 여성위원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YWCA연합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 전국연합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민우회 / 정의기억연대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정상연합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우리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8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함을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 왔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이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여 보건과 복지에 투입할 ‘비상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나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더욱이 이번 협정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의 다년도 협정으로 현재 국방비 증가율(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 트럼프 정부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50% 인상안과 다름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우선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 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 (본예산기준)인 것과는 비교된다.

2021년도 인상률의 근거로 제시된 한국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률은 분담금 총액에서 오히려 감액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부분은 문제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도 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라 주장하지만 협정 미체결 상태에서 선집행된 7,451억 원 중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미 계상 문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5년 간 ‘자동 인상’이라는 결박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이다.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바뀌야 한다. 국방전문가들도 지적하듯 현재의 총액형 분담구조를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바꾸야 통제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 미집행액의 환수문제, 역외 미군(주일미군)의 정비지원 문제 등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지금까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도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와 함께 연동되어 있는 과도한 국방비 증대 문제, 미국산 무기도입 확대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의 필요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 하면 연 3조가 넘는다.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과거의 비준동의 과정처럼 국회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정인지를 살펴 문제가 있다면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라!

2021년 8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겨레하나,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대구여성회, (사)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평화철도, 가짜UNC해체실행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남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한도덕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진보연대, 성남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양찬열사추모사업회, 양산여성회,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민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이천여성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북평화회의, 제주여민회, 제주통일청년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당경기도당, 진보당인천시당, 진보대학생넷,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여연대,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촛불대헌장제정국민회의,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추모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택여성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흥사단, YWCA경기지역협의회, 4.27시대연구원, 5.18민족통일학교,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남본부, 6.15광주본부, 6.15대경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서울본부, 6.15수원본부, 6.15여성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6.15학술본부

(총 143개 단체, 가나다순)

[기자회견문] 이재용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불법승계에 활용한 범죄자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7일이다. 재계와 언론의 낮뜨거운 ‘이재용 구명운동’에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입을 보태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국민 공감대’ 운운하더니 결국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청와대 앞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도 사면만큼은 스스로도 낮뜨거웠는지 ‘변칙 가석방’, ‘특혜 가석방’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정농단 재판에서 일련의 불법행위가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 애초에 가석방 제도의 취지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더니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이재용에게 그 수혜를 안긴 꿈수는 참으로 지적하기에도 민망하다.

박범계 법무부장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과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재벌총수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러야 적당한 죄값을 치른다는 말인가. 공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재벌특혜에 앞장서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이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며 책임을 법무부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벌총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국정농단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총수들이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더 큰 분노는 이들이 특혜 가석방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자마자 벌써부터 사면과 취업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가 가석방에 따른 경영활동 제약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부총리 본인이 잘 챙기고 있어서 추가로 요구할 게 없었다는 경총 회장의 인터뷰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특혜 가석방을 넘어 기어이 횡령 범죄자에게 다시 그 기업의 경영을 맡기기 위해 혈안이 된 모양새다.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쓰레기 통에 처박혔고 문재인 정부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이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장관들의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 스스로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경제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해온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모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1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공공,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너머,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안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풀뿌리사람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육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IST학부 총학생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목회자회, 강남역 세월호 서명팀,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 진보대학생넷, 강원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 시민연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농민회,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복지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 진보대학생넷,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YMCA,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YMCA,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공주시농민회, 꽃자왈사람들,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진보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주 귀어 상담센터 큐앤아이,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홍사단, 괴산군농민회, 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YMCA,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제민주연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시농민회, 군포 아이쿱생활협, 군포 탁틴내일, 군포YMCA,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청년회, 금융정의연대,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YMCA,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YMCA,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과미래,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상생통일총남연대, 남양주YMCA,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 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녹색당 서울당, 녹색당 제주도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모점포 입점주협의회, 대전 노사모, 대전 녹색당,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예수살기, 대전작가회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 거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언론노동조합협의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시민사회위원회, 동서강보존본부,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디자인 밝은세상, 마당극단 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진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경YMCA, 문화연대, 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구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연합, 민주노동자전국연합 김포지역, 민주노동자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 민주노동자전국연합 동대문중앙노점상연합, 민주노동자전국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동자전국연합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동자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와 민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행동,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밀양시농민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자본노동해방대전변혁실천단, 배재대학교민주운동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학생 매듭, 보령시농민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보성군농민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봉화군농민회, 부산YMCA,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YMCA, 부천청년회, 분단체험학교,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공공성실현을위한 강원연석회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준),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대전충청본부, 새사회연대, 새여울21,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의숲,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구상인회상인협동조합,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맘스터치지회,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뇌병변장애인권협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서부상권연대,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인천 진보대학생넷,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천군농민회, 성남YMCA,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서대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손잡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연대회의, 수원YMCA,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참여연구센터, 시민행동21, 시흥YMCA,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여성회<판>, 아산YMCA, 아산시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의 창, 안동

YMCA,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더 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청년행동 더함, 안산청년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농민회, 안성여성회,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알바노동조합,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 두드림, 양산YMCA, 양산시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인권나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주YMCA,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동조합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성인권티움,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시민협, 여수진보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양군여성농민회, 영주YMCA, 영주시농민회, 영천YMCA,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예천군농민회,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YMCA, 용인여성회, 용인청년회,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겨레하나,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YMCA, 원주시농민회,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의정부YMCA, 이끌림, 이석기의원 석방과 사면복권을위한 전남구명위원회,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이천YMCA, 이천여성회, 익산YMCA,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은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디학교,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인천YMCA,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인천민중교회 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여론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임실YMCA, 임실군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흥군농민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연합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양초등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 강동송파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 강동송파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북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까지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염창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우장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화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과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노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마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성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제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행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화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구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금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노량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사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송실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신대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양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논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담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당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마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송인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일요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1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2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3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5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6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청계삼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경동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경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국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대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동부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면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미도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상봉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수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약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역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장안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전농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태능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한빛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회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보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평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노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국노점상총연

합 북서부지역 미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삼선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창동1.2.3.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상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대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초강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소래포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원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신촌마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아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시장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원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정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익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가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계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남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흥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황학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청남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청북도연맹,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주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국민주화학생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철거민연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강동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남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전북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YMCA, 정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제주진보대학생넷, 제주YM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제주민중연대,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여성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연대회의,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시농민회,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대경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서울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주거네트워크, 주거자전국회의,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진도군농민회,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대학생넷, 진안YMCA, 진안군농민회, 진주YMCA,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YMCA,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전화, 천안여성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새날의집,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철원군농민회, 청년다락, 청년더나은,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청년참여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솔의집,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양시민연대,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

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시농민회, 청주시여성농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촛불문화연대, 춘천YMCA,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천시농민회, 춘천시민연대, 충남
 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연대회의, 충남인권교
 육활동가모임 부플,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족
 예술단체총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연대회의, 충
 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YMCA, 충주시농민회, 코로나 너
 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주YMCA,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평등교육
 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택YMCA, 평택
 시농민회, 평택여성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모임,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천시농민회, 포항
 YMCA, 포항시농민회, 풀뿌리 시민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하남YMCA,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희망연대, 하동군농민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
 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통일 및 사회위
 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마트협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
 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전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
 년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한국편의점네트
 워크,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함께걷는길벗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함
 천군농민회, 함천군여성농민회, 함천진보연합, 해남YMCA,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행동하
 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형명재단, 훌리스행동, 흥성YMCA, 흥성문화연대, 흥천군
 농민회, 흥천군여성농민회, 화성YMCA, 화성시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순YMCA, 화순군농
 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군여성농민회, 횡
 성환경운동연합, 희망씨,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 강동지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희망진료센터,
 희망해남 21 (이상 1056개 단체)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고, 정부는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다.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카불 공항에는 수천 명의 탈출 인파가 몰려 마비되었다. 비행기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02년 동의·다산 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현지 안정화와 재건을 명목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할 것,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과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기관에서 통역사, 의료진, 사무직 등으로 근무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점령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7일 한국 대사관과 교민 철수는 완료되었지만, 정부는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협에 처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오쉬노 부대 철군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에 위협을 받는 현지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은 자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의 피난을 돕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원할 경우 피난 조력이나 비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사유로 거주하거나 피난한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문턱 높은 한국의 난민 심사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난민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추방 직전에 있거나, 보호소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유엔난민 기구는 지난 17일 “연초부터 55만명 넘는 아프간인들이 분쟁과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실항민이 되었다”며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절차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의 침공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브라운 대학 왓슨 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약 2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7만 명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약 260만 명, 국내 실향민은 약 350만 명에 달한다. 미군 철수 이후 벌어진 현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상 국가'를 세우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목표와 군을 앞세운 '재건 지원' 시도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가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기구조차 "미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의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너무 많은 실패로 점철"됐고 "미국 정부는 아프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병과 군사 개입에 대한 한국 정부나 의회의 반성적인 평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20년 전 국제 시민사회는 전쟁과 군사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점령이 또다른 극단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 비극적인 결과는 이라크에서도 드러났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확인되었다. 탈레반 역시 오랜 전쟁과 점령이 낳은 극단주의 세력이었다. 결국 미국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 채 철수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쟁과 군사 개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강압과 점령에 의해서는 재건도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피난길에 오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이 1996년 집권 당시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며 잔혹하게 국민들을 통제하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해외로 탈출한 가운데 전 대통령, 총리 등이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탈레반은 '20년 전과는 다를 것'이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언론을 통해 여성 앵커가 정직되었다는 소식, 탈레반이 잘랄라바드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특히 위협 속에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을 이어가는 여성들에게 연대를 보낸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 낼 것이다.

2021년 8월 20일

난민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10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개척자들,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제주다크투어, (사)평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개혁하는사람들, 경계를넘어, 고양녹색당,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공감아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아대책,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다른몸들, 대안 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두레방, 몽골불교미술원, 문다세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발전대안 피다,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통일맞이, 산안마을, 생명학연구회,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세월호를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셋업 특수교육연구회 세계시민교육 유닛 모이세, 소피책모임,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온배움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의정부EXODUS,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공간 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혜공유연합, 지혜공유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의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희망플랫폼, 콜롬반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통일나무, 파주 EXODUS,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총 3건의 발의안 및 법제정을 촉구하는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계류 중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평등법안 발의 주체이자, 정부여당 및 제21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은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면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은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성평등 실현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임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통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의 참여 의원들의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여성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

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
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
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
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
부모임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흑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퍼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어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운 것

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협을 또 다른 위협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협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협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하나,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하나,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하나,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하나,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하나,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 하나,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년 8월 24일

탈핵비상선언 전국 437개 단체 및 개인 578인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

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마을학교, 대전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군민회의, 부산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세가족도서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울산4.16지역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데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

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폐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 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윤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 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한국 1325 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 공동성명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1996-2001년 사이에 탈레반 통치를 경험한 수많은 이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 여성의 자유와 인권, 교육받을 권리, 정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와 학계, 작가, 언론인, 활동가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0년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무력 분쟁 시 모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 회원국 정부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에서 우려되는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협상과 평화유지를 위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참여가 이뤄질 것을 바란다.

한국 1325 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에 동참하여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어린이들과 연대하기 바라며,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따라 무엇보다도 우선 아프간 여성과 여아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로 전환되길 바라며 탈레반 정권, 국제사회, 한국 정부가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탈레반 정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아프간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 모든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 아프간에서 여성과 시민의 인권 보호,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 국제사회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따라 여성과 여아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아프간 사회의 안정과 평화회복, 인도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투입한다.
-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들을 시행한다.

한국 1325 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는 국제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자유와 인권 보장, 나아가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27일

한국 1325 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 일동

한국 1325 네트워크(경기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외교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사람들,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조각보, (사)평화철도전국여성모임, (사)한국여성연구소,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고양YWCA, 공간엘리사벳, 광주엄마가달린다,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JPIC, 근현대사미술관담다,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민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단체협회, 대전여성, 대전여성단체연합회, 대전평화여성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학실천시민행동, 멜버른소녀상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사)햇살사회복지회, 사단법인대구여성의전화, 사단법인모두함께, 사단법인인권희망강강솔래, 사단법인통일맞이, 사단법인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사회정의교육재단,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 시민상상공작소,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장애인인권센터,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울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존필름, 지역교육네트워크이름, 코리아협의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포항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jtbc

Joint Statement of Korea 1325 Network and Women's Civic Groups on Afghanistan

August 27, 2021

Afghanistan's situation is rapidly changing. Many people who lived under Taliban rule between 1996 and 2001 are on their way to safety. Concerns are growing about women's freedom and human rights, educational rights,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and the safety of civic groups, academics, writers, journalists, and activists who have been instrumental in promoting women's rights.

In 2000,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o protect women's human rights from all forms of sexual violence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to ensur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dispute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processes. UN Member States have been developing their own national action plans to enact the resolution 132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pes that women will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and to maintain peace from gender violence, which is feared in recent Afghanistan.

The Korea 1325 Network and the Women's Civic Groups hope to join forces with Afghan women and girls by brin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s and concerns together.

Along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e urge the Taliban reg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the following efforts, first and foremost, to convert

Afghanistan into a peaceful and stable society that guarantees the safety and basic rights of Afghan women, girls, and people.

- The Taliban regime must quickly establish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of Afghan women, girls and people,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as announced in a recent news conference.

- Ensure women's participation in all peace-building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 Guarantee the safety of those working in Afghanista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women, girls and people.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women, girls, and people, and to restore peac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Afghan society,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s the Afghan peace process and provides humanitarian aid as well as specific measures to protect women's human rights. South Korea's 1325 Network and women's civic groups will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women's organizations to find ways to support women's freedom and human rights in Afghanistan and to further the peace-building process.

Korea 1325 Network and Women's Civic Organizations

Korea 1325 Network (Gyeonggi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National YWCA of Korea,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Women Making Peace,)

AKU KFEM

Anyang Sharing Women's Association

Anyang Women's Hotline

Anyangcity Human Right Center — AYHR

Anyang YWCA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Women Religious in Korea

Association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for Democracy and Equality

Basic Income Party Gyeonggi

Bucheon Migrant Support Center

Bucheon Women's Hot-Line

Bucheon Civil Union

Bus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Christian Counselling Center for Violence Against Women

Citizen's Sangsang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Civic education Eroom

Cooperative Childcare & Education

Corporation Korean Unification women's Council

Daegu Kyung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GU WOMEN WORKERS ASSOCIATION
 Daegu Women's Association
 DAEGU WOMEN'S HOT-LINE
 Daejeon Women's Association
 Ddcsvc
 Deajeon woman's association for peace
 Democratic Congress On World Koreans
 Dong Hak practice civil action
 DWAU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FCWS
 Fellowship with the sufferers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FCWS)
 Gahyang Church
 Gender Equality Training Platform
 Gijichon Women's Human Right Coalition
 Goyang YWCA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Gyeonggi Women's Solidarity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Hanbumo Center Busan
 Hansori Solidarty for Eradication of Prostitution
 Human Rights Center 'Gang Gang Soolle
 Jeju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JEJU WOMEN'S ASSOCIATION
 Jogakbo
 KIDOKYOMINHOE(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Korea Christian Women United
 Korea church women united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Korea hanbumo association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Verband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Hot-Line
 Korea Women's Allanc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Korean Hanbumo Association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Korean Women's Studies Institute
 Masan Changwon Jinhae Civil Assembly for the Japanese Sexual Slavery
 Melbourne Comfort women Memorial Task Force
 MMCH
 moduhamgge corp.
 Mom's Running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Paju WomenLink
 Paju Women Minwoo
 Peace Mothers of Korea
 Peace Railway National Women's community
 PEACEWIND
 Pohang Women's Association

Seoul Gahyang Church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Single Parents Association incorporated association
Sisters Of the Christian Doctrine
Space Elizabeth
Sunlit Sisters' Center
suwon women workers association
Suwon Women's Association
Suwon Youth Sexuality Human Rights Center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j women
Urinuri Peace Corp.
Welcoming Unified Korea
Women Making Peac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nter of Korea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WOMENLINK
Yulmoki COOP
YWCA Korea
ZONE Film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여성단체 공동성명 여성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지난 1년 7개월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사력을 다해 왔다. 정부는 이들에게 ‘영웅’, ‘전사’의 호칭을 주었다. 사기 진작을 위해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것 뿐이었다. 원래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던 노동현장은 과로와 위험이 더해졌을 뿐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건의료노동자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자 노동자이다. 더이상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버틸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강도는 코로나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보건의료 직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모두 여성 비중이 95%에 근접하는 여성 집중 직종이다. 게다가 현장은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이라는 이유로 더욱 저평가받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 병원은 43.6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5.7명), 스웨덴(5.4명), 노르웨이(3.7명)와 비교해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나 많다. 간호사당 배정된 환자 수의 기준조차 부재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더욱 강도높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항상 돌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체 입소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설에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주말·야간·연휴 등에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평소보다 줄인다. 결국 특정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가 10명이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중한 업무량과 과도한 업무시간, 열악한 업무환경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의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아야 했다. 선제검사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 노동자들은 매주 1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동선을 일일이 보고해야만 했다. 검사일이 휴일인 경우,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준 일도 없었다. 공공병원의 경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는 이유로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역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유행 감염병의 서막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후로 더욱 심각한 감염병이 전지구적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 의료 공공성 강화는 최우선 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의료 예산 증액은 찾아볼 수 없다.

더이상 사명감과 헌신만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착취해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로없이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노동 강도와 이를 위한 인력충원, 충분한 임금, 안정적 고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고된 유행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여성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2021.08.30.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여성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한부모연합,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새움터

**공동성명 : 충청남도는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정책을 폐지하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정책에 부처

지난달 30일, 충청남도가 입주 후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반액 감면하고, 두 명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견본주택 공개를 예고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000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도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하는 것이라 밝혔다.

높은 주거비용과 불안정한 주거가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 혜택’ 제도는 출산을 일종의 주택임대계약 조건으로서 내거는 것으로, 여성의 신체와 생애 기획에 대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임신·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건강과 일상, 노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반드시 여성 개인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입주 후에, 가능한 한 일찍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하여야만 가계에 이익이 된다는 정책의 함의는, 여성이 출산 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총체적인 과정에 있어 가족과 사회의 외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출산할 수 없는, 출산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차별 또한 야기한다.

한편 입주 후에 낳은 아이의 수만이 임대료 감면의 대상이 된다는 조건은,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가정은 혜택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이의 출생을 일종의 실적으로 산정하고, 태어난 아이의 복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같은 정책 태도는 출산하는 여성과, 아동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수단화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과 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한국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과 아동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다.

정책 대상을 ‘(예비)신혼부부’로 한정된 점도 한계적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가족 개념의 인식이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관계를 넘어 확장되는 추세이며, 동거와 사실혼 및 비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실천과 공동주거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혼인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출산과 양육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상정하는 정책은, 법률혼과 혈연을 통해 구성되는 ‘정상가족’의 관념을 강화·재생산한다.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 아래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양한 가족 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배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향성은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 전반의 정책 기초에도 어긋난다. 올해 초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기본 관점을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할 것임을 표방한 바 있다. 개인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입 없이 단기적 보상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진단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과제로서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권을 보장하며, 아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제도는 이 같은 필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일석이조'식의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삶과 권리를 고려한,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개입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시민의 삶과 선택권을 통제하는 방식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임대료 감면 정책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평등한 주거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

2021년 9월 3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육군참모총장에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내린 전역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구합 104810)

재판부는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변희수 하사가 사망하였지만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용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위법 처분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마땅히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패소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10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였습니다. 군법무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횡행하는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 편견, 혐오를 법률 용어로 포장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입니다. 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의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라!
- 법무부장관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피고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

2021. 10. 19.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총 236 개 단체, * 연대 단위 중복 시 1개 단체로 계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32개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미래당, 부산성폭력상담소, 세계시민선언,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땅동, 트랜스해방전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53개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61개 단체)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쿠퍼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교연회, 김찬국기념사업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로댐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몸마음치유연구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꽃페미액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년유니온,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언니네트워크, 여성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위례시민연대, 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B,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땅동,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돌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캐나다 한인 진보네트워크 희망21, 큐앤아이,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몬스터즈, 평화의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리스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3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진보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 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어움QUT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튜립연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미래당, 경남퀴어문화축제

개별 연명 단체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인권위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8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부천무지개유니온,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정의당 서울시의원, 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김해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광화문티비, 트랜스 세계의 동지들, 울산여성회,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다다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모두의페미니즘, 포항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사)전주여성의전화, LGBTQ+ 상담연구회, 인간다울 권리를 위한 학생 자치기구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종전평화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 for Korea Peace with Gender Equality

- 전쟁을 끝내자. 평화로 나가자.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종전에 나서지 않는 자, 전쟁을 원하는 자다. 적대 관계를 끝내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자.
-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 안보를 위해 안전한 미래를 만들자.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안전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 성평등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자.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를 끝내고, 여성들이 참여하여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

1. 70년간 지속되는 한반도 전쟁 상황, 종전선언으로 끝내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북·중·미는 정전협정을 체결하며 4조 60항에서 3개월 이내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 세월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반복하며 끊임없는 군비경쟁으로 내몰리는 적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 중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에 나서지 않는 자, 전쟁을 원하는 자입니다.

2. 평화와 안전은 군사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적대적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군사력 경쟁을 통해서만 결코 안전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계의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통해 우리는 군비경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허황된 거짓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정부는 국방비에 약 53조 원,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는 약 20조 원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도래하지도 않을 긴장과 위기상황을 핑계로 전쟁준비에 국가의 재원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의 문을 열고, 비생산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안전한 미래, 지속가능한 평화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3.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 여성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은 이 땅의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고통과 절대적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70년간 끝맺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 사회 전체가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군사

문화로 뒤덮이게 하고 있으며, 군사문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더 이상 전쟁과 폭력적인 일상의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인한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넘어 당당하게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들이 나서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일상의 평화와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은 적대적 경쟁과 폭력이 아닌 연대와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남쪽의 우리들은 북쪽의 자매들과 적대가 아닌 우호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바꿔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문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곳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하였고, 특정 언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된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은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오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의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의 행위가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입장을 밝힌다.

1.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근거없는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는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익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가 세대·지역·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등장하였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이는 시대적 요구였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시와 민간의 전문가 그룹,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극복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시민참여를 수행하는 풀뿌리 조직과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한 '다단계, ATM, 중개소'라는 거친 비판과 폄훼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전 지구적 거버넌스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퇴행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2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1조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체 시민사회가 문제라며 연이어 비판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일반시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의도는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11월 초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풀뿌리 주민조직들과 민간위탁기관들의 예산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편성액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 예산 삭감의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에 서울시는 "시장님의 뜻이다"라며 해당 기관과 근무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규정한 절차와 지침에 근거해 시행되었고, 공증된 협약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서울시는 예산 삭감을 넘어 인원감축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협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경실련과 정책협약서에 동의했던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서울 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 비영리 일자리 지원과 주민·시민의 공익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권역별 NPO입주협업 공간 조성' 등 공약을 무시하고 오히려 2022년 예산편성(안)에는 위탁사업비 50% 감축, 일자리 30~60% 축소를 강행하고 있으며, 2개 권역의 NPO지원센터 설립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DDP(동대문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하여 “예산과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고 수지타산을 안 맞춰도 좋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2022년 예산(안)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른 기준만 있을뿐 시의 자원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편성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시민참여와 시민사회활성화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의 확보가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배분과 집행과정, 성과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민관이 공동으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성화가 실제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민관이 공동의 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이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오세훈 시장이 거부한다면 올바른 민관협치 실현을 위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검증하는 언론의 통제를 중단하고, 왜곡된 취재유도의 진실을 밝혀라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는 “시 공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대는 서울시”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직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 이 기사는 오세훈 시장의 ‘1조원’ 발언에 대해 국회,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언론사가 검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언론사에 서울시 재정으로 지출되는 광고비 중단을 통보하며 자신의 주장을 검증조차 못하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해당 언론사 뿐만 아니라 타 언론사에도 서울 시정 관련 보도에 대한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며,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언론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10월 28일 TV조선은 ‘지난 10년, 서울시에선 무슨 일이’ 편의 취재기자는 “서울시측의 취재요청을 받아 취재하고 있다”고 인터뷰 대상자에게 밝힌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는 입을 막고 우호적인 언론사에게는 왜곡된 취재를 유도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들에게 TV조선 프로그램 제작의 취재 요청 의혹을 해명하고, 지원 예산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오늘 전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7개월 동안 보여준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폄훼, 협치를 부정하는 근거없는 예산 삭감,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특정 언론에 왜곡 취재를 유도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한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시민참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이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둘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10년간 1조원이 지원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당장 공개하고, 검증하라.

셋째, 오세훈 시장은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지원예산의

일방적 삭감을 중단하고,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약을 이행하라.

넷째,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검증 보도한 언론사의 광고 중단을 정상화하고, 특정 언론사의 왜곡된 취재유도와 예산지원 등 일체의 사실을 해명하라.

다섯째,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정책협약에 동의했던 ‘시민사회활성화 기반 구축 및 실현’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1년 11월 4일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200여개 시민·지역사회단체 일동

○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가나다순/1,170여개 단체)

1004통일포럼, 3.1서울민회, 327팔레트, 4차혁명트렌드랩, 6.15공동선언실천부산본부, 50플러스미래설계사회적협동조합, 가족인권연구소,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감나무골작은도서관,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사)간디공동체, 감자별,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남아이쿵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동공동체미디어, 강동구주민자치사업단,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강북구 인수동 주민자치회, 강북문화예술네트워크, 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강북혁신교육 민간대표자회의, 강북혁신교육지역분과, 강서구건강생태계조성사업단, 강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서구학부모분과, 강서나눔돌봄센터, 강서동행, 강서시민정치참여단,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거창흥사단, 건강리더협동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화도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겨례의길 민족광장, 겨례하나,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남사회혁신가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시청공무원 노동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 통일나무, 고양평화청년회, 공감인, 공감플랫폼,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체 도꼬마리,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 공유성북원탁회의, 공익법률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곳자왈사람들, 관악 정다운 의료사회협, 관악공동행동,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관악여성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재능기부센터,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희망재단, 광주KYC,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광진주민연대, 광진주거복지센터, 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 다락, 괴산두레학교,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과시민, 교육나눔협동조합, 구로34행복만들기 주민모임, 구로건강복지센터,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로파랑새나눔지역아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양참여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모임 지리산사람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민주연대, 국제청년센터,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권역별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조준비위원회, 글로벌녹색환경지도자,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 극단현장,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금융정의연대, 금천구 시흥 5동주민자치회,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아대책,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포장애인야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꿈꾸는도토리, 꿈샘누리, 꿈잡고협동조합, 나눔문화, 나들목가족도서관, 나락한알,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 나주사랑시민회, 난민인권센터, 남동이행복한지역재단,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시농민회, 남원아이쿵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너머, 노동도시연대, 노동복지나눔센터, 노동인권연대, 노동자교육기관, 노란들판,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노원골 사람들, 노원공동체라디오 노원FM,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여성회, 노원인권공간자람사회적협동조합(가칭),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녹색환경보전협회,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놀이연구회통통, 놀이패 한두레,

(사)놀이하는사람들, 뉴코리아, 느린학습자시민회,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원, 다같이함께하는올타리, 다듬잇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다시입다연구소, 다양성임팩트연구소, 다정한텃밭, 당진문화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청년빛쟁이네트워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구청년유니온, 대구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대전대학생네트워크,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미술,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청소년교육훈련연맹,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더불어사는 다문화 이웃, 더쇼퍼, 더좋은공동체, 도다미장 협동조합, 도봉구 쌍문4동 주민자치회, 도봉시민넷, 도봉시민회, 도시난민 희성씨, 도시와삶, 도시재생주거환경혁신연대, 도토리공작소, 동구씨, (사)동그리마을넷, 동대문교육시민모임, 동대문시민사회연대회의(준), 동대문시민회, 동물보호단체라이프, 동부교육시민모임, 동북어르신돌봄중사자센터, 동서강보존본부,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구마을자치센터 희년평화협동조합,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작마을넷 마음껏,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사)동작장애인부모연대, 동작청소년교육강사단, 동학농민혁명야산시기념사업회, 동학혁명복잡사업회, 두꺼비친구들, 두더지랩, 두빛나라사회적협동조합,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지국 협동조합, 드림오션네트워크,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따비에, (사)땀규, 라디오금천, 로컬에너지랩, 리듬, 마을계획단, 마을공동체 소.공.동, 마을과주민자치, 마을담,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을목수공작단 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마을학교, (사)마음껏, 마음복지관, 마인드풀가드너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NPO네트워크 모두마포,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맑은숲돌봄협동조합, 맘엔누리, 망우본동도시재생주민비상대책위원회, 망우산마을공동체-마을과아이들,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면목본동 도시재생희망지 면목리본, 모두의공간 스페이스공감, 모두가치 사회적협동조합, 몽양아카데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등산평촌명품마을, 무중력시대성북, 문경시민희망연대, 문지모, 문화연대, 문화예술 닦다, 문화예술연구소다원, 문화와성장W,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디어엑트, 미디어눈, 민생경제연구소, 민정이네시민랩,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야산지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민주노총 안산시지부, 민주노총 중량구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디어협동조합,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협동조합건강리더클럽,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민주야놀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기술학교 협동조합, 바라봄, 박종철합창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발전대안피다, 밤마실, 뱅가, 범민련부산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벚골오피마을,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은교육협동조합햇살마루, 보은문화살림마루협동조합,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보은정치문화시민모임 '보은파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봉천살림협동조합, 부민협동지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마을교육공동체민간협의회,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생협,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외대 민주동문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인권포럼,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지역민주동문회연석회의,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련, 부산흥사단,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환경교육센터, 북부두레생협, 비영리 교육단체 민들레, 비영리IT지원센터, 뽕나무 협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당2동주민자치회, 사람과경제,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사로, 사회복지법인함께하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담,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로컬랩사업단, 사회적협동조합누구나, 사회적협동조합연리지, 산오름어린이집, 삼각산재미난마을, 삼양동햇빛마을,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삼양주민연대, 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새로운기준lab,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샘복지재단, 생각실험, 생명마당, 생명미디어센터, 생명의숲, 생명평화포럼,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정책공방,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누리연구소,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산티학교,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서울마을법인협의회,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서울민예총음악위원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회, 서울겨레하나,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대문

마을넷,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세업자협회, 서울시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숨',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귀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한부모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흥사단, 전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선잠52,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내2동도시재생지원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성북나눔의집,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성.아.들), 성북동천, 성북마을방송와보송,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예술,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북청년시민회,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사단법인세종여성,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소나무상담복지센터, 소통과치유, 속초고성양향환경운동연합, 손잡고, 솔미봉사단, 솔이자연사랑, 송파기후위기시민행동(준), 송파시민연대, 송파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송파연대회의, 송파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송송, 송파파란하늘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송파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체, 수궁에 스며들자 Action,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정꿈터마을교육공동체,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순천의료생협,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시루작은도서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정책공방, 시민참여연구센터, 시민평화포럼, 시민행동21, 시시한연구소, (사)시민공감,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주권포럼,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흥환경운동연합, 신나는여성자갈자갈, 신내대시앙자원봉사캠프, 신내대시앙책울터,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천불교승가회, 실천여성회관, (사)아디,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책임시민모임,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아이들과함께자라는엄마들의모임,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안동영주민주시민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민예총,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청년행동 더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민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재마을넷, 양천공정무역협의회,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 양천시민사회연대, 양천아이쿱생협, 어게인, 어반파크닉, 어울림마을공동체, 언니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에너지나눔연구소협동조합,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수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열린사회동대문,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에너지정의행동,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성환경운동연합, 예술인문연구소 달리, 오마이컴퍼니(주), 예코언니야, 오라클라운지(주), 오순도순사회적협동조합, 오월광장, 사단법인 오픈넷, 옥천순환경계공동체,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온기제작소, 온순환협동조합, 오희야, (재)와글, 용산시민연대,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용인시마을네트워크, 우리농,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우아맘,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위례시민연대, 월드사프, 월드쉐어, 유스체인지메이커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도서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은평두레생협,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은평부모학교, 은평정책마당,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이야기 상자, 이야기숲(코로나를 이기는 책읽기), 이음교육협동조합,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연대 살림의집, 이주민센터 친구, 이후연구소, 익산참여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권배움터 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인디학교,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제대학교 민주동문화,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인천녹색연합, 인천마을넷,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인천실업본부 동구중구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일하는여성이카데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여론시민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생활균형연구소, 일하는공동체, 일in연구소, 임실군기독교청년회, 임팩트비, 서해주민센터, 자발이네사랑방, 자유학교, 자원봉사이음, 자원순환시민센터, 작은따옴표, 잠자리공방, 장독대 독서동아리, 장애와사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해방열사'단', 재미난마을, 재미누리 협동조합, 전교조 고양 중등지회, 전교조 보은지회, 전교조 사립북부지회 정의분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농충남도연맹,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전북민주연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쟁없는세상,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태일재단, 전환마을은평,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의당,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

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천간디학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천참여연대,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종로서촌지기, 좋은마을공동체, 좋은바람협동조합,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줌인네거리, 중랑구마을학교,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문화연구소, 중랑행복교육, 즐거운반딧불이, 지구인공정여행, 지구촌동포연대,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지식공유연구자의집,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징검다리배움터늘품,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강북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작21작가회, 창작모듬잡담, 책올터작은도서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왕마을연합회, 천안KYC,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사)청년오픈플랫폼 와이, 청년희망팩토리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교육연맹, 청소년 문화공동체 그루터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멍둥, 청소년인권센터, 청솔의집,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양시민연대, 청어람ARMC,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춘멘토, 초록교육연대, 초록끈, 초록바람, 초록상상, 촛불혁명여성연대,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당진민들레대안센터, 충남대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연대회의,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활,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충북민주연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북여성장애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진천지부, 카톨릭공동선연대, 카페봄봄, 커뮤니티 허브공간, 키프, 태백생명의숲,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터울림, 통일교육센터 하나, 통일맛이, 통일의길, 트리플엔 주식회사, 파란하늘협동조합,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퍼스트페이지 일상문화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남부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세상을향한집합, 평등사,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철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럼시식공간, 포피스, 포항여성회, 푸른공동체살터, 푸른아시아, 푸른지구, (사)푸른환경운동본부 동작지회, 풀뿌리환경센터, 프로젝트 시민, 피스모모, 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 하나와여러한부모회, 하랑, 하루마을문화교실, 하트-하트재단, 학교너머더큰학교, 한국감마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사)한국스포츠키움개발원,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문화교육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행동,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재단협의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청년연합천안지부, 한국청소년마을네트워크, 한국DK커뮤니티, 한국폐땅뜨협회, 한땀한땀,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생명, 함께걷는길벗회, 함께걷는아이들,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노원, 함께하는성북마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주택협동조합, 해양환경보호단레디, 해오라기바윗골마을모임, 해외주민운동연대, 햇빛나눔 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행정개혁시민연합, 협동조합고개엔마을, 협동조합 마을대학 종로, 협동조합 만을재, 협동조합성북신나, 형명재단, 호모인테르, 흥성문화연대, 흥성지역협력네트워크, 흥은1동 주민자치회, 화성시마을자치센터,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마을넷, 화성시마을자치센터, 화성환경운동연합, 해양환경보호단레디,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성환경운동연합, 흡사랑, 흡사단, 희망세상일구는구로여성회, 희년평화협동조합, 희망연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희망해남 21, GCCM Korea, HBM사회적협동조합, KNP+, KYC, N:GUSO, NCKK정의평화안동위원회

○ 서울마을법민협의회 / 마을자치센터 연합 / 마을활동가연대

사협)함께강동, 사)중랑마을넷,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구마을넷, 사)구로시민센터, 사협)공동체관악, 사협)도봉이어서,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양천마을, 사)마을인교육, 사협)함께살이성북, 강남마을넷, 사)광진시민허브,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서초나비마을넷, 사)성동마을넷동네, 사)마을,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북구마을자치센터, 강서구마을자치센터, 광진구마을자치센터, 구로구마을자치센터,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마포구마을공

동체지원센터, 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동구마을자치지원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송파구마을자치센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용산구마을자치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중랑마을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마을센터분회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사)공공, (사)광주NGO시민재단, 광주NGO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경남공익재단,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상남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대구시민재단,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사)부산시민재단,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천희망재단, (사)시민,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지리산이음,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사)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천안NGO센터, (사)충남시민재단,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사)충북시민재단, 충북NGO센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지역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 한국YWCA연합회 / 지역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국YWCA연합회, 해남YMCA, 화성YMCA, 화순YMCA, YMCA경기지역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지역YMCA

거제YMCA, 거창YMCA, 광양YMCA, 광명YMCA, 광주YMCA, 구미YMCA, 구리YMCA, 김해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여수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전주YMCA, 제주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평택YMCA, 한국YMCA전국연맹, 흥성YMCA, YMCA경기도협의회. “끝”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문
‘충분한’ 국방예산을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사용합시다

남북의 군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남과 북이 같은 날 연달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북한은 SLBM 등 미사일 발사 시험을, 남한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북한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을 최초로 개최하고 5년간 개발한 최신 무기를 공개했고, 남한은 2년마다 개최되는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2021>을 열고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으로 2021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국방예산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7년의 40.3조 원보다 무려 15조 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9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15조 원의 국방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이 넘게 됩니다. 이는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비해 2022년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 예산의 1/9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남한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었습니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0위를 기록한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이 재래식 전력을 계속 강화할수록 북한 역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에 끝없는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이래 약 25조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 예산에도 약 4.6조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경항공모함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핵추진 잠수함 개발, F-35A 추가 구입과 F-35B 구입 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 규모는 약 2.8%로 소위 ‘주변국’이라 일컫는 중국(1.7%, 추정치)과 일본(1%)과 비교해도 훨씬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군비 증강의 이유로 전작권 조기 환수를 들어왔지만, 정작 전작권 환수는 조건에 얽매어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더욱 시급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약 12조 원을 책정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약 2조 5천

억 원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발표하며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이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절실했던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이나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37개국 중 4번 째로 높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인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확대하여 지키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와 국방 예산의 삭감을 촉구합니다. 군비 증강은 남북 간 대화와 신뢰 구축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보다 시급한 문제를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이미 충분한 군비 증강에 투자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국회는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실제로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줄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바탕한 군비 축소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군사 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전 세계는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전까지 온 기후 위기 또한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비 증강과 군비 경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충분한’ 국방비를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사용합시다!

2021년 11월 9일

(사)개척자들 / 강정친구들 / 강정평화네트워크 / 고양YMCA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 기후위기비상행동 / 김제정의평화행동 / 녹색당 / 녹색연합 / 더이상못참겠다투쟁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시민평화포럼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전국여성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정의당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 피스모모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32개)

**<대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 성평등 외면하는 퇴행적 대선정국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성차별·성폭력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평등 국가를 만들어 갈 대통령을 원한다!**

내년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사회 대전환을 위한 경고였던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는 구조적 차별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래도 공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성차별은 없어졌고 오히려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경제위기에서 먼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여성일 만큼 노동자로서 여성의 위치는 주변적이고 취약했다. 사회의 모든 돌봄노동은 여성의 일로 전가됐지만 '덕분에'라는 공치사만 있었을 뿐 정당한 대우나 돌봄 불평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청년여성들의 자살률은 급증했지만 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 상황은 '조용한 학살'로 불릴 만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일관되었다.

이런 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의 구조를 드러내고 바뀐 것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도구로 통제하고 처벌해온 낙태죄를 폐지했고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을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분투는 각계각층의 미투운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있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탈락하거나 배치와 승진, 임금에서 차별 받는다. 디지털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달은 외려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을 양산하고 확산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는 어떠한가?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성평등의 시계를 오히려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현재 거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 과연 성평등 국가 실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두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사실상 성평등을 기계적인 '양성평등'으로 인식하고 성차별이 남성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이자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를 했으며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더욱 문제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매년 성폭력 가해자 성별 비율이 남성 95%(법무부, 20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남성을 포함한 가부장제 사회문화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이끌어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성별권력관계라는 것과 성폭력·성차별이 난무하는 현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명백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은 차별이 될 수 없다는 뚜렷한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이다.

도리어 두 후보는 애꿎은 페미니즘을 문제 삼고 왜곡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차

별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구조에서 차별을 발견하는 관점이자 언어, 실천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교제를 막는다'고 발언하고,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의 개념과 배경을 왜곡하는 글을 공유하며 오히려 차별의 언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두 후보의 행보에 여성 유권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비전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에 두 후보는 '공정한 양성평등', '젠더갈등' 따위의 허구적인 담론을 오히려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며 한국 사회 전체를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 '젠더갈등'은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백래시를 여성 대 남성의 대결 구도로 보는 허구적 담론이다. 현재의 상황을 그저 '새로운' 싸움, 혹은 남녀 간 동등한 사회적 위치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두 후보의 이런 인식은 그간 여성들이 겪어온 차별과 폭력의 문제와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지금처럼 표 계산에만 골몰하며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대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후보는 필요 없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성평등을 외면하고 퇴행시키는 후보를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대통령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성평등이 무엇인지, 성차별의 원인과 그 현실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평등 국가를 만들어 갈 대통령을 원한다. 선거까지 단 4개월, 3.8 세계여성의날 하루 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우리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다.

2021년 11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UAE로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중단하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약 4조 1,370억 규모의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II)를 판매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천궁-II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LIG 넥스원이 생산하며,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 탑재 차량은 각각 한화 시스템, 한화 디펜스 그리고 기아가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매 계획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항공산업전시회 두바이 에어쇼에서 진전된 것으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하여 '한-UAE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UAE와 천궁-II 구매 계약이 임박했다며, 'K-방산의 도약'이라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동 지역의 분쟁과 불안을 기회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소식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 세계 9위 국가(2016~2020)로,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활발한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결과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군사적 갈등은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중요한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2020년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선정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멘 내전이 장기화되는 동안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0년(2011~2020) 동안 한국이 UAE에 판매한 무기는 35.27억 불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6억 불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이 이익을 얻는 사이 불안은 심화되고 군비 경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예멘 내전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으로 불리는 이 전쟁으로 인해 약 13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국내 실향민을 포함해 4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영향 모니터링 프로젝트(CIMP)'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의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총 1,912명에 달합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UAE는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왔고, 한국의 아크 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맡아 왔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 곳곳에서 한화의 세열수류탄, LIG 넥스원의 현궁 등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국익 창출'을 명분으로 위헌적인 UAE 파병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군사 협력과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예멘 내전에 악영향을 미쳐온 것입니다. 한편, UAE는 호르무즈 해협의 3개 섬 영유권을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예멘 내전을 조사한 유엔 전문가들은 예멘 정부와 반군 이외에 무기를 공급한 영국, 프랑스, 미국, 이란 역시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는 지난 1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대한 미사일 등의 무기 수출을 중단한 바 있으며, 미국 역시 두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분쟁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온 UAE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자 전쟁 범죄에서 한국의 책임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산 무기들이 분쟁 지역으로 수출되는 동안,

분쟁 지역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기회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정부의 방위산업 진흥 정책에 단호히 저항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UAE로의 역대급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정부는 방산 수출 진흥 정책 중단하라!

2021년 11월 24일

강정평화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덱스저항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팍스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맞이하러**

한국시민사회단체 국방부 앞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문 :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

오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가 이곳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첫 번째이며 한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 될 이번 한미 SCM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되고 한미 군사 당국의 공격적 군비 확장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의 만남에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 존중',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가치 외교를 내세워 자극적인 군사 개입을 시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주민과 미국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냉전적인 군사 동맹 강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외교와 협력입니다. 한미 정부는 군비 증강과 군사력 과시 대신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앞다투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고 각각 무기전시회를 열어 최신·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남북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각국은 평화적인 협력보다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안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9일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전작권 전환, 국방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SCM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더이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4년이나 지났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즉 미국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2007년 약 25조 원에서 2021년 현재 약 52조 원으로 두 배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충족할 수도 없고 충족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한국군은 한국이 온전히 통제해야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작권은 조건 없이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합니다.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결정하여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연합군사훈련이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 공격이나 참수 작전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축소해도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군사력이나 군사비에 있어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만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미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화와 군사훈련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미중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군사 전략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역내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과도 배치됩니다. 특히 한미 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를 미국의 요구대로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있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요구해왔고, 지난해 SCM에서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에 한국군을 군사적으로 동원하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포함해 이런 식의 군사 패권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한미 국방 워킹그룹 신설 논의도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거해야 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했던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식 배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SCM에서 “성주 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미 정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올해 사드와 패트리엇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도 언급해왔습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매주 2회씩 강행되는 공사 자재와 장비 반입 작전으로 성주, 김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사드 업그레이드를 매개로 미국이 MD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사드를 철거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범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간 한미 군사동맹은 ‘호혜적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한국전쟁과 분단을 양분 삼아 기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군사 동맹은 분단을 고착시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제 이런 낡은 군사 동맹의 틀을 과감히 깨고 평화 협력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일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 4.27시대연구원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 강정평화네트워크 / 개성관광재개운동본부 / 경기민중행동 / 경기진보연대 / 경남진보연합 / 광주진보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 김제정의평화행동 / 노동전선 / 녹색당 / 대경진보연대 / 대전민중의힘 / 민들레 /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산민중연대 / 부산민중행동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빈민해방실천연대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사드철폐 성주대책위원회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서울진보연대 /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 / 시민평화포럼 / 실천불교승가회 / 안산새사회연대일다 / 알바노조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예수살기 / 울산진보연대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인천자주평화연대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남진보연대 /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제주평화인권센터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 3.0 / 진보당 / 진보대학생넷 / 참여연대 / 촛불문화연대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통일광장 / 통일인력거 / 평택평화센터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피스모모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I

2021.6.18~7.9

프로그램1 특 강

여성들의 종전 평화 캠페인, 왜? 무엇? 어떻게??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

프로그램2 씨클대화: 평화 스토리텔링 나눔

1차 | 기독교여성회

일시 : 2021.6.18(금) 19:00~22:00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2차 | 수원여성회

일시 : 2021.6.19(토) 10:30~13:30

장소 : 온라인 줌(ZOOM)

3차 | 한국여성단체연합

일시 : 2021.6.25(금) 14:00~17:00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4차 | 대전평화여성회

일시 : 2021.7.9(금) 15:00~18:00

장소 : 대전평화여성회 회의실

Women's
Korea
Peace
Appeal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III

여성종전평화선언문 (Women's Korea Peace Appeal)

온라인 발표회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저녁 8시~9시 30분
방식 : 온라인 중(ZOOM)

참가안내

- 신청기간 : 2021.10.4.(월)~2021.10.20.(수)
- 신청방법 : 구글폼 입력 후 제출
- 장 소 : 온라인 ZOOM(개별 안내)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02-929-4847)



프로그램

- 사회 및 경과보고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여성의 삶에서 위협과 안전은 무엇인가?
-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 종전과 평화는 여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여성들이 기대하는 것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 여성들의 종전평화 캠페인,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 여성들의 종전평화선언문(Women's Korea Peace Appeal) 발표
조영숙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주 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 원 한국여성재단

공동주최 기독교민회, 수원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캠프·(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글로벌 여성 평화 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

모집안내

모집대상 : 여성·평화·국제개발협력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기간 : 2021.08.31(화) ~ 2021.09.09(목) 16:00
 신청방법 : 구글폼 입력 후 제출 <https://forms.gle/otSMw2CktdNysukG6>
 장 소 : 온라인 세미나 (개별 안내)
 참 가 비 : 무료
 문 의 : (사)캠프 02-3147-0309



▲신청하기



일 정

1.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UNSCR 1325 결의안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일시	주제	패널
1차 2021.9.10(금) 14:00~16:00	UNSCR 1325 대한민국 3기 국가행동계획	사회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제 :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차 2021.9.17(금) 14:00~16:00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와 여성평화안보운동 - 2021~2025 세대평등 행동연합	발제 : 조영숙(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토론 : 전희정(여성평화외교포럼 사무처장)
3차 2021.9.24(금) 14:00~16:00	WPS 아젠다와 해외 무력분쟁 및 무기수출 국가 여성들의 평화활동	발제 : 고유경(WILPF 컨설턴트) 토론 :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 여성과 평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주관: 캠프 평화와개발센터)

4차 2021.10.8(금) 14:00~16:00	평화ODA의 국제적 흐름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발제 : 송진호(평창평화재단 이사) 토론 : 이성훈(경희대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5차 2021.10.15(금) 14:00~16:00	젠더와 개발, 그리고 평화	발제 : 장은하(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토론 : 박민정(숙명여대글로벌서비스학부 겸임교수)
6차 2021.10.22(금) 14:00~16:00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페미니즘적 동시대성	발제 : 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 토론 : 이슬기(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위원)

2021.11.12(금) 국제세미나 예정



여성평화안보(WPS)

시민공공외교 국제세미나

“여성·평화·안보(WPS)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과 한국-필리핀 여성·시민사회의 평화 실천

UN-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Security and Korean-Philippine Women and Civil Society's Peace Action ”

People-Participated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Seminar on Women, Peace and Security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Date: November 12th, 2021(Friday)
시간: 오후 2시~6시(한국), 오후 1시~5시(필리핀)
Time: 2p.m.-6p.m.(KST, UTC+9), 1p.m.-5p.m.(PHT, UTC+8)

참여: 11월 12일 실시간 줌 · 유튜브 라이브 예정
Participation: Real-time Zoom and YouTube live scheduled for November 12th



언어: 한-영 동시통역
Language: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주최: (사)캠프 평화개발센터,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Host: CAMP Int.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Women Making Peace
후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아차진시민모임, 필리핀 필리피나, K-1325
Sponsor: Masan, Changwon, Jinhae Civil Assembly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Lila Pilipina, K-1325

외교부: 2021 민간공공외교 지원사업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 2021 People-Participated Public Diplomacy Support Project

프로그램 Program

개회식 Opening Ceremony		사회: 여혜숙(공동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Host: Ms. Hye Sook Yeok(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14:00 ~ 14:10 (KST, UTC+9)	개회사 김성은(이사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Opening Remarks: Ms. Sung-Eun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Women Making Peace)	
14:10 ~ 14:20 (KST, UTC+9)	환영사 김종걸(이사장, 캠프) Welcome Remarks: Mr. Jong-Gul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CAMP Int.)	
14:20 ~ 14:30 (KST, UTC+9)	축사 GABRIELA Congratulatory Messages: GABRIELA	

1부 주제발표 Session 1. Presentation

“한-필리핀 1325 국가행동계획과 여성들의 평화행동(Peace Action) 경험 공유” “UNSCR 1325 National Action Plans and Women's Experience in Korea and the Philippines”

좌장: 김정수(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Moderator of Session 1: Ms. Jeong-Soo Kim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14:30 ~ 14:50 (KST, UTC+9) 한국 1325 국가행동계획과 전사성폭력
조영숙(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The ROK 1325 National Action Plan and the War-time Sexual Violence: Ms. Young-Sook Cho (Korea's Ambassador for Gender Equality)

14:50 ~ 15:10 (KST, UTC+9) 1325 결의안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역실천 활동
이경희(대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아차진시민모임)
Korea's Local Activities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s. Kyung-Hee Yee (Representative, Masan, Changwon, Jinhae Civil Assembly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14:30 ~ 15:50 (KST, UTC+9) 필리핀 1325 국가행동계획과 여성평화운동
Jasmin Nario-Galace(Vice-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Miriam College)
The Philippines's UNSCR 1325 National Action and Women's Peace Movement: Ms. Jasmin Nario-Galace (Vice-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Miriam College)

15:30 ~ 15:50 (KST, UTC+9) 1325 결의안과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역실천 활동
Rosanna Cabusao(Coordinator, Lila Pilipina-GABRIELA)
The Philippines's Local Activities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s. Rosanna Cabusao (Coordinator, Lila Pilipina-GABRIELA)

15:50 ~ 16:05 (KST, UTC+9) **휴식**
Break Time

2부 라운드테이블 Session 2. Round Table

“한-필리핀 1325 결의안 실천과 연대를 위해” Discussion on “The Practice and Solidarity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좌장: 양미강(상임대표, 역사NGO포럼)
Moderator of Session 2: Ms. Mi-Kang Yang (Standing Representative, History NGO Forum)

16:05 ~ 16:20 (KST, UTC+9) 젠더ODA와 전사성폭력
장은하(국제협력센터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ender ODA and War-time Sexual Violence: Ms. Eun-Ha Chang(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6:20 ~ 16:35 (KST, UTC+9) 평화ODA와 시민사회
권구순(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Peace ODA and Civil Society: Mr. Coo-Soon Kwon (Professor, Seoul Cyber University)

16:35 ~ 16:50 (KST, UTC+9) WEAct 1325와 필리핀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Karen N. Tanada(Executive Director, Gaston Z. Ortigas Peace Institute)
WEAct 1325 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Bangsamoro Peace Process: Ms. Karen N. Tanada (Executive Director, Gaston Z. Ortigas Peace Institute)

16:50 ~ 17:05 (KST, UTC+9) 필리핀내 위안부 문제 현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평화ODA연계 방안 등
Bernard Karganila(Corporate Secretary, Hunters-ROTC Historical Society)
Current situ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 Philippines and ways to relate the issue with the Peace ODA: Mr. Bernard Karganila(Corporate Secretary, Hunters-ROTC Historical Society)

17:05 ~ 18:00 (KST, UTC+9) **청년 참가자 발언: 이지민, 김지민, 한보람**
Youth Participant Speech: Ji-Min Lee, Ji-Min Kim, Bo-Ram Han
종합토론 Comprehensive Discussion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 & 내다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민간교류의 역사를 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맞아 남북 여성교류의 경험을 통해 여성 통일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향후 남북 여성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2시 [1시 30분~ 접수]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코로나 19 방역 지침과 관련하여, 사전 등록한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15 **개회 / 경과보고 및 영상시청** 사회 : 민화협 여성위원장

14:15~16:00 **간담회** 진행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윤옥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명숙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국무총리)

이미경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코이카 이사장)

윤영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 / 前 교회여성연합회총무)

이김현숙

(前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남측 본부장 /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손미희

(前 615 남측위 여성본부 상임 대표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질의 응답

16:00~ **함께 나누는 소감**

주최

민화협 여성위원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 남측위 여성본부, NCKK 여성위원회

문의 : 02-761-1213 (민화협 사무처)



“전쟁 종식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17:40

참여 온라인 사전등록 링크 <https://bit.ly/3GkdPTj>

| 공동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 여성평화외교포럼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전국여성연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YWCA연합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후원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 위민크로스디엠지(WCDMZ)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ILPF) | 통일뉴스 | 여성신문



온라인 사전등록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17:40

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 통역 제공

참여 온라인 사전등록 링크 <https://bit.ly/3GkdPTj>

진행순서

개회식 14:00 ~ 14:15	사회: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환영사: 공동주최 단체 축사: 여성가족부 장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GPPAC, WCDMZ
-----------------------------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

1부 14:15 ~ 15:45	사회: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총괄부장) 발제: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토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문숙 (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시이 마야코 (전 일본YWCA회장) 패티 텔벳 (캐나다연합교회 국제파트너십 프로그램 팀장)
----------------------------	--

휴식 15:45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2부 16:00 ~ 17:40	사회: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패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아키바야시 코주에 (울프 교토, 도시샤대학 교수) 앤 라이트 (미국 WCDMZ, 평화재향군인회 운영위원) 왕 다닝 (중국 Charhar 연구소 연구위원) 전체 토론: 고유경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평화연맹 컨설턴트)
----------------------------	---



Online
Registration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Online event. Registration <https://bit.ly/3GkdPTj>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provided

| Co-Host Organizations |

Korea Church Women United | Korea Women's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National YWCA of Korea | Women's Committee of the Korea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Women'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omen's Division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 Women Making Peace

| Co-sponsors |



*The seminar is funded by co-host organizations and GPPAC.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provided

Online event, Registration <https://bit.ly/3GkdPTj>

PROGRAM

<p>Opening Ceremony 14:00 - 14:15</p>	<p>Moderator: CHO Youngmi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Welcome Remarks from Co-Host Organizations Congratulatory Remarks from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 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GPPAC, WCDMZ</p>
<p>Achievements and Challenges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eminar</p>	
<p>Session 1. 14:15 - 15:45</p>	<p>Moderator: CHOI Susannah (Director, National YWCA of Korea) Presentation: LEE Hyunsook (Honorary Representative of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Former Vice-president of Korean Red Cross, ROK) Panel Discussion: - LEE Nayoung (Chair of the Boar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fessor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ROK) - LEE Moonsook (Former Executive Secretary for Asian Church Women's Conference, ROK) - ISHII Mayako (Former President of YWCA of Japan, CEO of Unshusha Foundation Kagawa Archives & Resource Center, Japan) - Patty TALBOT (Team Leader, Global Partnership Program a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p>
<p>Break Time</p>	
<p>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p>	
<p>Session 2. 16:00 - 17:40</p>	<p>Moderator: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ROK) Panels Discussion: - HAN Mikyung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 Women's Alliance, ROK) - AKIBAYASH Kozue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WILPF Kyoto, Japan) - WANG Danning (Research fellow, Charhar Institute, China) - Ann WRIGHT (Board Member, Women Cross DMZ, Veterans for Peace, USA) Overall Discussion: KO Youkyoung (Consultant, WILPF & Korea Peace Now!)</p>

세대 별 관심사와갈등의 현주소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생각을 나누는
평화적 대화 마당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세대 간 대화모임



일시 2021년 5월 22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대상 서울시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각 세대별 2인 이상 선착순 마감)

문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2.929.4846,4847 / 010.5588.5469)

신청 <https://forms.gle/XaW1mUVkve4rYDNA>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서울시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시리즈 두번째

갈등해결과소통역량 강화교육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곧 공지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갈등과 함께 만나는
평화적 공감대화 시리즈 2

갈등해결과
소통
역량강화
교육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2021
6.9 > 9.1
여성미래센터

세대 간 갈등 및 일상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소통역량 강화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명	회차	일시	내용
갈등해결 소통역량 강화교육	1	6/9(수) 18:30~21:00	“우리가 만나는 갈등, 과연 어떤 걸까요?”
	2	6/16(수) 18:30~21:00	“갈등해결 비법을 찾아서!”- 가족,이웃,조직과 함께 푸는 갈등
	3	6/23(수) 18:30~21:00	“낮선 시선으로, 일상의 평화 만들기”
	4	6/30(수) 18:30~21:00	“가능할까? - 존중하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5	7/7(수) 18:30~21:00	“평화적 공감대화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6	7/14(수) 18:30~21:00	“대화 진행 실습 - 실천매뉴얼대로 해 보아요.”
	7	9/1(수) 18:30~21:00	“실천 공유회! 함께 나뉘요”

장소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대상
세대 간 갈등해결과
평화적 소통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20명 내외
선착순 마감

문의
02.929.4846/4847
010.5588.5469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들, 남북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새로운 문법을 열다

여성의 평화통일 활동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공감 노력

일시 |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13:00 - 18:00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온라인(zoom) | zoom.us/j/85452576476?pwd=VnRxazhCOHlzVE9acjk1RW1wVDQrdz09

개회

사회 | 김정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개회사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부 30년, 남북 여성의 대화

사회 |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발표 | “90년대 남북여성교류의 첫 물꼬, 서울·평양토론회 회고와 의의”

- 김윤옥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전 기독교여성 평화연구원 원장)

“여성·평화·안보 의제로 본 남북여성 교류 성과와 한계 : 6·15를 성찰하며”

- 정경란 (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여성평화운동의 새로운 실험” -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손미희 (우리학교시민모임 공동대표, 전 6·15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최소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현 6·15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2부 여성주의적 통일의 성찰과 사회적 공감의 확산

사회 | 조정아 (통일연구원 부원장)

발표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결의 1325 결의안 의제의 대중화” : 성과와 과제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 - 윤보영 (동국대학교 강사)

“시민사회와 여성주의 평화·통일 담론의 소통과 공감 노력”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례를 통한 성찰

-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토론 |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현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관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 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제출)

회 원 가 입 서

이 름		주민번호	
이동전화		전자메일	
집 주소			
거래은행		예금주	약정금액
계좌번호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 후원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계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2년 제26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 2022년 1월 27일

발행인 : 김정수

발행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_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7 / 팩스 02-929-4843 / 이메일 wmpeace@naver.com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wmp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